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43 / March / 2006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0603

칼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회원작품

혜로헌(慧路軒)

생곡주택

중앙 청소년수련관

방학동 우림빌딩

천주교 송파동 성당 리노베이션

남부골프연습장

작품노트

경주 토함정사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에서의 외국건축-02

자재정보

건축사 2006 03

Korean Architects 443



표지사진 혜로헌(慧路軒)

Contents

19



26



30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6 03 443호

칼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개략된 건축사법은 환원되어야 한다	장양순	12
건축만평		유원재	15
회원작품	혜로헌(慧路軒)	김호만	16
	생곡주택	강대화	22
	중랑 청소년수련관	노윤경	28
	방학동 우림빌딩	유재득 · 최 준	34
	천주교 송파동 성당 리노베이션	박재환 · 안기돈 · 송재현	40
	남부골프연습장	이용선	44
작품노트	경주 토함정사 자연이란 아이기를 얻을 수 있는 빈 그릇같이 비어두고 싶었던 집	정현화 · 임영수	48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에서의 외국건축 - 02	윤인석	53
설계경기	중계2동 복합청사 외		60
기고	한국건축산업대전 - 01 그 시작과 준비	이규환	72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전영철	75
보고서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신춘규	86
추요			90
건축마당	협회소식		92
	건축계소식		98
	건축인터넷정보		103
	통 계		106
	자재정보		108
	해외잡지동향		110

발행인 이철호
 편찬위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주)영림인쇄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38



43



47

Korean Architects

Vol. 443
March 2006

Column

Things That Change and Those That Don't Chang Yang-soon 12

Cartoon

Yoo Won-jai 15

Works

Hyerohun Kim Hyo-man 16

Seang Gok residence Kang Dae-hwa 22

Youth Cultivation Center, Junggrang Rho Yoon-Kyung 28

Bang Hak Dong Woolim Building Yu Jai-deuk & Choi Jun 34

Songpa-dong Catholic Church Park Jae-hwan & Ahn Ki-don & Song Jae-heon 40

NAMBOO Driving Range Lee Yong-sun 44

Design Note

Toham Residence Chung Hyun-hwa & Leem Young-soo 48

Special Series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02 Yoon In-suk 53

Competition

Junggye2-dong Complex Office etc. 60

Feature

Architecture Industry Exposition of Korea - 01. Inauguration and Preparation

Lee Kyu-hwan 72

After the National Assembly Symposium for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Culture Promotion

Jeon Young-cheol 75

Report

An introduction on Framework of APEC Architect Project Shin Chun-gyu 86

Condolence

90

Architects Plaza

Kira News 92

Archi-Net 98

Archi w.w.w 103

Statistics 106

Product Information 108

Overseas Journal 110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개악된 건축사법은 환원되어야 한다

Things That Change and Those That Don't
- Architectural Code Should be Restored from Retrogressive Revision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단순한 생활패턴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이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친 그 파급과 속도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공산주의 국가까지 전 세계에 보급된 인터넷은 그와 비견할 수 없는 경천동지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혁명이 한 세대 단위의 변혁이라면 나노시대를 살아가며 인터넷을 즐기고 유비쿼터스시대를 열고 있는 지금은 1년, 한 달, 하루, 한 시간 아니 분초가 변화하고 있다.

백과사전을 보면 세대를,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통 15~30년 사이로 정의하고 있다. 옛날로 거슬러 오를수록 농경과 목축사회인만큼 15년 쪽에 가까울 것이요 현대처럼 많은 공부를 하고 사회진출을 해야 하는 시대에는 30년 쪽이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O. 로렌츠는 3세대 1세기론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을 보면, 이를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식이나 풍습을 전개하는 일정폭의 연령층'이라 풀이하고 있다. 이 사전대로라면 이러한 세대의 기간은 대폭 단축되어야 한다. 문명과 문화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공자시대에도 세대 간 갈등은 존재하였기에, 그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고 한탄하였다. 그렇다면 요즈음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30년은 고사하고 10년 단위 또한 옛날 이야기이다. 20세기 중반에는 전전과 전후세대로 구분하였고 후반기에도 몇 년 단위로 X세대 Y세대라고 구분했으나 이제는 1년 단위로 생각과 행동이 달라 학생들은 학년이 곧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이런 말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분명 세대 간의 간격이 좁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세대 차이는 생각과 의식, 가치관과 행동, 풍습을 달리하는데 있다. 기성세대가 술과 고스톱문화라면 이들은 PC방과 스키장문화이며, OFF LINE과 ON LINE이며 독수리타법과 엄지족의 차이이다. 결혼비용은 부모의 의무이며 축의금은 신혼 종자돈으로 다 받아야 하고, 아이들 첫돌잔치도 비용은 할아버지가 축의금은 손자가 가져야 하는 이기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이 변한다 해도 인간의 기저에 흐르는 보편적인 것은 변하지 않으니 곧 인간에 대한 사랑, 봉사, 헌신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정직, 공선사후 등의 가치가 끝내 인정받고 영존한다는 사실이다.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에 의해 창립된지 올해로 40년이 된다. 우리협회에서는 이에 따라 금년 정기총회에서 건축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시대변화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강구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간 건축사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국민정부시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개악이 되었으니, 바로 건축사협회의 복수와 허용과 건축사협회에

의사의 실수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건축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변호사와 같이 건축사도 허가를 위해 수많은 법을 다루기에 과거에는 법무 업이며 서업으로 분류했다.
생명과 재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변호사와 의사가 단일협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건축사협회도 국민을 위해 당연히 단일협회가 되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고도 개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모든 단체가 그리해야한다고 하여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말았으나 현재 시행되는 변호사법이
나 의사협회 정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법은 사무소 개설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무조합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한층 강화되어 개업의뿐 아니라 모든 의사면허를 취득한자는 반드시 등록하고 공제회에도 의무가입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이는 종전의 우리 건축
사협회와 같은 것으로 이들은 규제개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이들이 통상적인 협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켰기에 온전했는지 아니면 파위가 크기에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
제로 인류 공통의 기초적 필수조건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재산과 신체상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 차선이니 이
들이 첫째, 둘째를 차지함은 당연지사이다. 고로 이들은 '인명과 재산, 이 두가지는 국민과 밀접한 관계로 협회가 복수가 되어 각기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나올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니 그래도 좋은가' 반문하며 설득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는 참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독점적 위치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명의 문제로 보더라도 의사는 진단과 시술을 잘못할
경우 한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지만 건축사는 삼풍 사고 등에서 보듯이 수십 수백명의 인명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며, 변호
사 업무 중 대다수인 재산 등에 관한 것도 건축사의 디자인 및 기획 능력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속에 포함된 윤리위원회의 문제이다. 의사협회는 권리정지 3년과 고발, 벌금 등을 결정할 수 있고, 변호사협회는 영구제명까
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윤리위원회를 갖고 있으나 우리협회는 이와 유사한 윤리위원회가 소멸되고 허명만 남아있는 현실이다.

현재 건축사의 총 개업인원은 약 1만여명으로 우리협회 가입자가 8,000여명, 나머지 미가입회원이 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
실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설계도서신고제 폐지에 따라 서명건축사를 허가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 성명을 도용하여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무등록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설계업무를 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둘째, 건축사 면허의 대여가 성행한다는 점이다. 우리협회에 모두 등록된 과거에는 감사를 실시하거나 지도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행할 수 없음으로 적발이 불가능하며, 결국 이로 인한 부실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셋째, 설계, 감리건축사의 임의교체가 만연되고 있는 점이다. 계획 설계를 받아놓고 실제 설계는 다른 건축사를 통해 계획 설계대로 행하는 것

건축사 명의 도용, 유사명칭, 면허대여, 감리설계자의 임의교체로 인한 소송 등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개업건축사는 반드시 법정(法定)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복수체제 수년에도 새 단체 탄생 못해.
세월따라 인간의 모든 것이 변해도 베푸는 사랑의 기쁨은 변치 않듯이 국민민복의 기초위에 법을 세워야 한다.
건축사법의 환원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은 물론 공사 중에도 정당한 감리자의 말이 건축주의 이익에 반할 경우 감리자나 설계자를 임의로 교체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저작권과 윤리강령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피해 건축사는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야 하며 건축주는 공사의 지연 등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의 품위보전뿐만 아니라 업무개선 및 건축물의 연구 발전을 통한 건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데 개업인원의 25%는 가입하지 않음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협회의 재정은 악화되어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건축사는 10개 이상 20여개에 달하는 법의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건축사 업무는 그래서 종전에는 법무 업이며 국민을 위한 서업이었다. 따라서 건교부는 당연히 변호사나 의사처럼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축사에게 그들과 마찬가지로의 제도 즉, 종전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 줘야한다.

최악의 경우 지금처럼 복수단체를 허용할 경우 개업건축사는 반드시 어느 한 단체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단체가 복수화 되면 그만큼 모든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많겠지만 그래도 무임승차 인원이 있는 것 보다는 나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복수단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다른 단체의 출현은 없으며 창립된 지 수년이 되는 새건협도 협회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젠가 그리된다하더라도 윤리위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자기회원 감싸기로 형평성이 훼손되어 파국을 맞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의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다.

지금 정부와 협회에서는 UIA규정에 맞춘 건축교육제도 개편과 함께 건축사자격관리제도의 정지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건축사등록원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필자의 의견대로 한다면, 후자는 우리협회에 약간의 기능과 업무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써 굳이 2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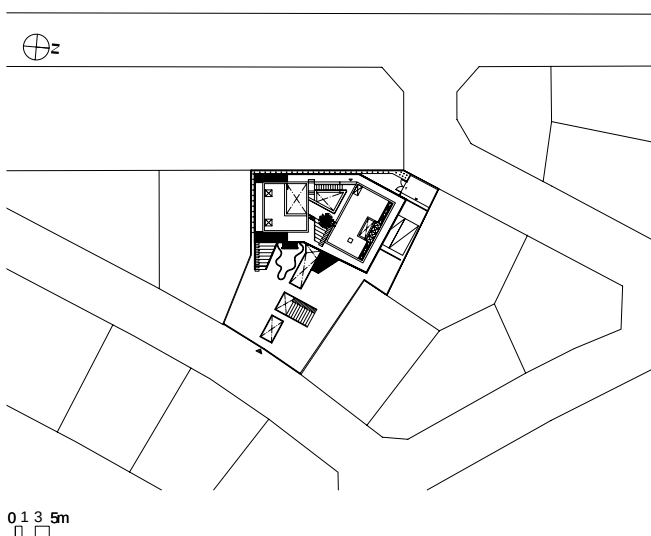
인터넷을 몰라도, 엄지족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베푸는 사랑인 것처럼 건축사법에도 국민을 위한 변치 않는 본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아닌 개혁이 되어버린 이 법은 이만큼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미 적시한대로 국민을 위해 빨리 되 돌려놓아야 한다. 분명 이는 우리의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민민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ㄹ

혜로헌(慧路軒)

Hyerohun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64-10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94㎡
건축면적 168.63㎡
연 면 적 269.07㎡
건 폐 율 44.25%
용 적 률 70.60%
규 모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색락카, 합판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설계담당 정수미
건 축 주 심형섭
설계시간 2004. 03 ~ 05
공사시간 2004. 05 ~ 12



Location 864-10, Ilgok-dong, Buk-gu, Gwangju, Korea
Site area 594㎡
Bldg. area 168.63㎡
Gross floor area 269.07㎡
Bldg. coverage ratio 44.25%
Gross floor ratio 70.60%
Structure R.C.
Bldg. Scale three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4. 03 ~ 05
Construction period 2004. 05 ~ 12





도심속의 자연으로서의 대지

대지는 도시의 끝인 도시와 자연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뒤로는 자연에 닿아있고, 앞으로는 도시를 바라보는 '도심속의 자연'이라는 현대 사회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주거환경을 획득하고 있다.

계단마당으로 연속된 열개의 마당 - 들어올려진 땅

전면도로의 대문에서 연결되는 기다란 진입 마당은 '계단마당-1'을 통해 '앞마당-1'로 연결되면 곧바로 길게(樓下)진입하여 계단을 통해 둘러싸인 1층의 '안마당'으로 연결된다.

'앞마당-1'에서 브리지로 연계된 '앞마당-2'는 '계단마당-2'를 통해 2층의 '노대마당'에 도달하며, 여기서 다시 '계단마당-3'을 올라 3층의 정상부인 '옥상마당-1'에 도달하게 되고, 이곳에서 둘러싸여진 '옥상마당-2'로 연결되게

됨으로써 전면도로의 대문레벨에서 시작하여 4개 층의 각 레벨에서의 열개의 마당들이 모두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연결 소통되는 드라마적인 외부공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복층으로 프로그램된 주인침실과 자녀침실 - 큰판위에 얹혀진 두개의 BOX

주인침실은 침실과 서재, 자녀들의 침실은 침실과 공부방의 복층으로 각각 프로그램 되

어 두 동의 침실 Box가 1층의 거실과 식당이 합한 공용 Mass 위 큰판 위에 얹혀있는 형상이다.

안마당에 의해 분리된 거실과 식당

음악실의 기능을 겸하는 거실은 식당 및 타실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안마당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배치되고 있다.

떠있는 정원 그리고 거실 - BOX in BOX의 공간과 빛

3개층 높이의 볼륨을 가진 거실 공간속에는 대나무 정원을 포함하여 두 층 높이의 볼륨을 가진 주인 침실의 Mass가 떠있다.

떠있는 정원 위의 하늘이 인식되며 그곳을 통해 투사되는 빛과 떠있는 Mass와 거실 벽사

이의 지붕 톱라이트로 강하게 인입되는 빛은 거실의 노출콘크리트 면을 씻어 내리며 거실의 공간성을 하루 종일 변화시키고 있다.

FLOATING ROAD & GARDEN

들어올려진 땅으로서의 노대마당인 큰판위에 얹혀져있는 두개의 상자(그것은 가족들의 안식처인) 그리고 주변과 아래위로 연속되어 연결 되어있는 길과 마당들은 이집의 인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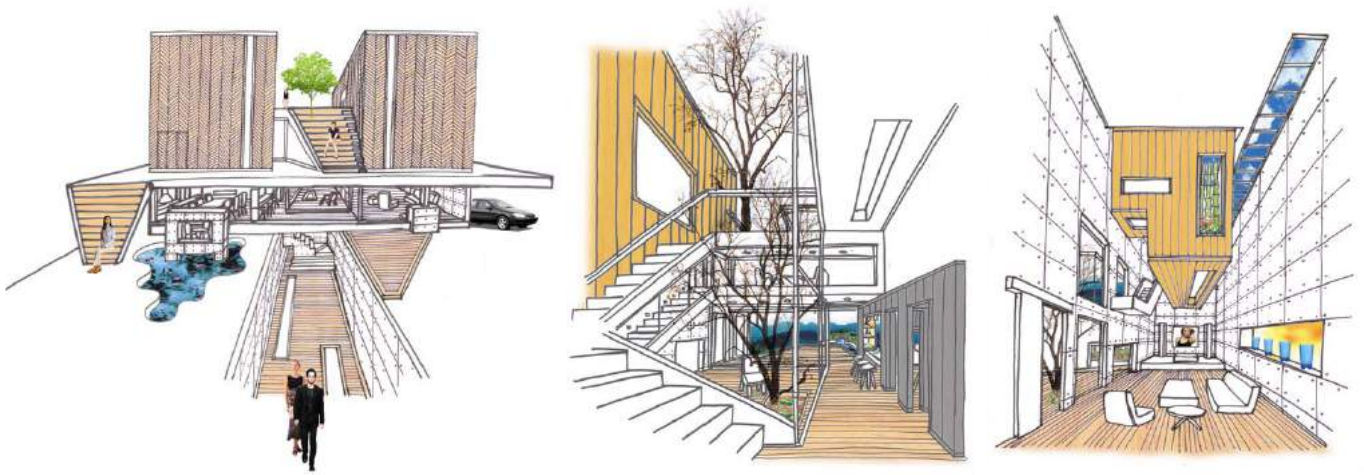
지혜로운 길이 있는 집, 헤로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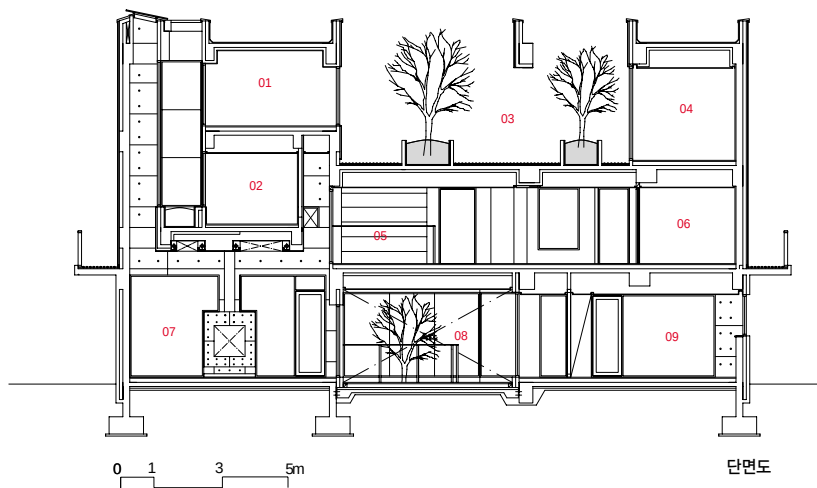
이집의 주인은 변호사이다. 법관으로서의 성취와 자녀들의 성공적 미래들... 그 성취의 세계로 도달하는 길에 이집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圖]



- | | | | | |
|---|---|---|---|---|
| 1 | 2 | 3 | 4 | 5 |
|---|---|---|---|---|
1. 진입통로에서 본 대문속 전경
 2. 배면도로에서 본 옥상마당
 3. 옥상마당
 4. 안마당
 5. 안마당과 옥상마당 그리고 주정원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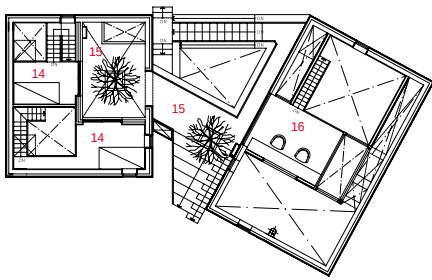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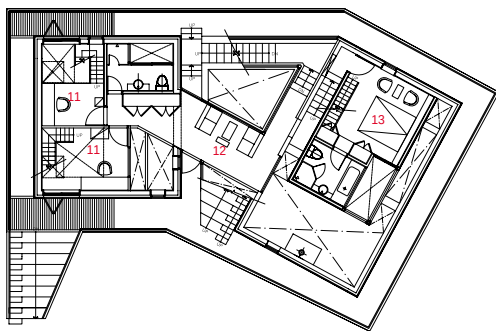
- 01 서재
- 02 욕실
- 03 옥상마당
- 04 침실
- 05 가족실
- 06 자넨방
- 07 거실
- 08 안마당
- 09 주방

- | | | | | |
|---|---|---|---|---|
| 1 | 2 | 3 | 4 | 5 |
|---|---|---|---|---|
- 1. 거실 위에 떠있는 주인침실 매스
 - 2. 주인침실 진입통로
 - 3. 2층 가족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거실
 - 4. 식당에서 보이는 안마당과 거실
 - 5. 자넨공부방에서 자넨침실로 오르는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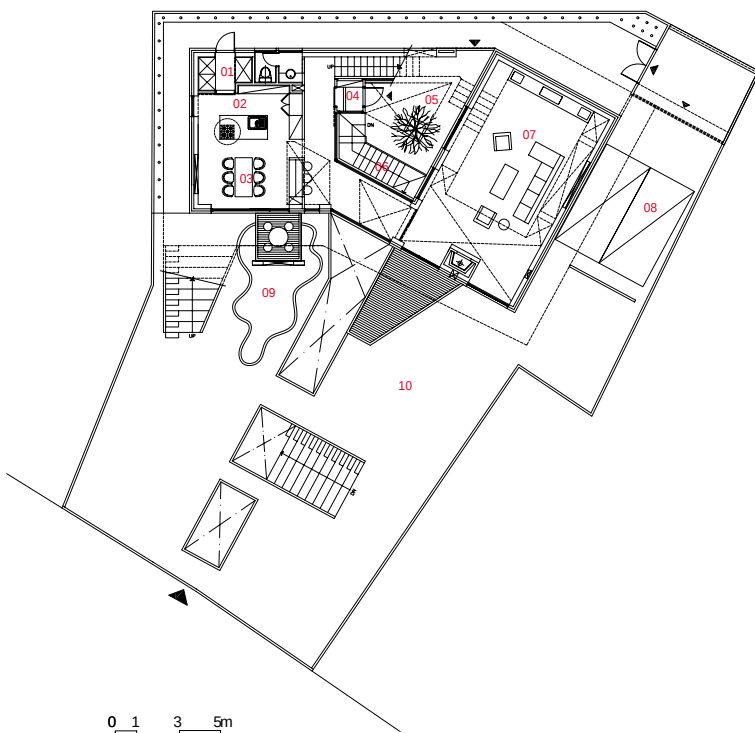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_ 다용도실
- 02_ 주방
- 03_ 식당
- 04_ 환관
- 05_ 안마당
- 06_ 외부계단
- 07_ 거실
- 08_ 주차장
- 09_ 연못
- 10_ 정원
- 11_ 자넨방
- 12_ 가족실
- 13_ 주인침실
- 14_ 침실
- 15_ 욕실마당
- 16_ 서재

0 1 3 5m

생곡주택

Seang Gok residenc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258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29m²
건축면적 172.48m²
연면적 256.05m²
건폐율 52.43%
용적률 77.83%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실크벽지마감
외부마감 방부목, 적삼목, 드라이비트 토탈시스템
설계담당 탁현경, 안광순

Location 258, Saenggok-dong, Gangseo-gu, Busan, Korea
Site area 329m²
Bldg. area 172.48m²
Gross floor area 256.05m²
Bldg. coverage ratio 52.43%
Gross floor ratio 77.83%
Structure R,C
Bldg. Scale two stories above ground



1. 앞산 언덕에서 내려다본 전경
2. 가로변 주 전경





2002년 9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주택설계 의뢰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젠 농사일을 놓으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흥미 있는 몇 가지 요구를 듣게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현재의 부지가 산과 바로 접하다보니 부지 내로 작은 수로가 형성되어 항상 물이 흘러들어 온다는 것이다. 당시의 집도 작은방 아래로 작은 수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집을 아예 한층 더 어울려 짓고 싶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가 5남매인데 한 두 달에 한번씩 온가족이 다 모이면 손주까지 22명이나 되어 노부부중심의 일상의 주거방식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버린다.

변화된 마을, 가치관의 변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생곡동은 10여 년 전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맞는다. 매립장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 가난한 농촌은 예상치 못한 보상금으로 부자도 되고 쓰레기 분리처리장의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기존의 60가구의 농가는 갑자기 120가구로 배로 늘고 타지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인간애는 사라지고 각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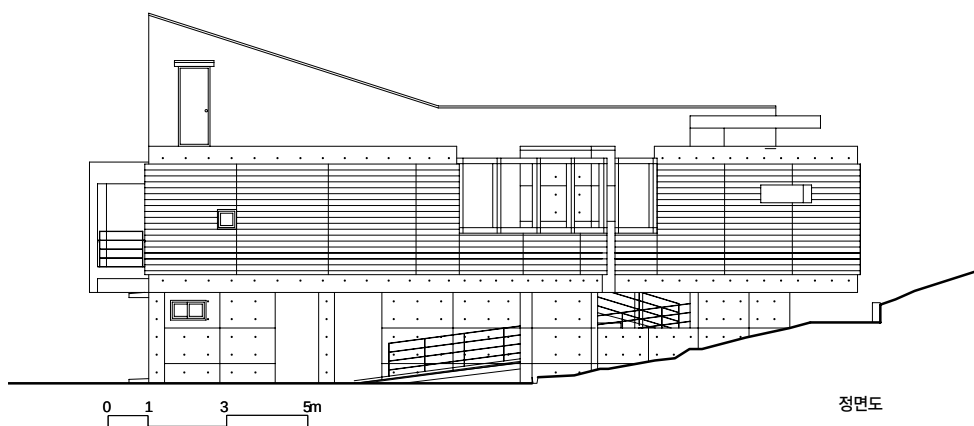
지면서 마을 공동체는 급속히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서향으로 마을과 논을 바라 보고있다. 동남향의 산을 등지고 마을의 끝단에 위치하여 언제나 삶을 함께 하고 생사고락을 나누던 이웃과 생존의 터를 향해 살아왔던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언제나 삶의 공동체인 마을을 향해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의 세월이 끝나고 삶의 여생을 맞이한 노부부에게는 이렇게 변해버린 마을과 경작지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고, 비록 마을은 등지지만 서향집으로 인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경관이 우선이 되어 미련 없이 앞산으로 향하는 남향의 집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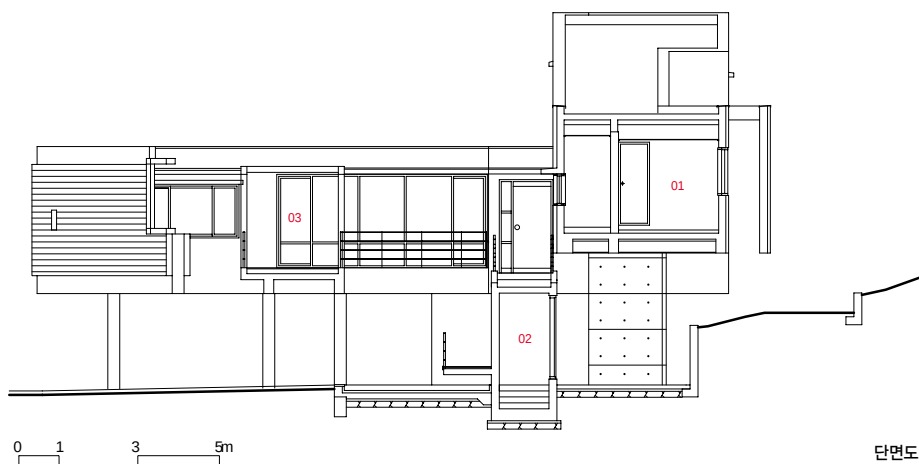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접지층의 완전한 개방으로 그 윗 층은 무언가 막아야겠다는 선입관이 든다. 묘하게 절곡되어지는 이 새로운 대지경계를 따라 2층 레벨은 폐쇄형 가벽으로 경계를 지운다. 이것은 서향을 차단하겠다는 전제도 있었고 앞산으로 올라가는 주변으로 이웃들의 텃밭들이 있어 주거층의 노출을 어느 정도 막고 내부에서도 적당

한 경관만 확보되면 가려워져 안정감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이다. 노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다만 일상의 생활공간과 일시에 확장되는 영역을 명확히 분절만 하면 된다. 두 사람만 생활할 때와 자녀들이 모두 모였을 때의 주거양태는 확연히 구별된다. 평소에는 썰렁하지 않으면서 대식구가 올 때는 자연스럽게 합쳐 질 수 있는 구조로 잠시 지체하는 여유의 방들은 남향과 직교시켜 동서향으로 자리한다. 이 집의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는 하부로부터의 진입공간은 노부부와 어린 손주들을 위해 경사로를 만든다. 중심의 빈 공간은 가벽과 확장된 공중테라스, 'ㄱ'자로 깎이는 평면이 에워싼다. 마당에 직접 접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공중테라스를 외부경계까지 확장시켜 2층 주거레벨에서 띄워짐으로인해 오는 격리감을 다소 완화되길 희망한다. 거실, 복도와 함께 앞뒤로 장치되어진 옥외테라스들은 서로 다른 레벨들로 둘러 쌓여 다양한 마주침이 있게 하여 어린 손주들에게 흥미유발과 즐거움이 있는 '자주 가고싶은 할아버지집'은 설계초기부터 머릿속을 맴돌았다. 



- 01 화장실
- 02 창고
- 03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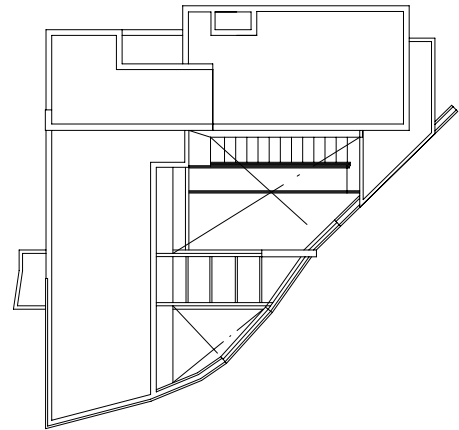


- 1. 2층 주거지로 올라가는 공간
- 2. 2층 데크
- 3. 거실에서 남향으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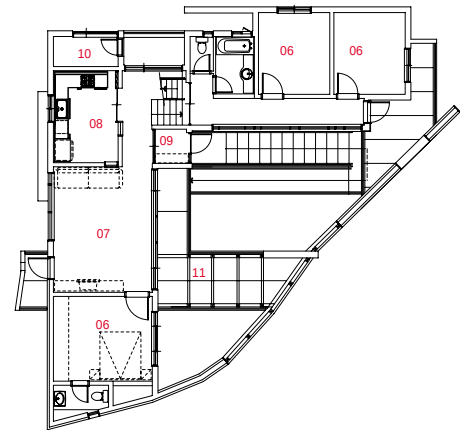
- 01_보일러실
- 02_창고
- 03_데크
- 04_수공간
- 05_주출입구
- 06_방
- 07_거실
- 08_주방 및 식당
- 09_현관
- 10_다용도실
- 11_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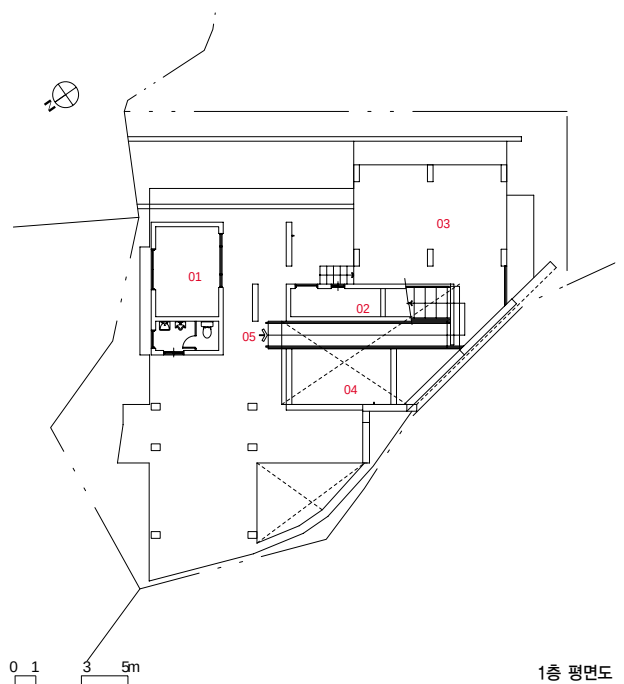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 | | |
|---|---|
| 1 | 5 |
| 2 | 6 |
| 3 | |
| 4 | |

- 1. 전면 파사드
- 2. 건물 진입 피로티 공간
- 3. 진입 데크
- 4. 마당에서 올라다본 테라스 상세
- 5. 외부통새로 보여주는 중정
- 6. 적문방들로 이어지는 복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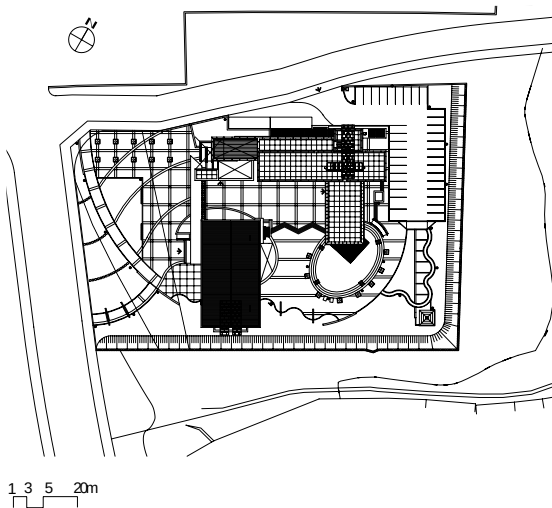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중랑 청소년수련관

Youth Cultivation Center, Jungna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41-2외 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부일반주거지역, 일부개발제한지역, 일부군사시설보호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7,710.00㎡
건축면적	1,313.69㎡
연면적	5,083.62㎡
건폐율	17.04%
용적률	32.72%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SRC조
주차대수	지상주차 34대(법정 25대)
외부 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알루미늄시트, 알루미늄타공판, THK24컬러복층유리, THK30마천석버너구이
설계담당	김두환, 김중섭, 최지호, 노경문, 최병용, 유정필, 장성근, 박미영, 류승경
구조설계	(주)석산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주)하나기연
전기설계	극동전기기술사사무소
시공사	(주)대저토건
설계기간	2002. 11 ~ 2003. 06
공사기간	2003. 12 ~ 2005. 12



Location	241-2, Mangu-dong, Jungnang-gu, Seoul, Korea
Site area	7,710.00㎡
Bldg. area	1,313.69㎡
Gross floor area	5,083.62㎡
Bldg. coverage ratio	17.04%
Gross floor ratio	32.72%
Structure	R,C + S,R,C
Bldg. Scale	two stories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2. 11 ~ 2003. 06
Construction period	2003. 12 ~ 2005. 12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으로서 더 이상 도시화가 제한되어있는 도시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과 도시의 자연스런 경계에 놓여있다. 청량리에서 출발하여 연결되는 중앙선의 양원역과 암우산에서 뻗어 내려온 남쪽의 나지막한 산자락사이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적인 요소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으며, 전원적인 풍경을 가진 녹지와 약간은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있는 주택가, 학교 등이 철길과 서로 엮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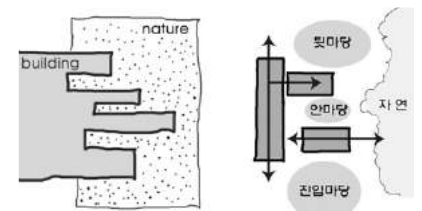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인공이라는 두 에너지가 이 경계점에서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와 또한 '청소년의 움직임을 담는 그릇으로서 작동되기 위하여 어떻게 관계맺어야 할 것인가?'는 계획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자연과 인공이라는 대립적인 긴장된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두 요소가 상호유기적인 복합체로서 공존하기를 의도하였으며, 도시적인 장면을 만들기 보다는 건물과 외부공간이 주변의 전원적인 풍경과 상응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설계의 가장 큰 목표였다.

덩어리나누기(program analysis)

각 기능의 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라 체육관, 다목적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매스를 나누고, 마당에서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내외부공간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대지면적은 비교적 큰편 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20%이하라는 법적인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극장 등을 지하에 배치하였다. 지하 1층에 자연채광의 적극적인 유입과 환기를 원활하기 위하여 지



자연과 관계짓기

덩어리나누기 / 마당만들기

하층의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극장과 연계된 썬큰 가든(sunken-garden)은 자연적 요소(빛, 바람, 구름)가 실제로 유입됨으로서 보다 풍부한 내부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앞마당을 통해 독립적인 동선을 부여하였다.

마당만들기(open space)

외부공간은 크게 주진입부 전면의 진입마

당과 건물에 의해 둘러싸인 안마당, 후정의 역할을 하는 뒷마당(놀이마당, 생태학습장, 산책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주변의 녹지로 열려있어 두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하였다. 이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공간체험의 장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주출입구도 인지성 보다는 공간체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으로 진입마당, 안마당을 통해 진출입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였다.

진입마당은 수련관 도입부로서 우측엔 소나무 군을 식재하여 체육관 진입부와 자연스럽게 구분시키면서 중심마당으로 진입토록 하였다. 또한 전면마당이 없는 양원역사와 앞마당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 곳이 지

역사회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마당은 옥외 오픈 스페이스의 중심이며 각 건물의 진출입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외부 공간의 중심이 된다. 세면은 건물 군에 의해 한정되어 있으며, 한쪽은 앞산의 구릉의 흐름이 마당으로 흘러들어와 자연스럽게 맞닿도록 하였다.

뒷마당은 생태학습장과 놀이마당(야외공연장),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생초화 화훼류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생태시험장,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도록 하였다.

관계짓기(relation)

이와 같이 만들어진 덩어리와 외부공간은 역사, 철길(중앙선)과 평행한 방향의 축을 설

정하여 주동을 배치함으로서 철길과 구분시켜 수련관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나름대로 독립적인 영역을 갖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배치는 철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주기도 할 것이다.

철길과 평행한 매스와 직교하여 만나게 되는 다목적 홀과 체육관 매스의 분절을 통해 외부공간을 한정시킴으로서 주변의 나지막한 산세의 흐름이 안마당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공간과 매스를 교차시켜 배치함으로서 옥내·외 공간이 침투되어 상호관입 되도록 하였다.

진입마당과 출입구를 잇는 일직선상의 축에서 보면 매스와 마당의 배치를 서로 엇갈리게 함으로서 동선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장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외부의 자연과 맞물려 있는 배치를 가진 이 시설은 군더더기가 없는 재료자체의 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베이스 패널과 유리의 커튼 월을 주 외장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이곳이 갖고 있는 장소적 특성과 일체가 되도록 하였다.

주출입구를 통하여 2층까지 직선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행태를 담을 수 있는 주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개층을 오픈시키고, 커튼월의 유리를 통하여 안마당과 상호 교감하도록 하였다.

공사비의 한계로 인하여 내부재료 사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성페인트의 다양한 색채사용을 통하여 내부 공간의 변화와 풍부함을 주도록 하였다. 청소년

문화의집 홀의 기둥, 계단, 벽 각 요소들의 색채를 달리 사용하여 중첩시킴으로서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움직임이 활발한 주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 부분의 벽면색을 달리 계획하여 층별의 인지성을 부여하고 변화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나머지 강연을 위한 실들은 경량칸막이를 구획하여 청소년의 중요한 특성인 다양성과 변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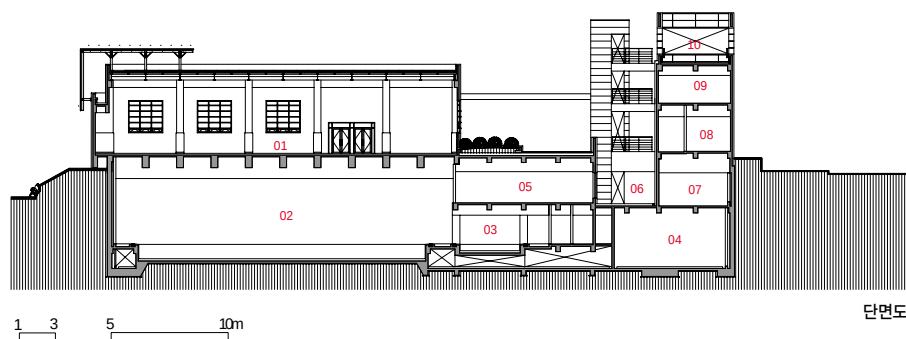
항상 공공건물 공사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는 제도상 모순으로 인하여 설계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 곳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전면마당과 안마당을 구분지으며 한정하는 중요한 수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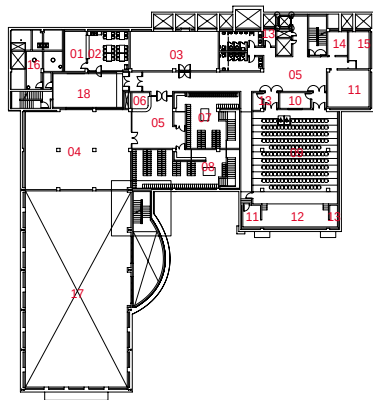
요소인 옥외계단의 외장재료의 변경(마천석 버너구이에서 일반화강석 버너구이로 변경)과 계단을 잇는 브릿지의 유리를 씌운 부분은 건물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바꾸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아무튼 미래의 주역인 그들이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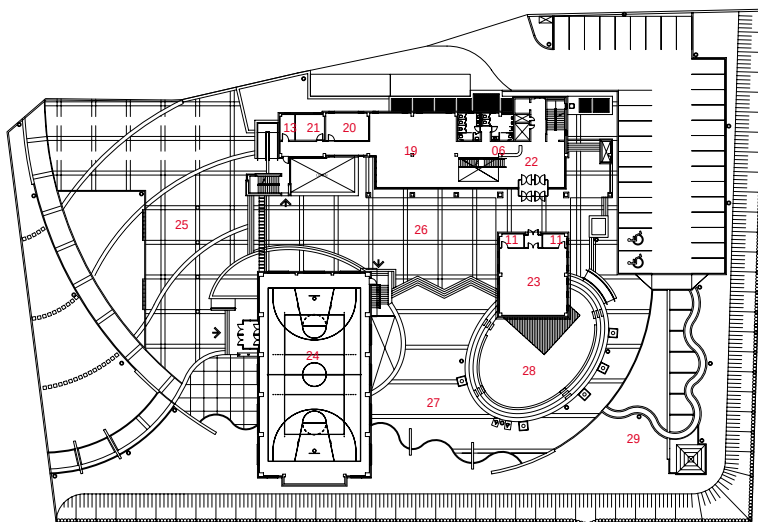
- 1. 안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 2. 전입마당에서 바라본 안마당
- 3. 전입전경

- 01. 체육관
- 02. 성인용 Pool
- 03. 유아용 Pool
- 04. 지하저수조
- 05. 체육단련실
- 06. 세관
- 07. 주방
- 08. 관리실
- 09. 공연연습장
- 10. 옥외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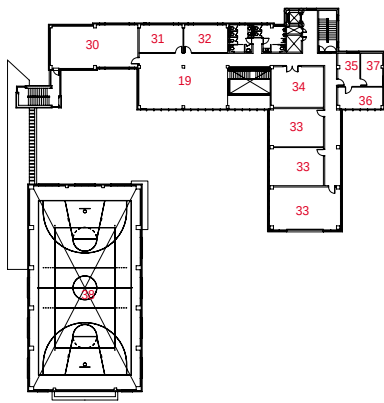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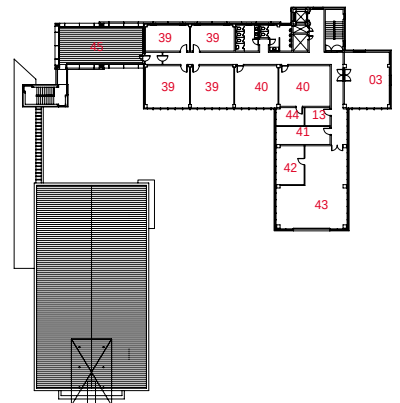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01. 주방 | 24. 체육관 |
| 02. 식당 | 25. 진입마당 |
| 03. 공조실 | 26. 안마당 |
| 04. 체력단련실 | 27. 놀이마당 |
| 05. 홀 | 28. 야외공연장 |
| 06. 안내 | 29. 뒤탈마당(자연채형장) |
| 07. 탈의실(남) | 30. 공연연습실 |
| 08. 탈의실(여) | 31. 음악연습실 |
| 09. 소극장 | 32. 창작공방실 |
| 10. 조정실 | 33. 프로그램실 |
| 11. 준비실 | 34. 정보서비스실 |
| 12. 무대 | 35. 상담실 |
| 13. 창고 | 36. 그룹상담 |
| 14. 방재실 | 37. 전화/PC상담 |
| 15. MDF | 38. 체육관 상부 |
| 16. 정화조 관리층 | 39. 자치활동실 |
| 17. 수영장 상부 | 40. 컴퓨터실 |
| 18. 썬큰 | 41. 지도자실 |
| 19. 청소년문화의집 | 42. 관장실 |
| 20. A/V실 | 43. 사무실 |
| 21. 관리실 | 44. 자료보관실 |
| 22. 로비 | 45. 옥외테라스/휴게실 |
| 23. 다목적실 | |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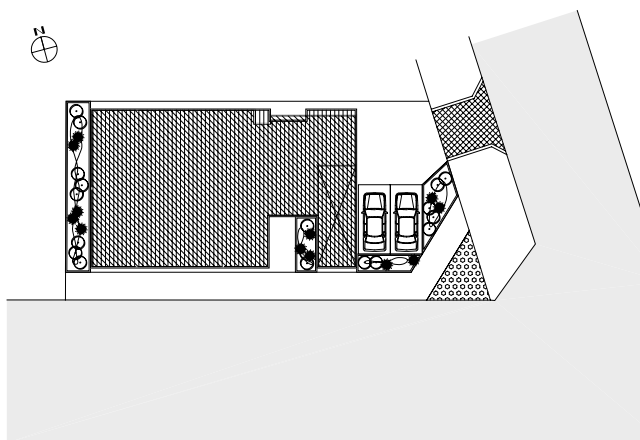
- | |
|-------------------|
| 1. 놀이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
| 2. 체육관 옥상 캐노피 디테일 |
| 3. 옥상정원에서의 풍경 |
| 4.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
| 5. 청소년문화의집 화랑 |



방학동 우림빌딩

Bang Hak Dong Woolim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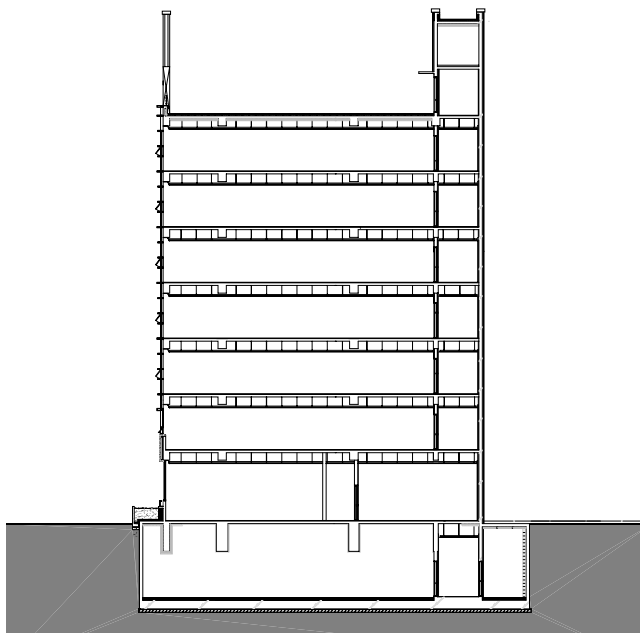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07-11호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96.40㎡
건축면적	196.56㎡
연면적	1,596.23㎡
건폐율	49.60%
용적률	341.89%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10대
외부마감	석재 및 복합패널, Thk 18 복층유리 커튼월
설계담당	배종현, 정은미, 이승만, 최희수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중훈)
시공사	다우종합건설



Location	707-11, Banghak-dong, Dobong-gu, Seoul, Korea
Site area	396.40㎡
Bldg. area	196.56㎡
Gross floor area	1,596.23㎡
Bldg. coverage ratio	49.60%
Gross floor ratio	341.89%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seven stories above ground







횡단면도

계획의 전제사항

이 건물이 입지한 지역은 공장지대로 활용되다가 개발이 거듭되면서 지역의 중추로 성장하는 역세권 지역이다. 기존 공장지대는 대형마트로 탈바꿈 되었고 기존 주거지는 아파트단지로 변모하였다. 대상지는 대로변에서 100여 미터 이격되어 입지해 도로변에서의 인지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었다. 또한 국철 철로 인근에 입지한 관계로 전철 안에서 보이는 건물의 이미지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각종 지침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수하여야 하다 보니 건물의 외곽 형태는 자연스럽게 용적율의 Maximize차원에서 단순한 Box의 형태로 계획되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최대 가용면적의 확보와 지역적 랜드마크의 인지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은 진행되었다.

도시의 작은 이정표 만들기

40미터 도로 전면에서 100여 미터 안으로 들어간 대지를 주 도로에서의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단 건물의 높이를 키우기로 결정하였다. 어차피 향후 건물이용의 융통성확보 차원에서라도 층고를 높이는 것이 유리한 현실이어서 통상적인 층고보다 조금더 높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특히, 옥상부에 가벽을 설치하여 가급적 건물이 커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과장된 제스처를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왜소화의 방지와 인지성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건물 상층부의 가벽은 거의 한개 층의 Massive한 면으로 구성하여 건물을 한정 짓도록 계획하였으며 본체와 Void된 공간의 확보와 이를 지지하는 기둥을 실버로 마감하여 부유하는 느낌을 주도록 의도하였다.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긴장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요란하지 않게 드러내기

건물이 도시의 작은 이정표로 외부에 요란하지 않게 드러내기 위하여 자연적 소재의 사용과



단순한 면분할을 시도하였다. 입면을 크게 3등분하여 기단부는 실버컬러의 복합패널로 마감하고 중층부는 커튼월로 처리하여 투명한 맑은 유리의 물성이 건물을 관통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상층부는 그레이 톤의 인조석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추구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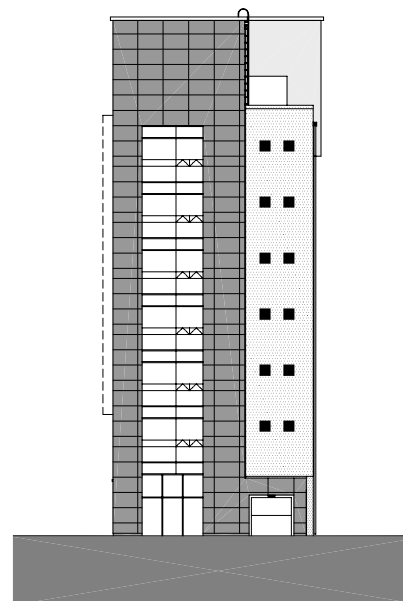
정면부는 'ㄷ'자 형태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깊은 음영을 통한 전체적인 질서와 수직성을 확보하여 맑은 유리 커튼월과의 콘트라스트를 유도하였다. 또한 향후 건축경관조명 설치가 가능토록 계획하여 야간 경관의 포인트로 작용토록 하였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계획안 만들기

10미터와 8미터 도로의 코너부에 면한 건물이었기에 가급적 코너부에 여유 공간을 두어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대지 서측부에 최대한 접하

게 건물을 배치하였다. 또한 주출입구는 매스를 Set back시켜 조정공간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진입공간을 특화시키기 위해 글래스 캐노피와 대나무 식재를 통한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임대를 전제로 한 건물이었기에 이번 건물은 효율적인 전용율 확보와 합리적인 빌딩관리를 위한 평면계획을 추구하였다. 전용면적의 최대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측부에 편단 코어를 계획하였다. 이는 우리가 늘상 보는 근린생활시설의 공용율 증대에 관한 태생적 한계를 코어부의 집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이다. 특히 코어부는 전체 건물과 평면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매스로 구분되도록 하였으며 코어부와 사무공간과의 전이공간으로 설정되도록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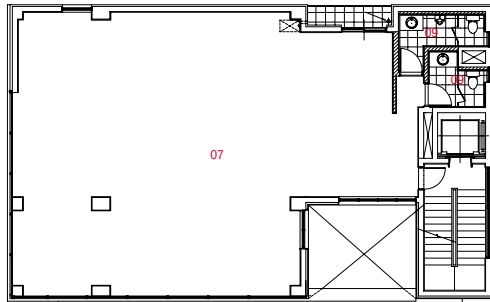
우측입면도

- | | | |
|---|---|---|
| 1 | 2 | 3 |
|---|---|---|
1. 정면 커튼월 디테일
 2. 캐노피 상세
 3. 주차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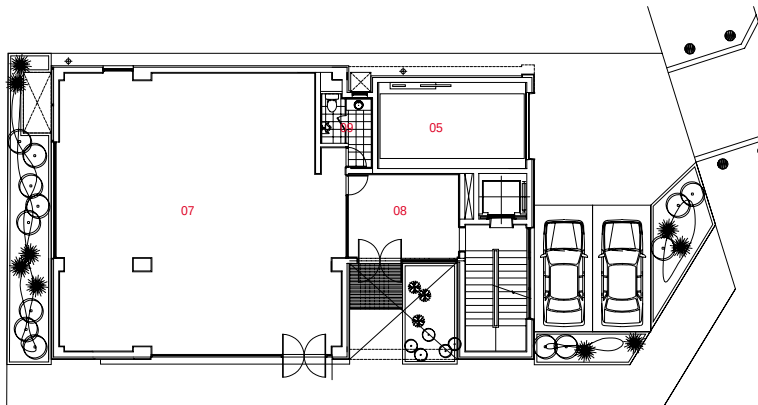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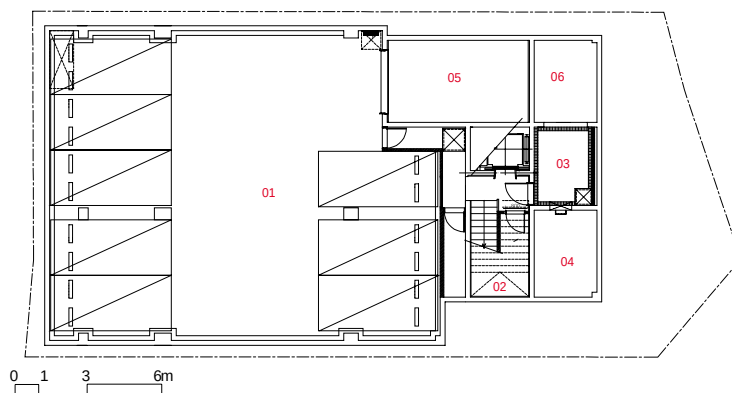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창고
- 03. 기계/전기실
- 04. 저수조
- 05. CAR LIFT
- 06. CAR LIFT기계실
- 07. 제1종근로생활시설
- 08. 홀
- 09. 화장실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 | | | | |
|-----------|--------|-------|-----------|--------|
| 1 | 2 | 3 | 4 | 5 |
| 1. 욕실부 전경 | 2. 계단실 | 3. 로비 | 4. 기준층 실내 | 5. 화장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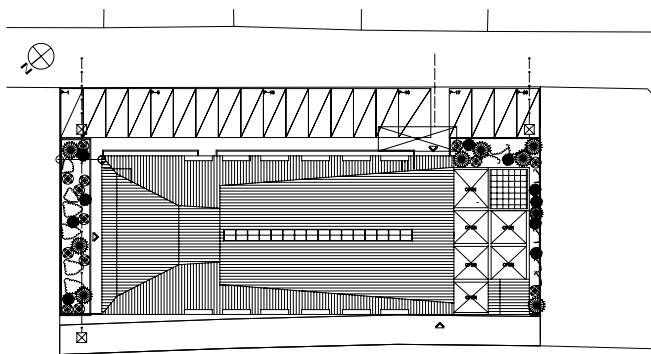


천주교 송파동 성당 리노베이션

Songpa-dong Catholic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34-2
지역지구	제2종 미관 지구
용도	문화 및 집회 시설
대지면적	1,292.70㎡
건축면적	685.84㎡
연면적	3,134.68㎡
건폐율	53.05%
용적률	195.43%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내부마감	천정 : 벽 : 헤라클라스, 바닥 : 화강석 물갈기
외부마감	외벽 : 인도산 회색 사암, 지붕 : 동판가락잇기
설계담당	정용현, 정원채, 한승재, 양미란, 양진화, 김혜지
구조설계	예영구조
설비설계	완설비
전기설계	천일엔지니어링
시공사	(주)한건한국스테인드그래스
설계시간	2003. 01 ~ 2003. 12
공사기간	2004. 03 ~ 2005. 03



Location	134-2, Songpa-dong, Songpa-gu, Seoul, Korea
Site area	1,292.70㎡
Bldg. area	685.84㎡
Gross floor area	3,134.68㎡
Bldg. coverage ratio	53.05%
Gross floor ratio	195.43%
Structure	S.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five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3. 01 ~ 2003. 12
Construction period	2004. 03 ~ 2005. 03





이 건물은 20여년 전에 구청소유의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의 약 1,000평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후일 민간소유로 이관 되어 상가 및 교회로 이용되었다가 이번에 성당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주계단의 위치변경, 최상부의 4층 슬라브 철거 및 신설, 외부입면변경 그리고 냉난방 및 조경의 변경 등 일련의 사항은 기초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사비로 보면 골조의 일부 비용만 절약된 듯이 생각된다. 사실 골조라 해도 건물이 노후하여 보강공사비도 적지 않게 소요되었다.

본당의 위치는 기존골조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4층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으며, 4층의 신설된 철골기둥은 한쪽 복도면에서 기존 기둥축열이 어긋나게 되는데, 이는 캔틀레버로 복도를 만든 다른면과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본당은 제대쪽으로 가면서 천정이 높게하여 상승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최고점에 천창을 두어 제대벽면으로 빛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횡단면으로 본당의 내부공간은 상부가 사다리꼴 형상이며, 이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종단면에서도 반복되도록 하였다. 이는 고딕성당의 pointed arch가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반복되는것의 각색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형태는 기존 box형 건물에서 성당의 이미지를 갖도록 지붕과 종탑을 구성하였고, 전면 출입구에 반 외부공간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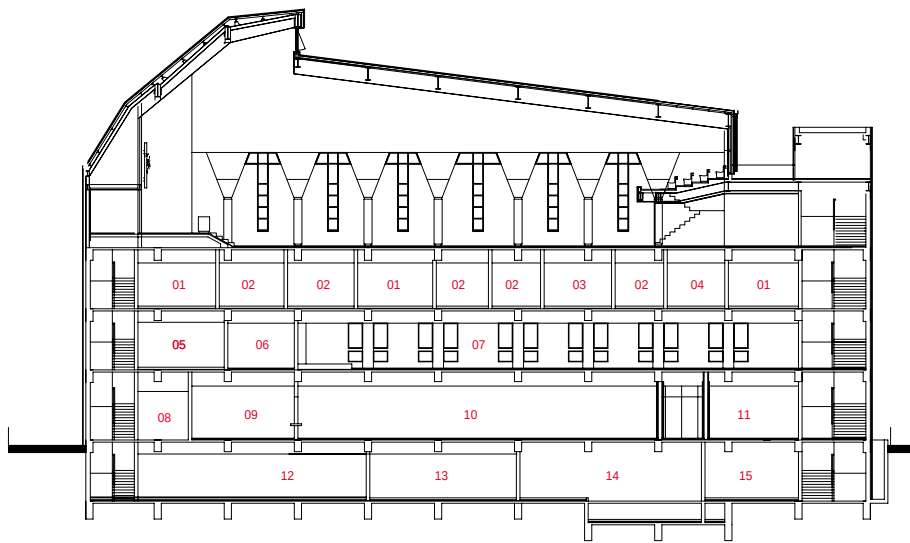
송파동 성당의 리모델링은 건축주가 만족한 사례로 여겨지며 그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신축공사비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기존건물의 골조이용과 터파기 등의 공사가 생략되어 공기와 공사비가 절약되며, 신축시에는 인

근의 건물을 임차해야 하므로 임대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을 적용하면 주차장시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로, 교회의 기능을 유지한 점이다. 신축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돼 교회가 자칫 홀트러 질 수 있다는 사항이다. 송파동 성당의 경우 본당이 최상부층에 놓이므로 최상층부를 우선완공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매주 공사진행을 신자가 지켜보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송파동 성당은 용도가 다른 건물을 종교건축물로 리모델링한 가장 대규모 사례가 됐으며, 앞으로 도심지에 마땅한 대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 01_ 거실
- 02_ 침실
- 03_ 기도실
- 04_ 부엌/식당
- 05_ 성체조배실
- 06_ 준비실
- 07_ 대강당
- 08_ 화장실
- 09_ 주방
- 10_ 만남의 방
- 11_ 홀
- 12_ 교육실
- 13_ 교리실
- 14_ 기계실
- 15_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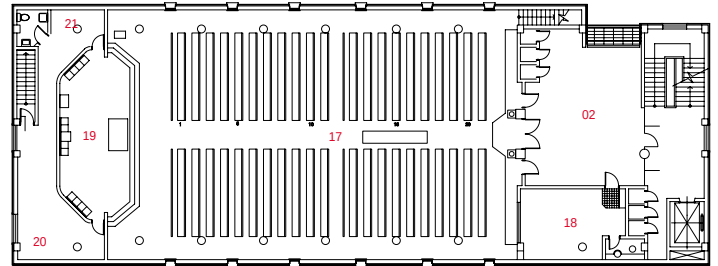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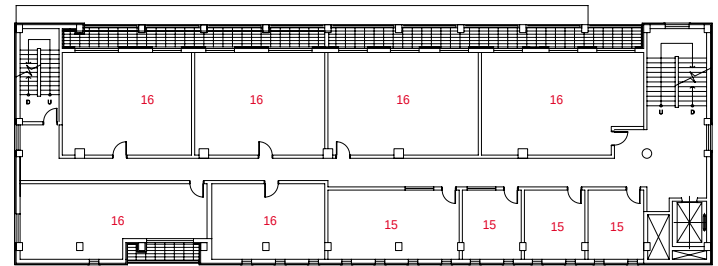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 2 | 3 | 4 |
- 1_ 주 현관 디테일-1
 - 2_ 주 현관 디테일-2
 - 3_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 4_ 본당 내부모습
 - 5_ 제대부분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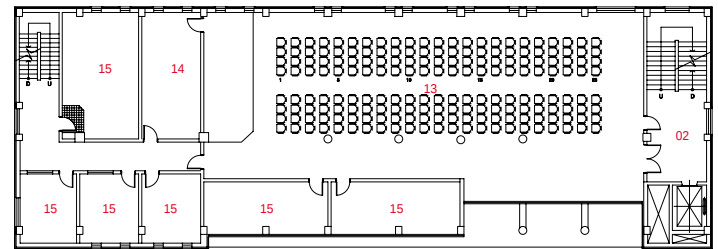
- | | |
|----------|--------|
| 01 휴게실 | 12 성모상 |
| 02 홀 | 13 대강당 |
| 03 사무실 | 14 준비실 |
| 04 강사실 | 15 회의실 |
| 05 서적판매소 | 16 교육실 |
| 06 창고 | 17 신자석 |
| 07 관리실 | 18 유아실 |
| 08 주방 | 19 제단 |
| 09 주출입구 | 20 제의실 |
| 10 부출입구 | 21 방송실 |
| 11 전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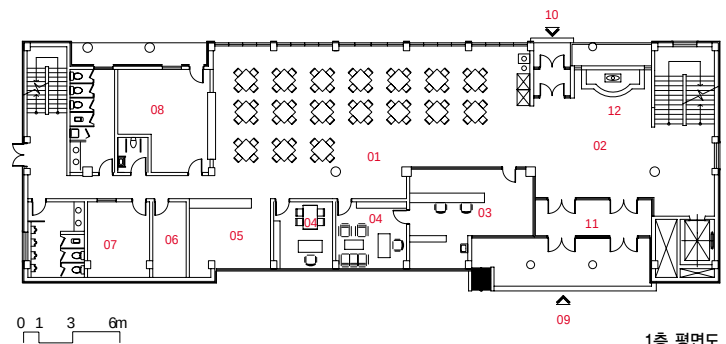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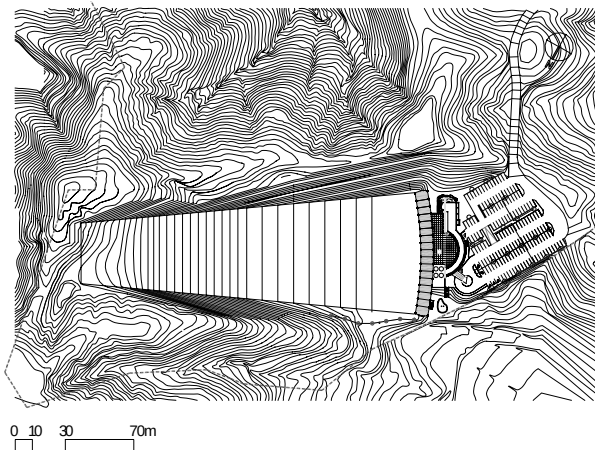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남부골프연습장

NAMBOO Driving Range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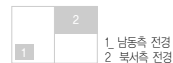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107번지 외 144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대지면적	660,191.00㎡
건축면적	1,454.17㎡
연 면 적	4,174.60㎡
건 폐 율	4.14%
용 적 륜	4.63%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알미늄슈트, ALC패널, 고밀도목재패널, 유리블럭
내부마감	로비 : 폴리싱바닥타일, 무늬목 + 비닐페인트 타석 : 인조잔디/카펫트, ALC패널위 전용도로
설계담당	정석범
전기설비	파워텍 ENG
구조설계	오성구조
기계설비	삼우설비 컨설턴트
인테리어	ENA
시 공 사	청오개발(주)
건 축 주	조원관광개발(주)



Location	107, Bora-ri, Giheung-eup, Yongi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660,191.00㎡
Bldg. area	1,454.17㎡
Gross floor area	4,174.60㎡
Bldg. coverage ratio	4.14%
Gross floor ratio	4.63%
Structure	S.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용인 민속촌내에 위치한 계획부지는 경기도 립국약당을 끼고 등산로를 오르다보면 넓게 펼쳐진 소나무군과 협곡을 만나게 된다.

등산로가 도로가 되고 협곡이 245m의 페어웨이로, 대지레벨에 따라 건물이 땅에 묻히고 닫고 올라서는 과정속에 자리잡는다.

산등성이를 넘어 서서히 보여지는 클럽하우스는 유선형의 알루미늄 Mass와 다소 투박한 노출Conc Wall 그리고 ALC패널과 유리블럭의 Mass-3개의 커로 인지되어 그 모습을 자연 풍경속에 담아낸다.

유선형의 알루미늄 매스는 클럽하우스 본연의 기능을 담는다면 또다른 곡면의 매스는 자연에 열린채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배제한다. 오로지 골퍼와 필드 그리고 자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노출Conc Wall이 중간자의 커로써 존재할 뿐이다. 즉 3개층의 open된 로비, 바깥의 풍경과 대면하는 누드엘리베이터, 중앙의 open형 철재계단과 실내벽천과의 조우

를 통해 타석과 클럽하우스의 매개공간으로서 다양한 전이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1층의 프론트, 프로샵, 스낵분식 등 고객을 맞이하는 부대시설과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한 2층 부출입구 및 서비스 출입구를 계획, 여성라운지 및 여성고객용 백보관실, 사우나, 노천탕을 계획하고 음료 및 식사를 충족할수 있는 레스토랑을 두어 여성고객의 만남과 휴게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여성고객 확보를 통한 수익성 증대에 기여 할수 있도록 하였다.

남녀 각각 1개의 노천탕은 주변 자연이 주는 깊은 맛과 민속촌의 기와를 사용한 외벽 구성은 장소성과 특별함으로 이곳을 찾는 골퍼들에게 색다른 여유를 부여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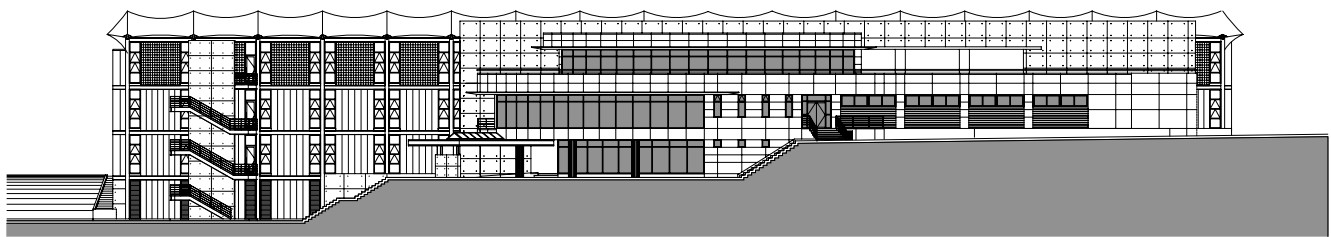
3층은 골프클리닉, 헬스장, 놀이방 그리고 옥외데크에 스윙연습장을 두어 자세교정 및 여유로운 삶의 동적공간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총 102타석(34타석/3개층)을 갖춘 타석은 넓게 펼쳐진 풍경과 이야기한다.

전 과정이 완전자동으로 이루어지는 Full Auto System적용과 PTFE Glass Faber를 채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여 고객의 편의 및 유지관리와 타석부분의 조형미와 함께 최상층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것이다.

철타를 제거하자는 건축주의 의견에 따라 법면을 그대로 활용한 페어웨이는 철타에 대한 시각적거부감을 줄여주고, 골퍼들에게 개방감과 필드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연습장이 가능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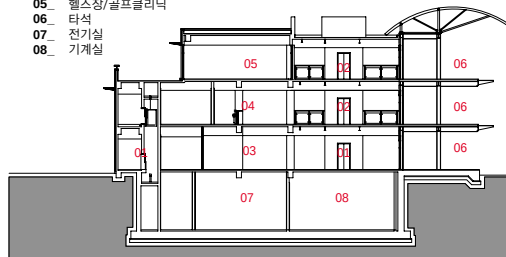
타석외벽의 유리블럭은 낮에는 자연빛의 투과된 멋을 골퍼들에게 밤에는 인공빛의 투과된 은은한 멋을 연습장을 찾는 이와 주변자연환경에 선사할것이다.

최적의 자연공간과 사우나, 헬스, 레스토랑 등의 골프관련시설과 놀이방, 노천탕을 통한 고객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남부골프연습장은 명실상부한 전문 골프연습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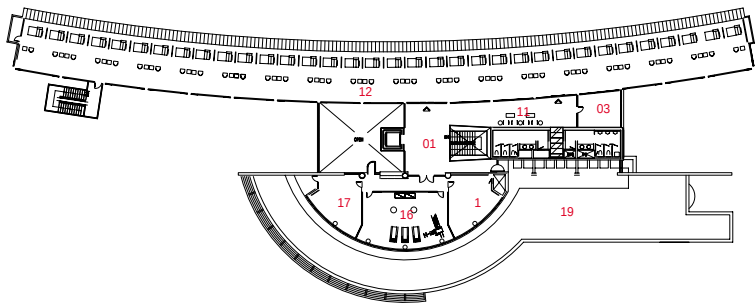
- 01_ 로비
- 02_ 홀
- 03_ 프론트
- 04_ 카운터/안내
- 05_ 헬스장/골프클럽
- 06_ 타석
- 07_ 전기실
- 08_ 기계실



0 2 6 14m

단면도





- 01_ 로비
- 02_ 스낵/분식
- 03_ 프로샵
- 04_ 전처리실
- 05_ 사무실
- 06_ 락카룸
- 07_ 탈의실
- 08_ 샤워실
- 09_ 노천탕
- 10_ 사우나
- 11_ 휴게실
- 12_ 타석
- 13_ 실내분수
- 14_ 레스토랑
- 15_ 주방
- 16_ 헬스장/골프클리닉
- 17_ 골프클리닉
- 18_ 놀이방
- 19_ 옥상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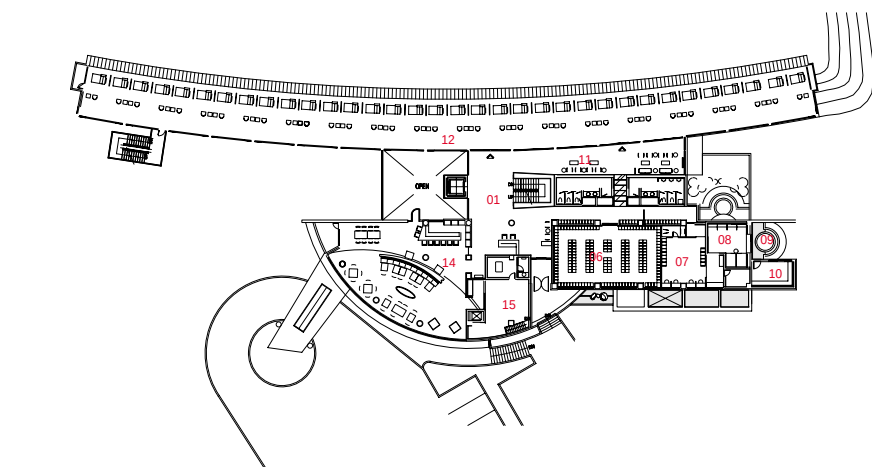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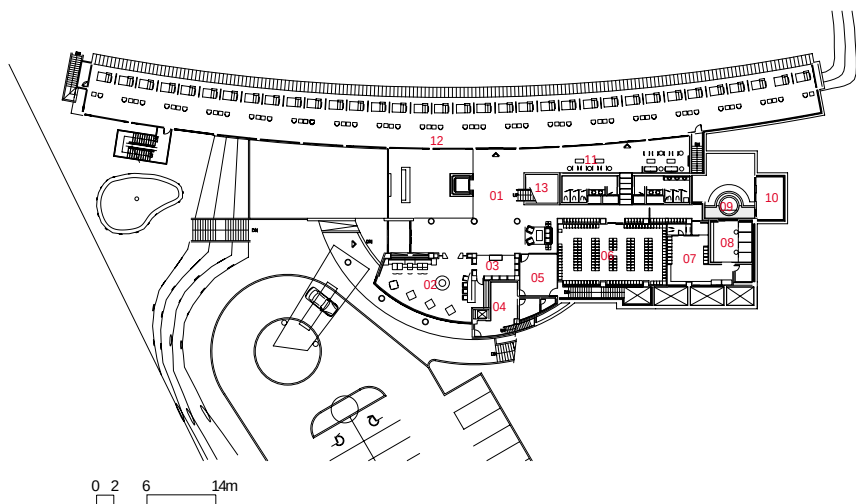
- 1_ 주차장에서 본 포치
- 2_ 옥외에서 바라본 전면을
- 3_ 3층 타석전경
- 4_ 로비에서 바라본 중앙계단과 실내벽천
- 5_ 레스토랑 내부
- 6_ open된 로비에서 바라본 실내전경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경주 토함정사 자연이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같이 비어두고 싶었던 집

Toham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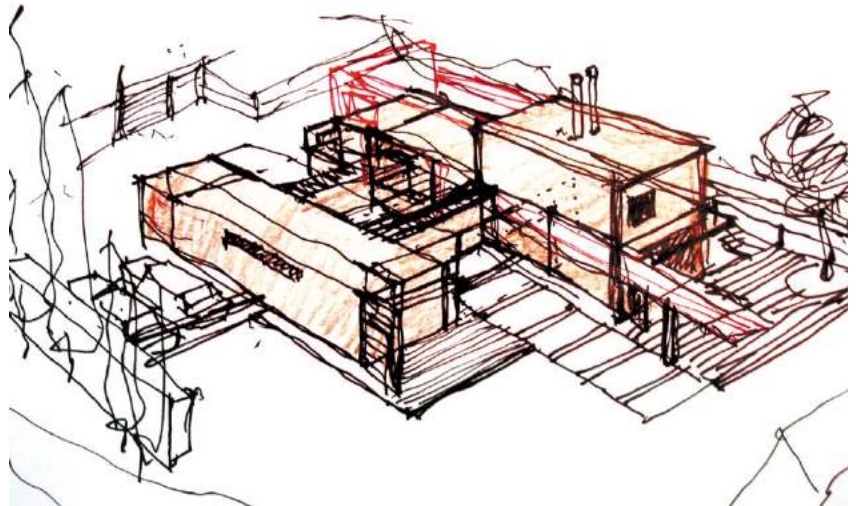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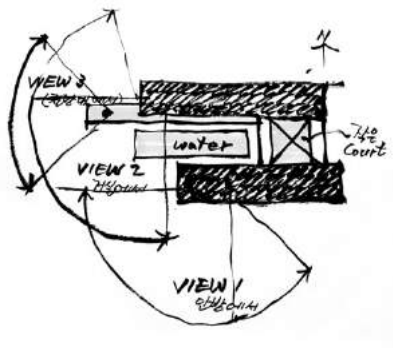
‘토함정사’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토함산의 땅과 공기와 자연을 느끼게 되었다. 불국사 석굴암 등 너무나도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토함산의 한 자락에 필자가 설계한 주택의 공간이 자리할 줄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냥 위대한 토함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땅의 공기와 공간체험을 할 권리란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어느 건축주로부터 경주 불국사 아래에 땅을 300평 가지고 주택을 짓겠다는 부름이 있었다. 가슴에 엄청난 무게를 느끼며, 이 땅을 방문하였다. 뒤쪽으로는 그 유명한 토함산을 배경으로 하여 앞쪽으로는 경주 남산이 막힘 없이 180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신이 만든 땅에 신이 준 부름이었다. 이럴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토함산의 부름에 겸손한 답장을 쓴다는 느낌으로 이

프로젝트는 계획되었다.

‘토함정사’는 전원주택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새로 들어설 주거와 주변자연에 관한 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단지에서는 단지 전체의 조망은 무척 좋아보여도 각각의 개별 주택에서의 조망은 앞집에 막히고 가려져서 나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 주택은 화려한(?) 자연이 남서쪽으로 180도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너무나 화려한 조망 때문에 이 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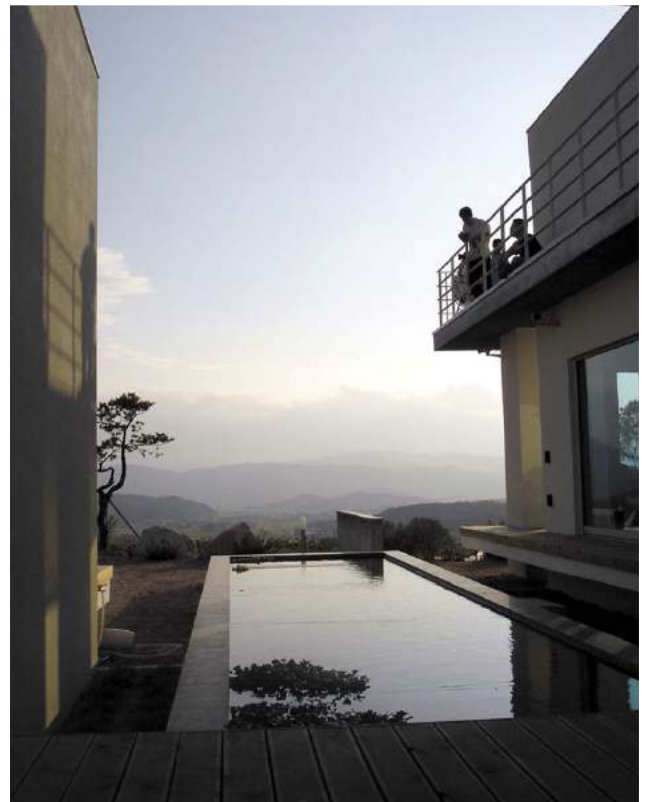


자연의 횡포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0도로 열린 조망을 가진 경사지에 더더구나 높은 축대로 인하여 경주 남산을 향해 사사철 시각적으로 아무 것도 가릴 것이 없다. 너무나 화려한 이자연에 대한 건축적 생각은 자연을 어떻게 한정짓느냐는 것이었다. 조망을 어떻게 끊어내고, 가두고, 끌어들이고, 어떤 초점에는 적극적으로 열면서 자연을 각각 다른 의미로 주거의 내부까지 관입시키는가가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커다란 조

망을 그대로 하나로 두는 것보다는 그 조망이 어떤 주거의 장치들을 통하여 몇 개의 주거 내부의 풍경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다. 한정 없이 열린 자연에 대하여 제한된 '풍경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면...; 하나의 자연에 대한 커다란 열림을 몇

개의 풍경으로 한정지어서 주거 내부에 침투되는 풍경으로서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를 위하여 몇 개의 장치들을 계획하였다. 서남향의 조망을 같은 비중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크게 안방이 있는 안채와 거실과 식당이 있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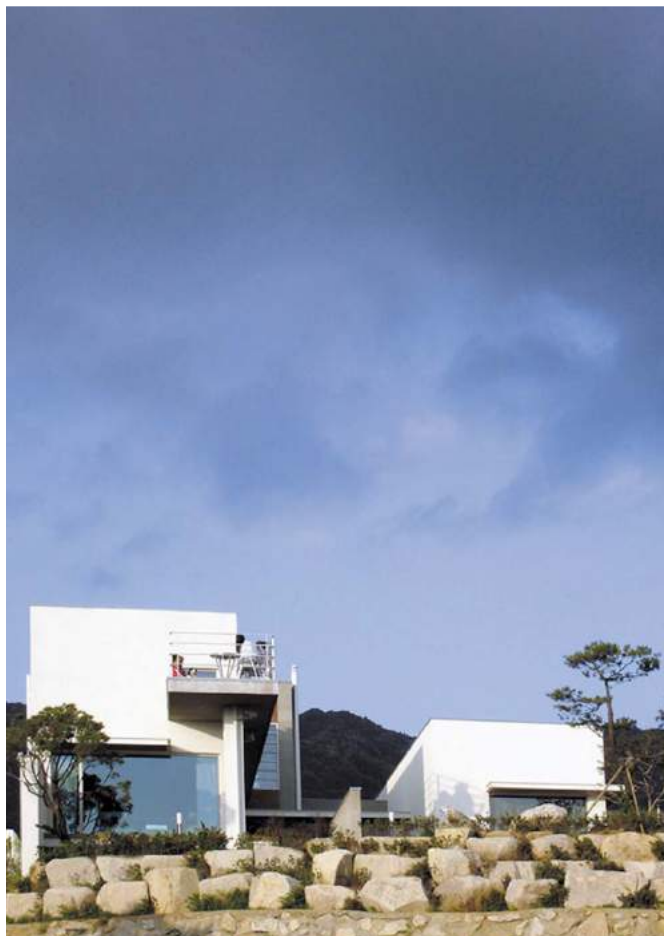
실체의 두 개의 채로 채 나눔을 하였다. 이 두 개의 거실과 안방에는 각각 서남향에 온통 열린 큰 창을 두어 꼭 같이 남산의 원경을 풍경으로 들어 오게 하였으며, 각각의 채들은 틈마루를 갖고 자연에 면하여 앉아있다. 그리고 두 개의 채를 잇는 사이에 4미터각의 작은 갇힌 중정을 만든다. 너무 펼쳐진 자연에 극히 휴먼스케일로 한정되어, 피부의 느낌에 닿는 공간을 마련하여 밤이면 석등에 불을 밝혀 이 집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두고 싶었다. 이 중정은 야생화와 자갈과 하늘로만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긴 틈마루를 두어 무한히 뻗어나가 있는 자연에 대한 조망을 끝없이 따라가게 하였다. 그 앞에 긴 사각형의 기하학적 연못을 두고 그 연못에 비친 하늘을 틈마루에서 관조하게 하여 하늘마저 이 집의 자연의 한 요소가 되게 땅으로 끌어내렸다. 이 연못에 조용히 연꽃

을 띄워본다. 반대로 이 집의 최고의 장소는 역시 전망대라고 이름붙인 거실위의 테라스이다. 거실 상부의 캐노피를 남산을 향하여 길게 뻗어나서 전망대라고 일컫는 장소를 만들어 내었다. 거실 앞이 아닌 거실 위의 이 테라스에 서면 정말 전망이 아무 막힘이 없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늘을 포함하여 360도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장소로 자연을 향한 이 집의 초점으로 만든 곳이다. 자연의 열림을 한정지우면서도 극대화시킨 장소, 여기에서 집주인 부부는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집은 다목적실로 쓰는 지하층을 제외하면 단지 단층집으로 계획되었다. 두 개의 채는 각각 높이를 달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거실채의 옥상 벽을 높게 하여 루프가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루프가든은 자연과 폐쇄적이면서 하늘하고만 접하고 있다. 흘러가는 구름만 보이게 하

고 싶었다. 열린 자연에 대해 또 하나 폐쇄적인 자연으로 만들어 대비시켜보고 싶었던 장소이다.

이 집을 통하여 몇 개의 자연으로 한정시키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소들을 찾아보았고, 이집 가족의 생활과 주위환경과의 관계를 시간적 추이를 갖고 상상해보면서 주거와 자연의 전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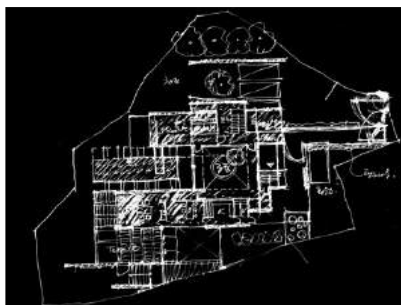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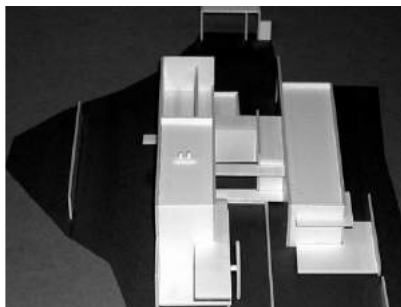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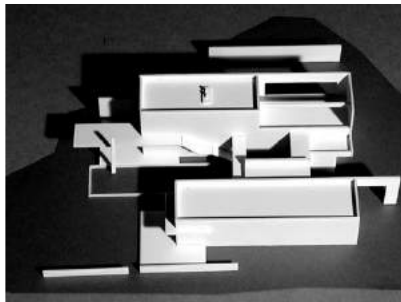
‘토함정사’의 인상은 단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이면서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가공도, 다른 문화권과 혼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도 없다. 외형으로 나타나는 볼륨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형태적으로도 특이한 것이 없다. 단지 두 개의 채 나눔을 통하여 텅 빈 공간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었다. 요소들을 보아도 크게 열린 창, 몇 개의 마당, 틈마루, 담 등의 습관적인 요소가 전부 그대로 남아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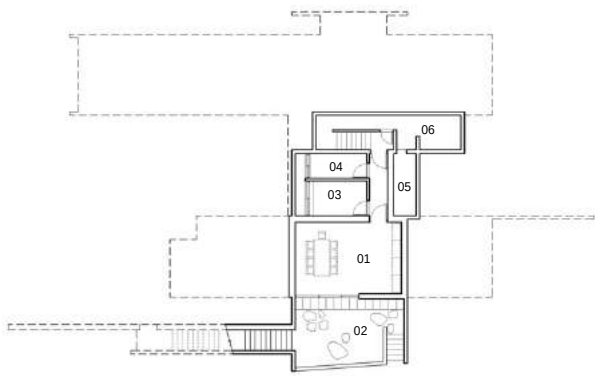


우리건축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소재의 선택방법, 사용방법도 정직하여서 바닥에는 마루, 벽과 천장에는 백색 벽지라고 하는 당연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외벽은 하얀 드라이비트의 흰 벽이며, 마당은 흙 마당일뿐이다. 거기에는 건축의 통념을 흔드는 어떤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도, 아크로바틱한 구조도 없으며, 벽이나 지붕이나 창이라고 하는 기본개념을 무의미화 시키려는 어떤 외피의 표현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인가 조금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 앞에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같이 비어두고 싶은 몇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외부적 공간이 서로 관입되어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일 뿐이다. 자연이 와 달고, 자연이 머물고, 자연을 향하여 끝없이 뻗어나가고, 자연이 가두어지는 이 비워둔 공간들이 소유주가 되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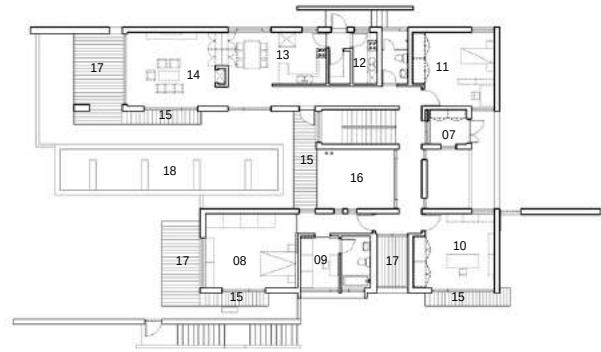
집 가족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담겨지면서 이 집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토함산의 부름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겸허한 답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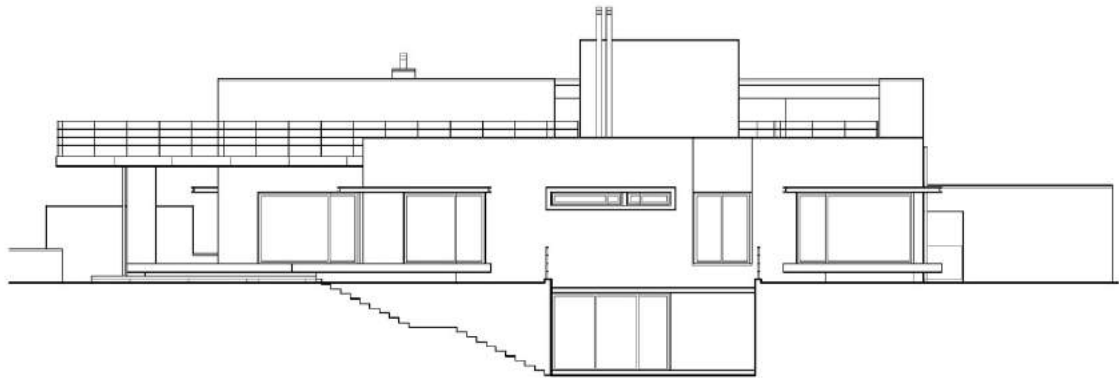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 |
|-----------|-----------|
| 01. 다목적실 | 10. 서재 |
| 02. 선근가든 | 11. 방 |
| 03. 창고 | 12. 다용도실 |
| 04. 보일러실 | 13. 주방/식당 |
| 05. PIT | 14. 거실 |
| 06. 기름탱크실 | 15. 뒷마루 |
| 07. 현관 | 16. 중정 |
| 08. 안방 | 17. 데크 |
| 09. 드레스룸 | 18. 연못 |

0 1 3 6m



남측면도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347-4-14
지역지구	보전녹지지역
대지면적	1,137.00㎡
건축면적	208.88㎡
연 면 적	250.74㎡
건 폐 율	18.37%
용 적 륜	17.3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층, 지상 1층
주차대수	2대
설계담당	박기원, 김경배, 배좌섭, 이장우, 김석철, 권오재
사 진	건축사무소 제공 (촬영 : 임영수)

문화의 교류, 한국에서의 외국건축 - 02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 01_ 연재를 시작하며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02_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2-1 양풍건축의 이입
 - 2-2 일제강점기 서양건축가의 활동
 - 2-3 압제자의 건축
- 03_ 한국의 근대건축과 외국건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 3-1 전후 복구기 원조경제와 외국건축
 - 3-2 경제개발과 외국건축
 - 3-3 타자를 위한 건축과 우리건축의 모습
 - 3-4 세계를 향한 눈
- 04- 단편(斷片)적 도시경관의 고고학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4-1 수직의 욕망
 - 4-2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
 - 4-3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oon In-suk

양풍건축의 이입

Introduction to Western Architecture in Korea¹⁾

지난 회의 필자 박길룡 교수의 글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건축에서 최근 100년 사이 벌어졌던 잡종강세의 법리를 뽑아 보기 위하여 이번 회에는 개항기 한국에 세워졌던 서양식 건축물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한 세기 전까지 쇄국정책을 펼쳐오다가 갇은 서양세력의 강요에 의해 개항과 개국을 단행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적으로 거친 과정이었다. 주변국의 공통적인 근대역사가 있지만 그 동안 우리는 오랜 쇄국 끝의 개항에 대하여 서구열강의 침투와 침략이 한 국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냉전시대에 해당하는 지난 반 세기동안 국제사회에서 섬 아닌 섬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지고 국가와 지역간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하여 합종연횡하면서 서로의 모든 자원을 교류하는 시대에 돌입하고서도 꽤 시간이 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 냉전시대에는 발걸음조차 옮기지 못했던 중국대륙과 러시아대륙을 자유로이 드나들으로써 가까운 과거 100년간의 중요한 역사적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세계의 구석구석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이 20년간 계속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구상의 각 지역과 여러모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역사에 관하여 문헌상의 학습에만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던 여건에서 벗어나, 실증·실물 자료들을 가지고 생생한 체험적 학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국제적 입지변화가 오늘날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국적 건축현상에 대하여 문화의 교류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밑바탕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쇄국의 기초가 일거에 무너진 것은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서방열강들과 연이어 맺게 되는 강화조약에 의해 나라 곳곳의 문을 것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개국하고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개국하게 되었다.

한꺼번에 동아시아 지역으로 밀려든 서방세계의 사람들은 본국을 떠나

서 바로 이 지역, 동아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인도, 인도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식민지 경영을 체험하고 다음의 신개척지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항해의 시대를 통하여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 지리학의 발달에 힘입어 다루기 쉽게 제작된 지도 등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었다. 서구세계 사람들은, 알프스 산맥 이북의 음산한 유럽기후와 달리 항상 쾌청하고 온화한 기후, 비옥한 곡창지대에 주목하였으며 풍부하고 신선한 과일과 곡물, 공업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식민지 개척 경쟁을 벌였다.

육로로는 유명한 비단길이나 대륙의 북부를 통하여 유럽과 동아시아가 연결될 수 있었다. 해상으로는 유럽에서 인도양을 지나 싱가포르 앞 바다인 말라카 해협을 통하거나 자카르타 앞바다인 순다해협을 지나 조선과 일본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러한 도정에는 일찍이 유럽 제국의 식민지였던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열도, 말레이 반도, 필리핀 열도 등을 거치게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옥한 토지에서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덜 문명화한 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발달된 여러 가지 산물을 선보이는 것에서 훨씬 더 나아가 그것들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하였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중국에서는 1842년 영국과 맺은 남경조약을 근거로 상해를 개항한 것을 필두로 1858년 천진조약,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한 개항 등이 이어졌다.

일본은 1854년 흑선을 몰고 온 미국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의 강요에 굴복하여 미일화친조약을 맺은 후 1858년 미국,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과 체결한 안정 5개 조약부터 개항의 역사가 시작된다. 요코하마, 나가사키, 하코다테를 개항하였다.

한국(조선)은 일본의 군함 운양호 사건에서 일본 측에 트집을 잡히기 시작하여 1876년 강화도에서 맺은 병자수호조약을 근거로 부산을 개항하면서 서부터 개항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서방세계를 향하여 개항하기 시작한 동아시아의 각국은 개항장에 조계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 것은 무엇보다도 자국민과 외국인을 철저히

1) 이 글은 인천시립박물관 발행 인천문화연구 창간호(2003. 12)에 게재된바 있는 줄고 "동아시아 개항장의 베란다 건축"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정리한 것입니다.

게 분리시키려는 것이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구역의 건물들은 외국인들에 의해 지어졌으며 건축유형별로 본다면 외교관계 건축, 종교건축과 그에 딸린 교육시설, 무역관계 건축, 외국인 주택, 군사관련시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개항초기의 이러한 건축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모방하여 건축하기 까지 이르렀다.

개항장에 조계가 설정되면서 가장 먼저 설치되는 것이 외교관련 시설이었다. 영사관 또는 공사관을 중심으로 이 시설들은 외국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 미비했던 개항 당시에 가끔은 호텔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그리고 조계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범죄를 해당국 영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심지어는 감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개항초기, 동아시아로 부임하는 외교관들은 우선 조계 내에 거주하던 현지인의 기존 주택 또는 관아건물을 빌어서 사용하다가 본국으로부터 자국민 왕래가 많아지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차츰 그들에게 익숙한 수법으로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즉, 서양식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초기에 세워진 건물들을 살펴보면 정식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주로 목구조로 된 방갈로 형식의 가건물이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그 이전까지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 남지나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두고 그 지방의 열대성 기후에 맞는 건물들을 지었던 체험이 그대로 동아시아에도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갈로 타입의 건축물은 외교공관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건축에서도 나타난다.

초창기에 이러한 건물을 사용하다가 동북아시아의 절기에는 추운 겨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단계의 건축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재료인 벽돌을 주요 재료로 하여 조적조 건축물을 지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한대지방의 건물처럼 완벽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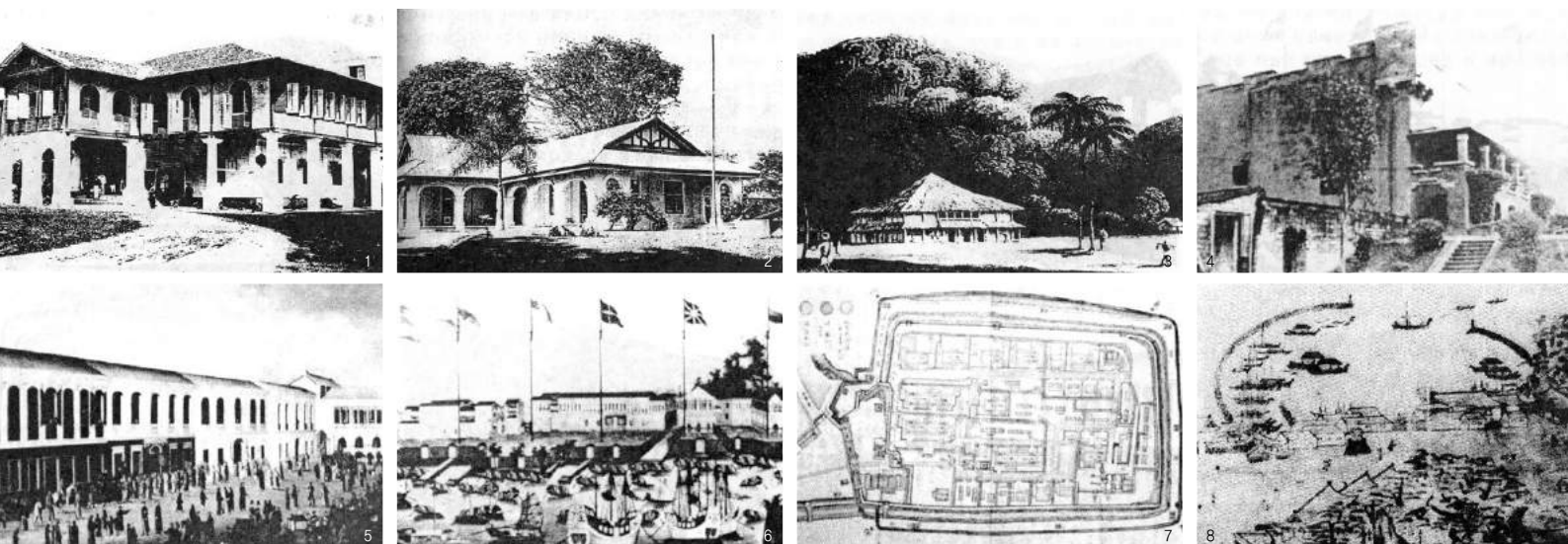
한용 건축이 아니라,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는 반드시 베란다를 가지는 이른바 콜로니얼 스타일의 일종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동남아 일대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유럽의 제국들이 남방의 식민지에서 그때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베란다를 설치한 것과 또 하나는 세계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던 미국도 역시 당시에 본국에서 많이 지어졌던 콜로니얼 스타일 건물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경로를 살펴볼 때 전자의 경로는 영국, 유럽대륙, 인도양, 인도차이나 반도, 남지나해, 동지나해를 거쳐 서쪽으로부터 온 것이고, 후자는 대서양, 아메리카 대륙, 태평양을 거쳐 동쪽으로부터 흘러 온 것이다. 서로 반대 방향의 전파경로가 각각 지구를 반 바퀴씩 돌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만나는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입초기의 서양식 건축물을 보면, 유럽인들이 세운 것이기는 해도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처음에는 현지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건축하였고 본국의 건축가가 식민지로 건너와서 그들의 기술로 본격적으로 그들의 건축사에 속하는 건축을 지었다.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세워진 서양식 건축물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열대 지역의 습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풍이 잘 되는 그릴 문을 사용하였다.
- 현지의 전통 재료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구미대륙 본토에서 사용하던 건축재료를 운반 또는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갑갑한 실내에서 나와 옥외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태양광선과 지열을 피하기 위하여 지붕의 처마를 길게 빼 놓고 그 아래 부분에 마루 널이나 돌로 바닥을 깔아 반옥외 공간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건축을 양식적인 면에서 보면 서양건축사의 신고전주의에 해

1_ Edinburgh House 2_ District Office 3_ DR. McKinnon's House 4_ San Domingo 성 5_ 광주 130관 6_ 장기출도 7_ 부산왜관



당하면서 식민지 양식(콜로니얼 스타일)인 것이 많았다.

아울러 개항이전 제한적으로 서구세계와 접촉이 있었던 동아시아의 항구들에 자국의 전통적인 건축과는 다른 이국적인 건축이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그 나라의 건축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타이완 탄수이에 있는 San Domingo성은 1629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찍이 아시아와 접촉을 가졌던 스페인인들이 아시아에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축조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건축언어와는 상관없이 붉은 벽돌, 출입구 부분 차양, 포대의 여장 부분 디자인 등 지중해 연안 나라인 스페인의 건축양식이 깊숙이 배어 있는 건축이다.

1757년 제한적으로 개항하여 교역을 펼쳤던 중국의 광저우에는 13이관(十三夷館)이 생겨 벽돌조 2층 베란다 건축물이 줄지어 세워졌다.

일본은 주지하는 대로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교역하면서 나가사키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1636년 그 앞바다에 테지마(出島)를 조성하여 여기에 서만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게 하고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였다. 이곳에 세워진 건물은 모두 일본식이었다.

조선에는 서양 국가를 향해 문을 열어 놓은 곳은 없었다. 부산에 왜관을 설치하여 임진왜란 후 일본인들을 내륙으로 들이지 않았고 일본사신 역할을 하였던 대마도 번주의 상인들을 이 왜관에 머물게 하였다. 건물은 목조였다.

개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처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건축 행위가 아니라 제한적 창구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소규모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드디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건축은 당분간 동남아시아에서 건축하였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들이 지어지게 되었다. 개항초기에는 현지의 재료를 사용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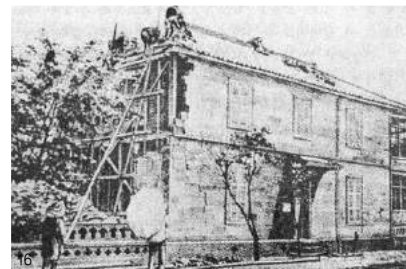
점차 본국에서 건축가들이 건너와 그들의 기술로 본격적인 건축을 지은 것은 동남아시아와 다를 바 없었다.

타이완 남쪽 도시인 타이난에 세워진 영상덕기양행(英商德記洋行)은 단층 건물로, 무역관련 회사 사옥 겸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모양의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고 건물 주위에 아치로 연이어 싸여 있는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다. 습한 이 지역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릴 덧문을 창마다 설치하였고 두 건물의 이음 부분에 현관 포치가 있다. 붉은 벽돌조에 겹벽을 회칠하여 재료를 감추고 있다.

단수이 영국영사관은 동아시아에 세워진 영국영사관 건물 중에서 규모가 크고 완성도가 높은 2층 건물인데 붉은 조적조에 치장 쌓기를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층과 2층의 4면 모두에 아케이드가 감싸고 있는 베란다가 있는데 그 폭도 넓어 휴식과 환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가 놓여 있을 정도이다. 건물 주변에 잘 가꾸어져 있는 정원과 언덕 밑의 풍광을 바라보며 따스한 기후의 반옥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장치이다.

중국 천타오 독일 총독부 청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가장 늦게 발을 들여 놓은 독일이 중국의 천타오 지역에서 발생한 독일인 피살사건의 조사와 사건처리를 빌미로 조차지를 얻고 행정까지 보았던 곳이다. 이 건물 역시 1, 2층 모두 바닷가 쪽을 향하여 베란다가 가지고 있다. 독일식 지붕에 좌우대칭, 르네상스 양식에 기초한 둔중한 외관, 그렇지만 정면의 개방적인 베란다는 당시 유럽국가의 식민지에서 줄곧 사용하였던 콜로니얼 스타일의 전형이다. 타이페이에 세워지는 일본의 대만 총독부 건물과 서울의 조선총독부도 이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모두 베란단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을 보면 점령자, 지배자들이 원주민들에게 군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건물을 높은 위치에 위용 있게 지으면서

9_ 영상덕기양행 10_ 담수청도 독일 총독부 청사 11_ 청도 독일 총독부 청사 12_ 홍콩 영국관 제3군 사령부 13_ Santa Casa de Misericordia 14_ 그라버 저택 15_ 미국영사관 16_ 개항장



전면에 베란다가 붙어서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원주민들이 이 건물과 이 안의 사람들을 쳐다(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법칙처럼 통용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홍콩에 세워진 영국군 제3군 사령부 건물은 전형적인 남방계열의 오피스 건축이다. 네면 모두에 베란다를 설치하여 넓은 폭의 복도 겸 테라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2층 추녀 밑에는 햇빛 차단용 그릴을 달아 놓고 있다.

포르투갈에 의해 지배, 통치 받던 마카오에는 역시 포르투갈 건축의 유전자가 배어 있는 건축물이 많다. Snta Casa Misericordia(仁慈堂)는 마카오 시내 중심광장을 향하고 있는 정면 1, 2층에 모두 베란다를 두어 뜨거운 일사로부터 그늘을 마련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광장에서 이 건물을 바라 볼 때 베란다에 연이어 붙어 있는 아케이드로 인해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이 건물의 깊이감과 느낌을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나 본 연재의 다다음 회에서 일본에 관하여 자세히 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한국에서는 1876년에 개항한 후 조계지역을 중심으로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베란다 타입의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다.

1884년 인천에 세워진 첫 번째 영국 영사관 건물을 보면 목조 바라크 건축으로 동남아시아 식민지 경영의 체함이 풍부한 영국이 또 다른 진출지였던 인천에 상륙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을 해석하여 당시까지 지어왔던 방갈로 타입의 건축을 조선의 항구에 또한 채 지은 것이었다. 이 건물은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와는 다른 한국의 엄동설한을 경험하고 나서 훗날 철거되고 이 자리에 방한용 건축물이 다시 세워졌다.

이 건물 역시 정면 전체에 베란다가 붙어 있다. 후에 지은 건물에도 베란다가 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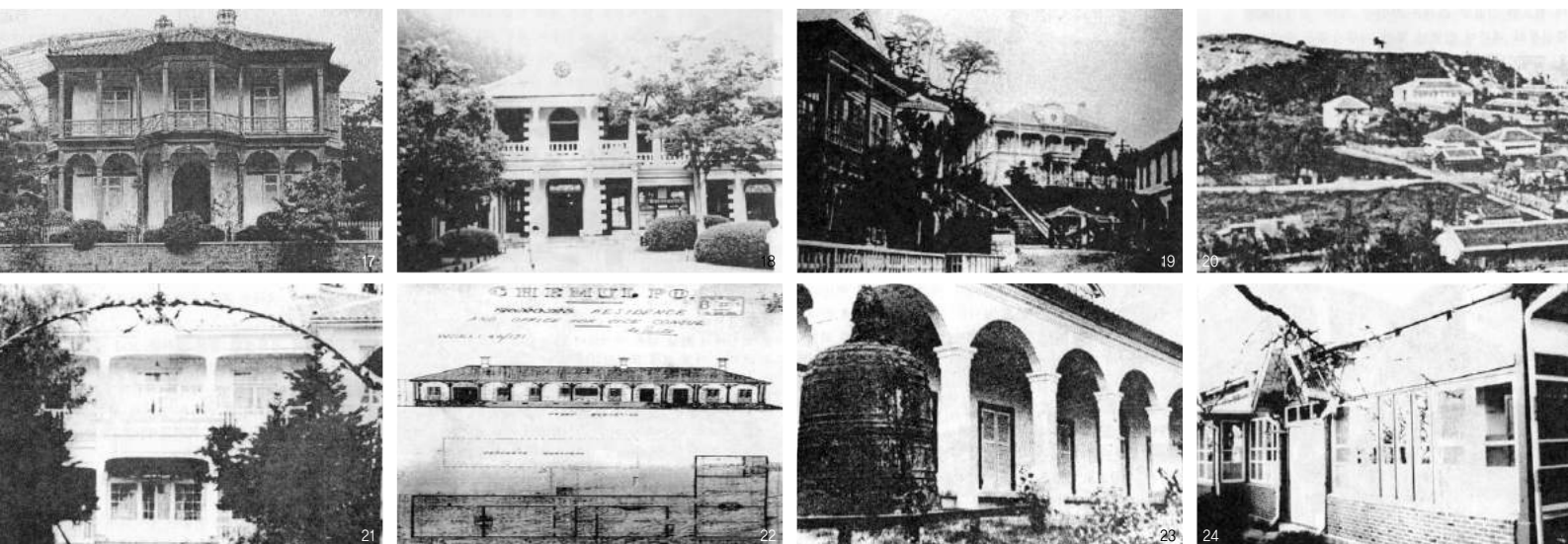
인천 세창양행 사택 건물은 무역회사 직원들을 위한 사택이었는데 인천의 만국공원 언덕에서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반옥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여기에도 역시 아케이드와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대만의 담수, 대남 등에 세워진 영국영사관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건축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의 기술수준과 경향이 비슷했음을 짐작케 한다. 인천의 슈르바움 TL 저택은 독일인 슈르바움 씨가 세운 저택인데 별다른 기교 없이 순수하게 지은 건물이다. 여기에는 역시 베란다가 외부 복도처럼 붙어 있다. 사진에서 보이는 외벽 창은 추위에 견디기 위하여 훗날 덧붙인 것이다. 이로 인해 베란다는 실내의 갯목도가 되었다.

인천의 개항장 건축물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조계에 세워졌던 중국식 민가들이다. 인천의 중구 선린동 일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이 건물들은 중국의 남부 해안지방의 개항장과 동남아시아의 화교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상복합형 집합주택이다. 한 가구의 기본구조는 3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래층은 상점으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도로에 면한 폭이 좁고 안쪽으로 깊이가 긴 이런 집합주택은 동남아시아의 화교촌에서 원주민한테 당할 수 있는 공격과 절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유형의 집합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건물들을 폐쇄적인 인상을 풍기면서도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채광과 환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 건물들도 역시 도로 쪽 면에 베란다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의 개항장에 세워진 일신여학교 건물은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가 지은 것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쪽에 외부계단과 베란다를 두고 있다. 외부에 노출된 기둥의 크기와 창 주변의 재료 사용 등에서 미숙함으로 미루어 보아 건축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고향에서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있는 선교사 그룹에서 관여하여 지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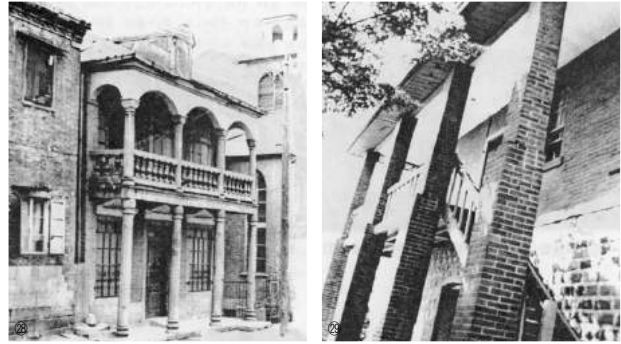
개항장에 건립된 베란다 건축은 내륙으로 옮겨가면서 새로 세워지는 건

17_ J(2). K. Hassam 저택 18_ 삼충총사 19_ 부산 일본 영사관 20_ 원산 일본 조계지 21_ 인천 일본 영사관 22_ 인천 영국 영사관 23_ 인천 세창양행 사택 24_ 슈르바움 저택



물의 양식과 공간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1900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한양절충식 점포주택이다. 개항 이전까지 조선에는 일반적으로 단층집 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주택과 가게가 한 집에 섞여 있기보다는 주택과 상점은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항장의 2층 베란다 건축과 상업시설을 견학한 도편수들이 새로운 양식의 건축을 시도하였고, 사회적인 변화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1층은 주로 점포이고 2층은 살림집인데 2층에는 베란다가 붙어 있다. 베란다라고 하지만 그 깊이는 알아서 빨래를 널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개항장의 서양식 건물에서 베란다는 보기는 하였으나 그 근원을 알지는 못하고 외관의 한 요소로만 인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본 개항장의 베란다 건축은 제국주의 시기의 구미국가들이 동남아시아 식민지에서 시행한 바 있는 콜로니얼 양식을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초기에 아무런 가감 없이 갖고 들어왔던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건축가(당 시로서는 도편수) 들은 이러한 건물이 첨단인 것이라고 여겨서 열심히 학습하고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웬만한 건물에는 베란다 또는 테라스, 발코니라는 요소가 주거 건축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반옥의 공간인 베란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름 한 철에 잠시 유용한 것이었지 추운 겨울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 구미인들이 식민지와 신개척지의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통상적인 관념으로만 접근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베란다는 현재도 이 땅에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아파트 건축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처음에는 고층 세대에게 하늘에 가까운 외부공간을 마련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외기를 마실 수 있고 환기할 수 있는 옥외공간을 설치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베란�에 유리 덧문을 씌워 창고공간이 되거나 아니면 외벽을 허물어, 방의 면적을 늘리는 수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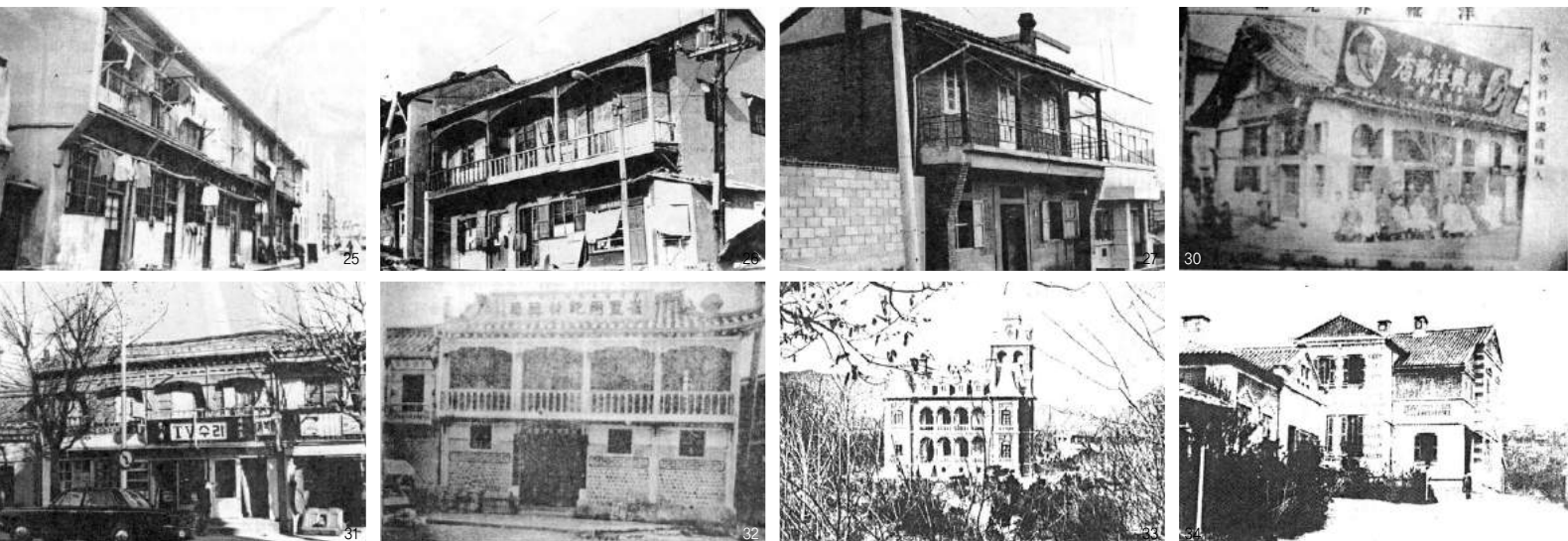


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베란다라는 공간이 첨단적인 건축요소인 것처럼 이 지역에 소개된 지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그 개념과 정의가 뚜렷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활용법도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

세월이 지나서 개항장뿐 아니라 내륙에도 외교공관과 상업관련 건물들이 세워졌다. 서울에 주로 세워졌는데 영국, 러시아, 프랑스의 영사관이 당시의 정궁으로 사용되던 경운궁(덕수궁) 주변에 위치하였고, 독일, 벨기에는 남산에 가까운 곳에 자리하였다. 이 건물들 역시 1, 2층에 모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 콜로니얼 양식이였다. 여기에서 또 하나 공통적인 특징을 찾으면, 르네상스 양식이거나 고전주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자국의 건축적 어휘를 인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건물을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벽돌을 건축 구조재료로 사용한 첫 사례가 되었다.

개항 후, 주변에서 이국인들이 낯선 건물을 건립하는 데에 자극받은 조선의 건축기술자들은 당시까지 익숙해져 있던 건축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도들을 실행하게 된다. 우선 1889년 12월에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신사유람단의 일본파견”(1881년 1월~1881년 7월), “영선사와 유학생 일행의 청국파견”(1881년 7월~1882년 11월) 등을 시행함으로써 조선

25, 26, 27, 28_ 중국 조계의 집합주택 29_ 부산 일신 여학교 30, 31, 32_ 한양절충식 점포주택 33_ 서울 프랑스 영사관 34_ 서울 독일 영사관



인 스스로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조선인 스스로 새로운 건축문화를 받아들이고 건립한 건축물들 중에는 서울 삼청동에 지금도 한 채가 남아 있는 기기국 번사창 건물이다. 1883년 5월, 서양식 무기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채의 벽돌조 건물을 만들었으나 당시의 여건이 허락지 않아 무기 수리창으로 밖에는 활용하지 못 했지만 순수한 벽돌 조적조, 지붕의 삼각형 2중 트러스 등은 한국 근대건축 기술사와 재료사에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사료이다.

조선조 말기와 대한제국을 통하여 정궁으로 사용되었던 경운궁에도 서양식 전각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정관헌, 돈덕전, 구성헌, 중명전, 석조전이 차례로 들어섰다. 여기에도 역시 베란다가 설치된 2중 건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오늘날에도 현존하고 있는 석조전의 경우에는 고전주의, 콜로니얼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땅의 궁궐에 수 백년 동안 한옥으로만 건물을 만들어 왔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서양식으로 전각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수용이 정점에 달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민간의 기저부 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토양이 마련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민간분야에서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립문의 건립이다. 독립문 건립의 발의자인 서재필 박사에 의하면 파리의 개선문을 본보기로 하여 규모를 축소하였다고 한다. 설계는 러시아인 사비틴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나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시공은 그간 서양인의 건축현장 경험에 있는 심의석이 담당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역사상 오랜 연결 사슬이었던 중국으로부터 그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의 표현인 독립문의 모양이 서양의 오래된 심볼의 대표적 유형인 개선문에서 따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중국으로부터 홀로 서기를 하면서 방향타로 삼은 것이 서양이라는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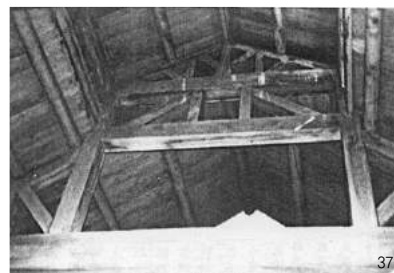
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궁궐로부터 민간의 골목길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모양의 건축물이 줄지어 세워지면서 산하의 풍광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어찌 보면 위에서 언급한 한양절충식 점포주택들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들이 개국을 전후하여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적응의 단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면 한국의 건축문화와 도시형상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어서 닥치는 국권찬탈의 국면에 기인하는 거센 외래문화의 유입과 한국의 고유함을 제거하려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러한 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요즘, TV에서 1945년 광복 후 대한제국의 황실이 재건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것을 가정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역사에는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조금만 더 든든하게 대지에 박혀 있었더라면 외래의 것이 밀려든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일제에게 강점도 당하지 않고, 한국전쟁도 겪지 않고 우리가 자가 발전하여 우리의 길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운전해 갈 수 있었다면 잡종 강세의 변화 추이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까? 한 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의 좌표를 알아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圖



35_ 서울 벨기에 영사관 36_ 기기국 번사창 37_ 지붕트러스 38_ 정관헌 39_ 돈덕전 40_ 구성헌 41_ 석조전과 돈덕전 42_ 독립문 43_ 드라마 궁의 한 장면 - MBC홈페이지에서



설계경기 | Competition

중계2동 복합청사

Junggye2-dong Complex Office

노원구청은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 및 관리측면과 기능의 합리성 및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자 현상 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아리건축사사무소 + 나우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진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의 안을, 가장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아리건축사사무소(윤종수) + 나우건축사사무소(나경록)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507-1,2호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및 사회 복지시설부지
대지면적 999.90㎡
건축면적 2,310.07㎡
연 면 적 597.98㎡
건 폐 율 59.80%
용 적 륜 153.0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고밀도목재패널, 제치장콘크리트, 알루미늄복합패널, THK16컬러복층유리
설비개요 패널히팅, GHP냉난방, 스프링클러, 옥 내소화전
설 계 팀 아리건축 : 심운양, 송동식
 나우건축 : 천재갑
 대진대학교 : 김선주

근린공원 그리고 동청사가 있는 풍경

어려운 건축경기 속에 일 수주라는 이유로 이 구청, 지구청 홈페이지를 뒤지며 현상 설계건을 찾는 것이 어느덧 일과 처럼 되어 버렸다. 노원구청의 중계2동복합청사 현상 공지를 보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등록부터 하고 본다. 그리고 찾아 가본 현장... 아~ !! 서울시내에 이렇게 좋은 주변 환경을 가진 동청사가 있었는가?

삼면으로 둘러싸인 근린공원에 20미터의 넓은 전면도로..., 건축사라면 누구나 설계 욕심을 낼 그런 땅이었다.

별다른 법적 제한 여건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위치, 공원이 뒷배경 처럼 되어버린 환경, 이러한 땅에 맘껏 설계를 한다는 것은 몇 년 만에 찾아 올 수 있는 행운이라.

우리 전통건축 개념에 차경(借景)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



중계2동 복합청사 Junggye2-dong Complex Office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진터(정일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안우성)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507-2번지의 1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공공업무시설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999.90㎡
건축면적 586.42㎡
연면적 2,268.94㎡
건폐율 58.65%
용적률 152.7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내후성강판, 적삼득패널, 애창유리, 노출콘크리트,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설계팀 신찬호, 양동석, 나효신, 박성용, 배성용, 임재은, 김주연

대지현황분석

신축공사 대지는 재정비된 도시의 가로변에 입지한 평탄한 대지이며, 전면도로에서 근린공원으로의 진입동선을 유도하는 완충지역의 중심공간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체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주변시설

전면에 20m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대지 북측 및 서측으로는 고층 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남측으로는 중계 근린공원 및 노원구민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동 1로가 지나가며 근린공원 및 시립중계 도서관이 있다.

배치흐름

주변 고층아파트 밀집군과 트인 공간인 공원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중계2동 청사 이미지를 확대한다.

평면개념

- 채육관 - 지하 1층
 - 직원복지를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
 - 주차공간과 주코아의 명쾌한 공간분리
 - 장애인주차 이동 동선 최소화
 - 코아를 중심으로한 각실의 쾌적성 확보
- 어린이집 - 지상 1층
 - 어린이집과 동청사의 영역과 출입 동선분리
 - 동사무소와 동대의 출입동선 분리
 - 근린공원으로의 연계된 진입동선 확보
 - 근린공원과 연계된 전면 휴게공간 확보
 - 최대한의 어린이 보육시설과 놀이공간 남향 배치 확보
 - 어린이집 옥외 놀이터와 유하실간의 완충공간 (데크)설치
- 행정관 - 지상 2층
 - 편리하고 Open된 넓은 민원실 확보
 - 중앙 홀 배치로 인한 각실의 편리한 출입



- 동사무소 직원들의 별도 휴게공간 확보
- 다양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위한 주민 사랑방 설치
- 문화·복지- 지상 3층
 - 주민 자치 시설과 동대 영역
 - 전면부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 확보
 - 이용빈도가 높은 마을문고를 통과 가까운 거리에 확보
 - 야간호련 별도의 시간대가 필요한 동대의 동선 분리 및 공간확보
 - 주민들의 편의와 다양한 행사를 위한 다목적실 설치
- 이벤트 - 옥탑 1층 및 지붕층
 - 근린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옥상 주민 휴게공간 확보
 - 공간과 연계된 옥상조경설치로 공원의 연속성부여
 - 다양한 옥외 행사를 위한 옥상 소공연장 설치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중계2동 복합청사 Junggye2-dong Complex Office

가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이영복)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507-1, 2호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의청사 및 사회복
 지시설부지
용 도 업무시설, 교육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999.90㎡
건축면적 587.00㎡
연 면 적 2,230.54㎡
건 폐 율 58.71%
용 적 륜 146.58%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화강석, 적삼목사이딩, THK24 투명복층유리
설 계 팀 이동승, 이민경, 박연희, 최금주

중계근린공원의 진입부에 자리잡은 대지는 주변의 밀집된 주거군에서의 녹지공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 대지에 계획되는 복합청사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는 공공건축물로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다. 공원진입(Urban Gate)과 편의성제공을 확보하는 공공청사를 개념으로 출발한다.

동선개념

기본적으로 보행동선을 강한 축으로 끌어들여 중계공원으로 연결시키며 같은 축에서 연결되는 수직동선을 두개의 메인메스 사이에 두어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 사이에 배치하여 동선의 간소화와 공용공간을 최소화시킨다. 서브코어를 메인코어와 멀게 배치함으로써 피난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동선에 완전히 동선이 분리되어야 동대본부의 주진입으로 사용하게끔 계획하였다. 차량의 집입은 계획대지에 진행방향에 가장 가까운곳에서

소화함으로서 보행동선과 혼제를 방지한다.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주출입구는 별도 분리시켜 보호, 통제가 가능하게 계획하였으며, 2층 데크의 수공간과의 연계는 공간의 성격이 유사한 유화실에서 직접 연계토록 하였다.

평면계획

유사한 기능을 각각의 매스에 배치시키고 메인코어에서의 연결되는 데크는 남향에 배치하여 공원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하였으며, 모든 주요실들의 남향으로 계획하여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게 하였다. 주안점은 1층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평면계획이다. 각 연령과 보호유아의 인원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0세~1세 유아실을 교사와 부모의 출입이 용이한 부분에 계획하며 활동성이 큰 4세 아동교실을 유화실에 가장 근접하게 위치시켰다. 오감을 자극시키는 수공간을 별도 계획하여 교육공간을 풍부하게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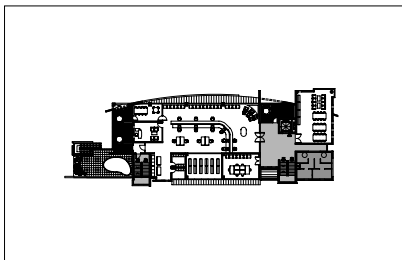
입면계획

계획건축물은 전면도로에 접한 블록내에서나 중계
공원에서 바라보이는 단일한 건축물이며 주변 고
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축물이므로 4면의
정면성을 갖추어야하며 Roof Plan 또한 하나의 입
면적 요소를 갖추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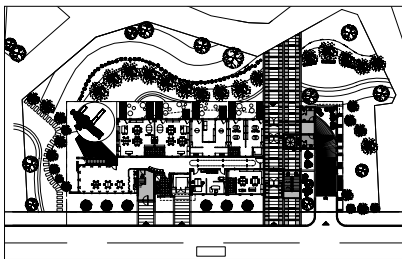
전면도로에서 바라보이는 정면은 북향에서 분리한
채광이 용이하도록 전면 유리 커튼월을 계획하였
으며, 근린공원으로 향하는 배면은 일사량을 조절
하는 수평루버를 길게 계획하고 원호로 흘러가는
가벽을 따라 비례적으로 계획된 부분 가벽을 이용
하여 조형성으로 강조하여 유동적인 입면을 계획
하였다. 측면까지 이어진 가벽은 좌우측에서 조형
요소로 작용된다. 옥상에 계획된 옥상정원은 공원
에서 흘러들어오는 녹지의 공간을 이어주며 입체
적인 캐노피와 기둥을 역동적인 입면요소로 사용
하였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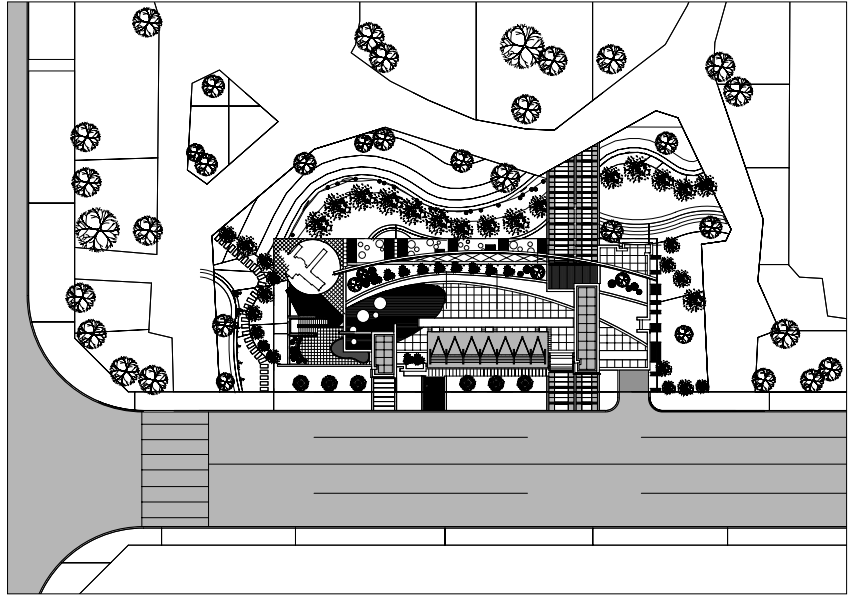
협소한 대지내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휴게공
간을 층별 데크계획으로 충분히 소화시켰으며, 필
로토로 띄워진 주민편의시설 매스 하부에 지하 주
차장으로 연결되는 램프와 중계근린공원에 제공되
는 화장실을 계획하였다. 메인메스와 별도 계획된
유아 유희실 매스 상부에 유아 스파시설을 계획하
여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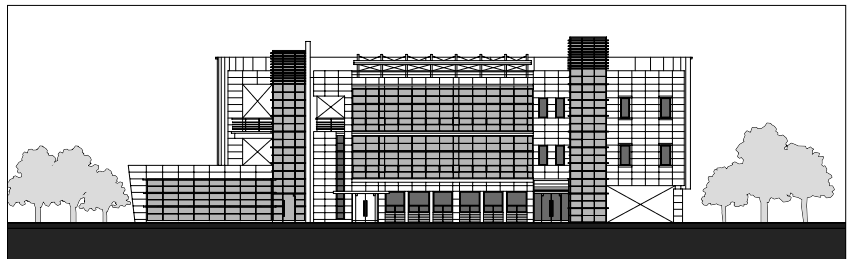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

154kV 송도#2 변전소

154kV Songdo #2 Substation

인천광역시에는 산업단지 및 신도시지역의 지속적 인 개발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하 밀집지역에 적합한 154kV 옥내변전소 건물 표준형 개발 및 설계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21C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건설과 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의 특성을 접목시켜 친환경적인 변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주)에이·포스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 '건축사사무소 도우 건축'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 에이·포스트 종합건축사사무소
(박대원)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약 7,700.00㎡
건축면적 1,867.50㎡
연면적 4,870.73㎡
건폐율 24.25%
용적률 41.12%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팀 박동윤, 김성욱, 이현아

변전소를 생각하면 유해전자파와 변전설비가 가동할 때 나는 시끄러운 소음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변전소는 위험·유해시설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우리 주변을 겹돌고 있는 건축물...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의 몇분지 1 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변전소는 여전히 배척의 대상이다.

혹시 변전소에 대한 생경함이 변전소를 더욱 유해시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변전소라는 건물의 특성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변전소의 형태가 획일화 되고 주변 경관과 소통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은 아닐까?

변전소가 주변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우리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실내가 일반인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벤트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이 우리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송도변전소의 경관조건을 바탕으로 주변과의 관계맺기와 내어주기를 통해 기존 변전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주변과 대지와의 관계 모색을 바탕으로 변전소와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어찌면 한낱 건축사의 오만함으로 치부될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이 무모한 도전이었을 지라도 이를 통해 주변요소에 지나지 않았던 변전소를 도시의 조형적 요소로 끌어들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관계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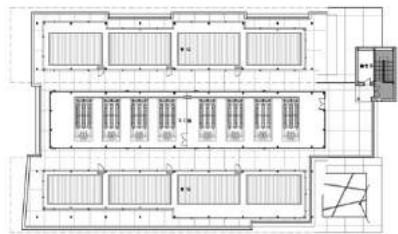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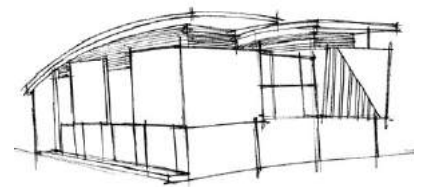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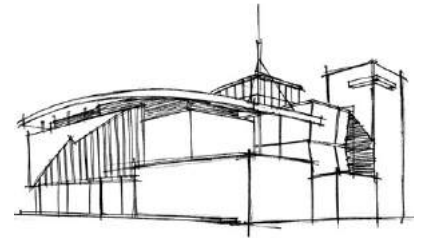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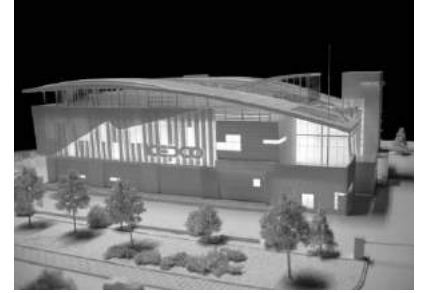
하늘과 바다로 시원스럽게 트여 있는 경관과 대지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은 송도변전소의 가장 큰 매력이자 고민거리였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쉬운 장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우리의 고민거리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변전소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전소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계획과 공간의 기능적 배치와 더불어 주변경관과의 관계맺기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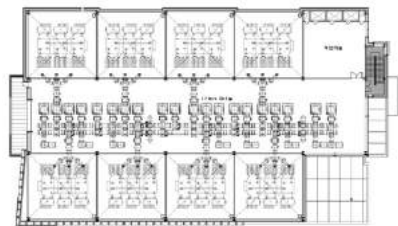
내어주기

변전소 건물 내부는 변전설비를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건물의 외벽은 변전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외부공간에도 속해 있는 중립적인 영역이 된다.

외부와 접해있는 입면에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것은 프리즘이다.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이벤트는 두가지였다. 첫번째는 시각적 이벤트이고, 두번째는 감춰져 있는 속성에 의 접근이라는 약간의 추상적인 이벤트이다.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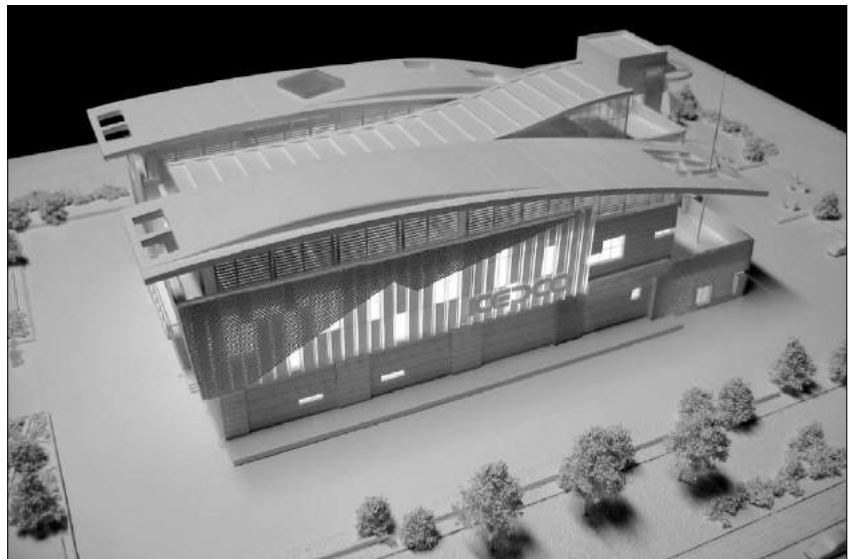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154kV 송도#2 변전소

154kV Songdo #2 Substation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노승태)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7,700㎡

건축면적 1,887.17㎡

연 면 적 4,870.50㎡

건 폐 율 24.51%

용 적 률 41.52%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 계 팀 노승태, 류창우, 박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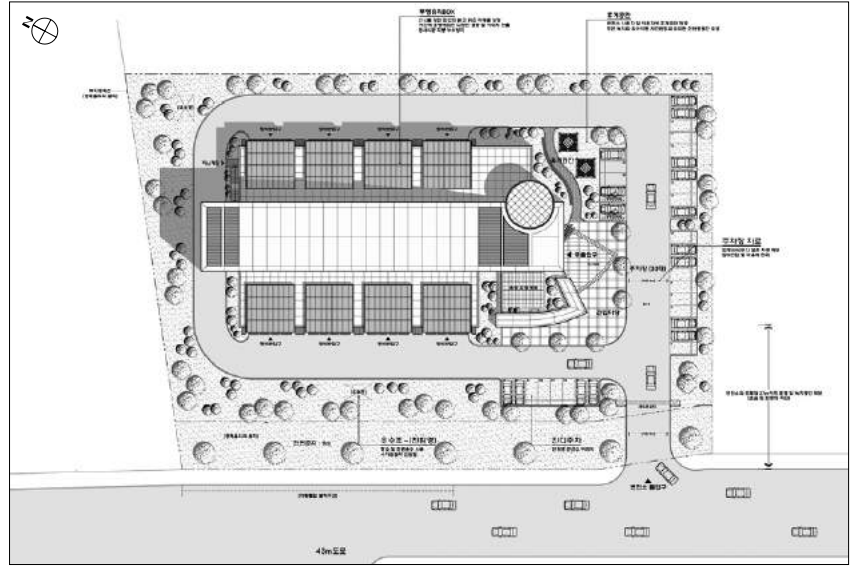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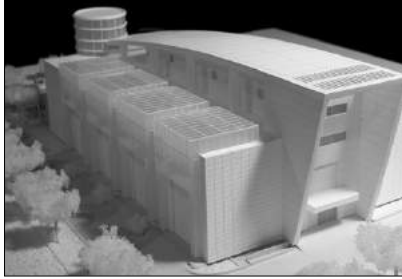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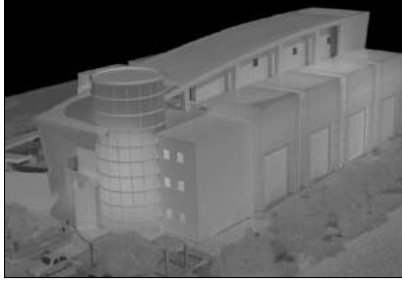
계획 목적

- 친환경적인 변전시설 구축
 - 현재 추세인 옥내형 GIS변전소 계획
 - 조경 및 전면공지 조성으로 변압기 소음과 진동을 차단
- 자치단체의 남비현상에 대응할 변전소
 - 획일적 변전소 건물에서 벗어난 세련된 디자인
 -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적 변전소
- 지역적 특성과 주변환경의 수용
 - 공원 및 수로 유수지와 연계된 친환경 형태 및 공간구성
- 국제업무단지내의 랜드마크적 이미지 부여
 - 모든이를 포용하는 건축물 제안
- 경량 칸막이를 통한 지원시설의 유연성부여
 - 가변성 있는 공간을 통한 공간의 효율성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옥외공간을 휴식과 녹지공간으로 계획
 - 직원 상주하는 실은 외기에 접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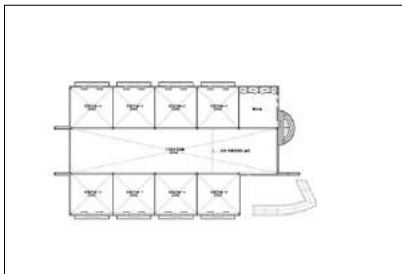
계획의 방향

- 자연 환경을 이용한 계획
 - 송전선로의 지중매립
 - 주변의 자연 환경을 건물 내부공간으로 유입
- 미래지향적 변전소
 - 원거리에서 변전소를 감시, 제어하는 원방 감시제어 시스템(SCADA)
 - 변전소의 옥내화, 무인화 등 설비 현대화
 - 공급의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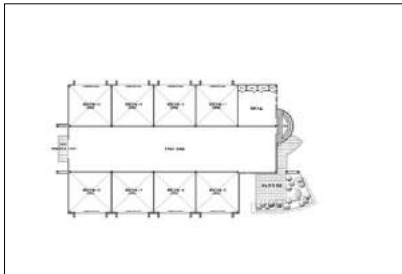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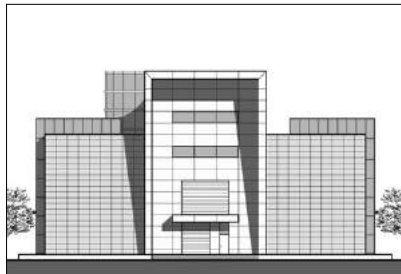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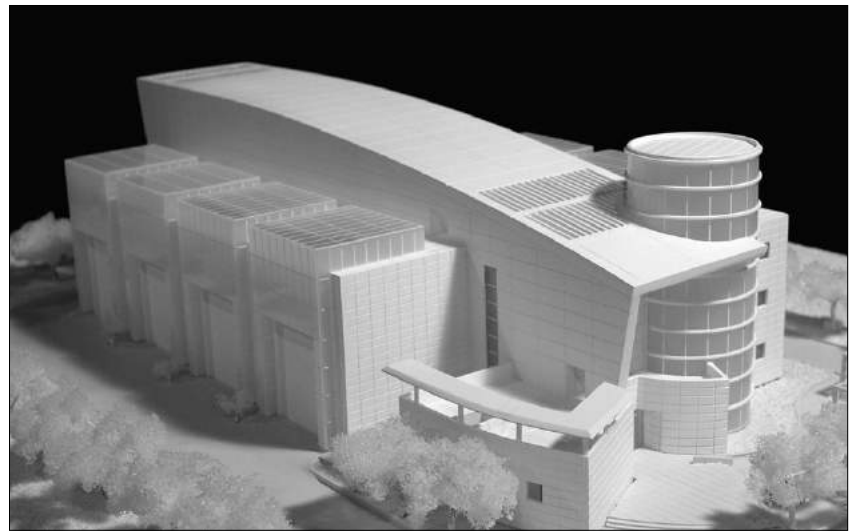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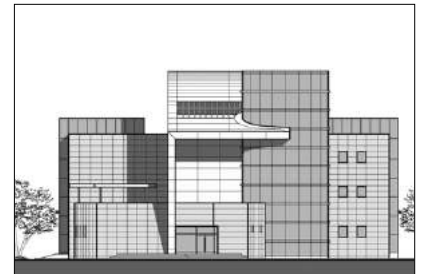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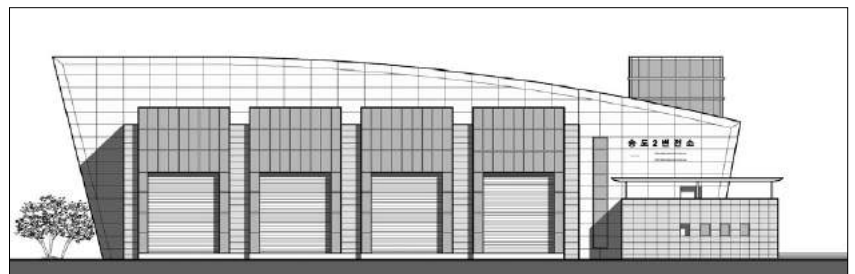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남측입면도



서측입면도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탄키) Safety Experience Theme Park

강원도는 석탄산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원산악형 관광레저 도시로서의 태백시 위상정립을 위해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현상설계경기(탄키)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주)공간건축사사무소 + 간삼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GS건설 컨소시엄'의 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공간건축사사무소(이상림 · 오성훈)
+ 간삼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오동희)
+ GS건설 컨소시엄

대지위치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	유원지
대지면적	954,000㎡
건축면적	12,968,24㎡
연면적	25,150,64㎡
건폐율	1.48%
용적률	2.19%
주차대수	총 1,265대(장애인포함)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규모	안전체험관 : 지하 1층, 지상 3층 안전학교 : 지하 1층, 지상 4층 곤돌라 승강장 : 지상 2층
설계팀	공간: 이현중, 김광수, 한소현, 양희진, 김경선, 이동건, 이상희, 이재호A, 조광재, 이지혜 간삼: 윤흥노, 홍석기, 차봉근, 김성훈, 김지영, 박정연, 원종욱, 고영철, 정주원

수도권에서 3시간여 떨어진 대지가 갖고 있는 대지의 물리적 한계와 자연요소의 풍부함 그리고 대지내 각 지구간의 물리적인 단절은 중앙지구를 매개로 한 다양한 테마코스의 개발과 곤돌라 등의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장성의 와우스트리트, 철암의 와우플라자 등은 우연성이 있는 옥외공간으로 계획 유도 테마파크의 공간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10개의 주제(산불, 해일, 풍수해, 지진, 설해, 교통사고, 폭발, 화재, 붕괴, 지하철)는 인위와 자연재난으로 나뉘고, 각각의 체험관은 건물내부로 갖춰 있지 않고 와우스트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단순한 문화시설보다는 테마파크 요소로서 자연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암지구의 와우플라자는 추후 건립될 숙박시설과 안전학교의 교육과정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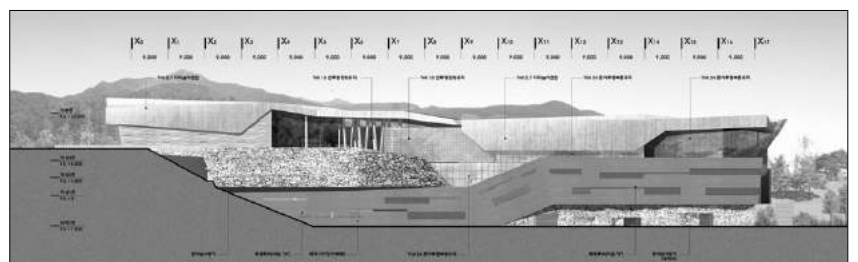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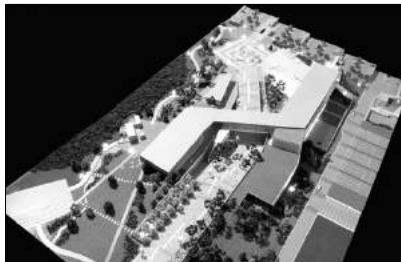
조형개념은 장성지구의 안전체험관은 자연의 물, 불, 바람, 흙의 네가지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



루면서 일어나는 각각의 재난을 상징하고, 그 Bend가 건축 조형의 개념을 표현하면서 자칫 위락시설의 즉흥성으로 흐르지 않게 의도하였다. 중앙지구의 곤도라승강장은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반되는 스테인레스루버를 적용 전체 지구를 연결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도



정면도

이 규 환
건축전시준비위원회 위원
by Lee Kyu-hwan, KIRA

한국건축산업대전 - 01 그 시작과 준비

Architecture Industry Exposition of Korea - 01
Inauguration and Preparation

2006년 9월 13일(수)부터 9월17일(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는 곧 우리가 건축산업의 중심에 서있으면서도 진정 그 역할에서 소홀히 되어 왔던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기 시작하는 커다란 외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유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21세기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는 산업전시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다른 전시회와 무엇이 다르며,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등을 함께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본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전시회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산업전시회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전시회란 과학문명의 발달정도를 알리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는 박람회, 산업체의 이윤추구가 보다 큰 목적일 경우는 전시회라 부른다. 여기서 다시 대중을 주고객으로 하는 경우는 대중산업전시회, 전문가를 주고객으로 하는 경우는 전문산업전시회라 세분화 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이 전문전시회를 기본으로 하되 동시에 건축에 대한 바른 홍보와 대중을 계몽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함께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산업전시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규모면에서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경향하우징페어를 비롯해 홈텍스, MBC건축박람회 심지어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하우징브랜드 페어까지 아니 좀 더 확대하면 부산, 대구, 광주, 기타 전시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건축산업전시회까지 그 내용에 있어 모두가 같은 자재 전시회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재전시회가 마치 건축전시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용어가 '명품주택', '명품자재' 등과 같은 매우 우습고 불건전한 표현들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전시기획사들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일부 건축인단체 등에서 행하는 전시회가 그저 보고 즐기는 우리들만의 문화축제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건축전시회는 자재전시회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우리 역시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자재전시회를 하나 더 만들자고 주장한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 진정한 건축산업전시회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산업전시회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전시회는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탄생된 '신생산업'으로서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매개로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구매자를 대표하는 참관객과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시자간에 거래와 상호이해를 주목적으로 진행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이다. 또한 전시회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 기업간의 교역의 장이 될 것. 둘째, 최첨단 기술 비교의 장이 될 것. 셋째, 최신 정보 획득의 장이 될 것. 넷째, 상품과 기술의 판매 및 기술 이전의 장이 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유형과 무형'이라는 낱말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산업전시회를 다른말로 견본품을 전시하는 견본전시회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건축산업 전시기획사들은 견본품을 건축자재라는 '유형'의 상품에서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회에 내놓을 '유형과 무형'의 건축견본품이 건축자재에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즉 자재산업전시회가 아니라 건축산업전시회는 지금부터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몫으로 남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건축산업대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생각의 출발은 건축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전문가이다 보니 굳이 건축의 정의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건축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문화와 공학기술의 종합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합체를 만들기까지는 건축설계는 물론 토목, 구조, 기계 및 전기, 조경, 인테리어설계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 건축자재가 적용되고 이를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등 매우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그래픽, 모형, 교육, 출판, IT·소프트웨어 및

부동산개발·분양 등 그 관련분야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를 다 모은 것이 건축산업일 것이며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건축산업전시회라 할 것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이러한 건축전문가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혹시, 이들 모두의 참여가 주체없이 산만한 전시회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축산업이란 결국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니 우리의 전시회 역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즉 표현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하되 여기에 관련된 건축전문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이 건축물의 견본품 즉 모형, 판넬, 도면 등을 전시품으로 내세우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건축전문가들이 함께 전시관을 공동으로 꾸미는 것이다. 이럴 경우 관람객은 전시견본품을 문화적 전시품으로 관람할 것이며, 동시에 관련전문가들은 전시물에 대한 실제 건축기술의 적용여부를 설명하게 된다. 물론 이때 회사를 홍보하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우리는 '건축프로젝트관'이라 부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서 설명하겠다.

'건축프로젝트관'에는 건축사무소와 건설회사, 자재회사, 기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첫 전시회인 관계상 전시규모가 약 1,600평 정도로 비교적 작은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건축프로젝트관'은 약 30~40개 정도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경우는 약 30~40개의 '건축프로젝트관'에서 모두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건축물에 적용된 수많은 자재의 종류를 모두 전시할 수 없기에 공동관을 구성하기로 협의한 몇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회사들은 결국 별도의 전시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우수자재전시관'을 마련했다. 그냥 건축자재전시관이 아니라 우수자재라는 표현을 한 것이니 이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시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여업체의 전시품이 좀 더 선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전시업계에서는 항상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시기획사들은 많은 참여업체가 있어야 수익이 보장된다 보니 전시품의 선별작업은 현실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건축사는 물론 건축계 전체의 홍보와 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시작한 전시회인만큼 우수한 자재업체에게 보다 많은 홍보와 마케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제물이 건축 실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함으로써 건축전문가들은 믿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건축의 질적 향상을 낳을 것이며 궁극에는 건축계 전체가 동반상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품의 물리적 성질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 시공성, 유지관리의 우수성, 신뢰성 및 기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건축전문가들이 실무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설계표준자재인증'이라 부르기로 했으며, KS제품인증과는 다른 진정한 건축 전문가들을 위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전시회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하여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결국 자재회사에서 '우수자재전시관'에 전시품을 출품한다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축전문가들과 인연을 맺고 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전시공간이 '국토개발 및 지역홍보관'이다. 이는 말 그대로 국토개발상황을 참관객들에게 홍보하는 곳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전시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건축전문가들의 노력을 함께 보여주고자 함도 목적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의 수많은 국토개발 사업에서 우리 건축전문가들의 노력을 어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그 결과는 항상 남의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은연중에 배제되어 온 것이 한두번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번 '국토개발 및 지역홍보관'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전시내용의 성격상 위의 3가지 전시관에서 전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각 참여업체별 성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전시방법을 택할 수 있는 '전문전시관'을 구성하기로 했다. 컨설팅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고, 특수시설이나 특별한 건축협력업체를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이란 원래 수많은 전문분야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전문전시관'의 활성화는 곧 참관객들에게 건축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적 전시회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전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계에서 항상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전문가의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세미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축의 대표적 건축상 및 작품전시회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공동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이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얼핏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시산업계에서 매우 획기적인 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도 그러한 기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처음에도 말했던 내용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건축전문전시회라는 것이 없는 탓이고, 현재 활동하는 건축전시기획사들이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다른말로 하면 우리들이 앞으로 진출할 분야 이곳에도 분명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흔히 말하는 업역확대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말로써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지금 전시회를 개최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3가지만 생각해 보겠다.

첫째,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이미 30여년이란 세월동안 전시산업이 유지되어 왔었지만 그 성장의 곡선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국제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세계시장과의 무역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교역을 위한

전시산업의 성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에 최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시산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지금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둘째, 서울 삼성동 코엑스라는 전시컨벤션센터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가동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나 일산 고양시에 새롭게 건립된 킨텍스전시장(2005년 4월 개장)은 그 규모면이나 앞으로의 역할상 특히 중량물, 대공간의 전시품 전시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시산업계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것이 명백하다. 그 증거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던 많은 전시회가 일산 킨텍스로 이전되었는데, 이에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각 전시컨벤션센터들은 자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유치되고 있는 각종 산업전시회에 대한 차별화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 차별화전략에 「한국건축산업대전」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셋째, 산업전시회란 참가업체의 홍보와 매출증대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지금 건축계에 불어닥친 불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데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고 한번 해 본 적 없고, 회사홍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건축불황은 건축전문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너무나 훌륭한 전문가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제 능력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낭비임에는 분명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 방법을 가장 적절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기에 여러분에게 알리게 된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 우연한 기회에 전시업체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후로 종종 건축산업전시의 발전가능성을 고민해 왔었다. 그 사이에 산업전시회에 참여하는 여러 건축전문가들을 만나서 참여 이유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이번 전시회는 분명 건축전문가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유를 알고, 가야할 길을 알기에 그 방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한 만남이 부디 회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전 영 철

본 협회 법제위원장

by Jeon Young-cheol, KIRA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After the National Assembly
Symposium for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Culture Promotion

2006년 3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때는 뿌듯한 심정이었다. 국회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외침을 할 수 있었다니……. 더구나 국회 박희태 부의장과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원회 의장, 한나라당의 이방호 정책위원회 의장, 이호웅 건설교통위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분들의 축사를 들으며 건축의 중요성과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 있었다는 점은 묵은 숙제를 해결한 듯 한 그런 후련한 심정이었다.

사실 이번 행사는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005년 11월에 지인을 통해 황우여 국회의원을 소개 받았고 황의원께서는 “네모형태 위주의 국내 건축물들에 대한 해법이 없을까?”하는 의문과 더불어 건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다는 의지로 필자와 만난 것이 바로 국회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시발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황우여 의원이 국회의 교육위원장이므로 교육위원회와 관련 있는 학교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떠 올렸으며 학교건축물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들과 B.T.L로 발주되는 문제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하였으나 이는 건축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일 뿐 이라는 판단이 되었다.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건축에 대한 올바른 교육내용의 부족,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과 건축설계도서의 보호, 건축을 기술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 훌륭한 건축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발주방식 등등 많은 건축의 문제점들이 필자의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이는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쪽의 보고서로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재미있게도 국회의원에게 비싼 점심을 얻어먹으며 건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자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해법으로 '건축문화진흥법'의 입법을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황우여 의원께서 건축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는 분이었기에 입법 제안에 대하여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으며 제안을 했다는 죄로 필자가 법안 초안 작성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사실 '건축문화진흥법'이라는 용어는 협회내의 정책개발 T.F. 팀이나 법제위원회에서 건축의 문제점들에 대한 토의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법안 작성은 무척이나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다. 더구나 법안의 일부개정도 아닌 제정이었으니 그 부담감은 예상외로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건축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한 입법초안이라도 있어야 황우여 의원께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입법 발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는 고생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건축문화 진흥법안의 내용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제정법이며 건축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모르는 의원 보좌관에게 법안 초안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법안의 초안 작성 숙제는 필자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의 초안은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법안을 받아본 황우여 의원으로부터 좋은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입법발의에 필요한 최종 법안작성을 위하여 법제심의, 검토와 법안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의 선포라는 의미를 함께 두자는 의도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토론회의 날짜를 급하게 잡게 되었다.

발제자, 토론자, 좌장, 사회자의 선정과 섭외를 비롯하여 예산편성, 초대장과 행사 자료집의 인쇄, 그에 따르는 원고마감, 축사순서에 대한 의전문제, 후원단체로 선정한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학회, 새로운문화를 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와의 협조 등등 우리협회의 능력 있는 사무처 직원들과 연구원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숭 막히는 일정이 차질 없이 집행되었고 드디어 토론회 행사는 시작되었다.

반만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건축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사회자인 조원용 건축사의 서두가 인사말을 하는 황우여 의원을 감동시키고, 전문가들의 수장다운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의 건축문화론이 전개되었다. 예전에 없던 박희태 국회 부의장이 오셔서 토론회의 격이 높아졌고, 부탁드린 축



사에서 "양당의 정책위 의장님들이 오셨으니 양당합의의 법안으로 올라올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방향이만 두드리겠다"는 덕분에 토론회의 분위기는 축제의 장으로 고조되었다.

법안작성을 위한 필자의 발제와 보완 성격을 가진 김광현 교수의 발표가 열기를 더했으나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이 법안 작성을 위한 각론적인 요소들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문화에 관련된 원론적인 이야기 위주가 된 점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건축계의 원로이신 원종수 교수께서 객석 발언을 통하여 건축문화의 의미가 부족했던 예전의 경험담과 아울러 직접적인 건축문화와 진흥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건축사랑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토론장에 끝까지 참석하여 경청한 황우여 의원은 참석한 건축 관계자들에게 법안 발의의 의지를 확인하여 주었고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표로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그 이후,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은 법안진행 협의와 감사의 의미로 황우여 의원과의 회동을 주선하였고 황우여 의원은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고 난 뒤의 피곤함도 마다한 채 귀국 다음날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법안내용과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아직 법안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발의된 후에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필자는 국회에서 건축문화 진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도 괄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싶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건축인들의 숙제 하나가 해결되면 더 이상 말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혹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해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편으로는 발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건축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건축문화진흥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 우리들의 답답한 숨통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숨길 수 없음을 필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심정이라.

건축문화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전영철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1. 들어가는 말

건축물은 국가와 도시를 표현하는 외형문화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훌륭한 건축물은 국가의 문화적 유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은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를 통하여 이미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폐허화된 국토의 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경제적인 건축물을 빨리 건설해야만 하는 건설위주의 국가정책이 전개되었다. 그로 인하여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간과되었으며 건축물에 내재된 예술적 가치의 추구보다는 실용성과 물량확보 중심의 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건축분야의 설계와 디자인부분에서는 현대건축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던 건축문화의 요소들 즉, 건축물의 창작 활동과 저작권, 보존, 유지관리, 교육, 출판, 강연, 전시 등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축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함양을 위하여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건축”이라는 단어를 건축법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행위에 대한 정의만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건축은 단순히 행위적 요소이며 그에 따르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축은 우리의 환경이며 문화이다. 기술은 건축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한 부분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건축”이라는 용어부터 “기술과 예술을 적용하여 문화와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정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싶다.

2. 건축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의 필요성

1) 건축문화의 중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은 행위적인 요소 즉 건설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은 건설과 설계, 감리 모두를 포함한다. 설계는 건축을 도면으로 표현한 것이고 건설은 도면을 형상화 한 것이며 감리는 그 과정을 지켜주는 업무이다. 건설 속에 건

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속에 건설이 포함되는 것이다. 건축을 총괄하는 자격을 국가에서는 “건축사”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사”라는 자격증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은 공통된 제도중의 하나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문, 방송기자들마저도 “설계사”라는 법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그런 현실이다. “설계사”라는 용어 속에는 단지 설계만을 하는 사람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건축을 총괄하는 Master라는 의미는 주지 않겠다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표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된 큰 책임이 건축인들에게도 있겠지만 분명히 짚을 것은 정부의 건축정책들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부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건설교통부의 주택국 속에 건축과가 있었음은 정부 관료들이 가졌던 건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6.25 전쟁이후의 폐허화된 전국을 복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물량위주의 건설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세계속의 한국을 부르짖는 지금까지도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사의 훈(勳)이 들어간 건축물이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고 세계역사의 한 쪽을 장식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캥거루의 나라 호주라는 이미지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나라로 바꾸었으며 시드니가 세계3대 미항의 하나로 자리 잡는데 오페라 하우스가 큰 역할을 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건축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과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학보다는 문화라는 용어가 더욱 어울리며 그런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 때 건축물에 대한 무형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2) 국가 시책변화의 절대적 필요성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문화로 인정하게 된다면 국가가 바라보는 건축의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많은 건축인 등이 건축에 관한 국가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된 부(部)나 청(廳)을 원하고 있는데 건축인들마저도 건축문화부나 건축문화청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택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미 없어진 주택국의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면 국가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을 외형적인 가치로 평가 하였지만 건축이 가진 내면적인, 무형적인 무한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 중요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연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의 무한한 내면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는 “건축사”들과 “건축사”를 지원하는 건축과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때는 건축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각 대학별 최고를 기

록한 적도 있지만 지금의 건축과 사정은 심각한 실정이다. 기존의 “건축사”들을 비롯한 선배 건축인 들의 어려운 모습이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기에 그나마 건축의 원대한 꿈을 꾸던 학생들도 하나 둘 건축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처럼 외형적인 가치가 높은 건설위주의 정책보다는 한정된 외형 가치를 무한한 가치로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건축정책이 되어야 한다. 건축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술교과서에만 단순히 수록되어 있는 건축이 미술과 사회교과서에서 폭넓게 서술되어 어린 학생 때부터 건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야 한다.

훌륭한 건축가의 탄생과 더불어 그 작품들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수많은 세계적 무형유산들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이익이 되고 국민들의 자긍심 확보에 이바지함을 홍보하고 그에 맞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하여야 한다.

3. 건축문화 발전에 역행되는 잘못된 제도

건축과 관련된 법과 제도 중에는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며 건축문화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추첨식으로 이루어지는 설계 입찰제도

건축물의 설계는 설계자의 설계능력과 해당건물의 계획도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해져야 하지만 입찰제도는 금액만 적어서 평균가격에 가까운 사람이 입찰되는 추첨식 입찰방법으로 설계자가 선택되고 있다.

창작물을 계획하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 중에서 입찰 방법은 설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설계의 발주형태를 입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정가가 있다면 설계를 바라보는 행정가들의 뒤떨어진 시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문제점

설계입찰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건설된 건축물과 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하여 좋은 작품을 선정한 후에 그 작품을 건설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시각적, 실용적인 건축물의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입찰은 이미 만들어진 내용물을 공개하여 그 물건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을 해야 하는 설계를 입찰에 적용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입찰방법은 현실적으로 설계 능력보다는 운수에 의하여 낙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축사가 낙찰 받는 경우가 많아서 훌륭한 건축디자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하청에 의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하고 있다.

입찰로 확정된 설계는 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하여 설계의 내용이 검증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대부분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계획 설계 승인을 쉽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 훌륭한 건축물의 설계보다는 공무원의 취향과 용역기간 맞추기식 설계가 자행되어 좋은 건축물을 위한 설계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 해결방안

설계입찰제도는 극히 작은 규모와 창작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실시 설계인 경우로 지금의 규정보다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제한하고 근본적으로 “현상설계 공모전”의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설계의 적격심사 제도

어느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술력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해당건축물과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규모의 설계를 해 본 설계자에게만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 문제점

건축물의 설계는 아이디어 경쟁사업이며 그 평가의 주된 요소가 건축물의 내 외부 공간구성에 필요한 디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나 경력에 있는 자에게만 설계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독소적인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재미있는 점은 그 실적이 설계자의 이름으로 설계된 실적이어서 하므로 큰 설계회사에서 훌륭한 건축가를 도우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아서 독립하고자 새로 시작하는 젊고 유능한 신인 건축사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 실적만이 아닌 회사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득권을 가진 대형 업체들만을 위한 대표적 제도라는 점이다.

• 해결방안

건축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사무소등록을 한 건축사 모두에게 설계할 기회를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가장 훌륭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만이 건축설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공정한 평가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3) 일괄 입찰제도(턴키 공사)의 남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일괄 입찰제도(턴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문제점

설계와 건설을 묶어서 발주하는 일괄입찰제도는 공개하지 못하는 국가 기밀사항의 건축물이나 국가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히 시급성을 요청받는

공정조건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는데 발주과정이 단순하고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부발주공사의 대부분이 일괄 입찰제도(턴키공사)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건설사의 파트너로 선정된 설계자는 자유로운 창작보다는 건설사의 요청으로 시공하기 편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의 설계를 하게 되므로 독창적이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훌륭한 건축물의 설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 해결방안

위에서 설명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 입찰제도(턴키공사)를 지양하고 설계경쟁력 강화와 훌륭한 건축설계작품의 유도를 위하여 “현상설계 공모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가장 훌륭한 작품을 선정한 뒤에 선정된 작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많은 설계 작가의 경쟁 속에서 선정된 설계작품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우수한 조형미와 독창성으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건축물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역사에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4) 민간투자법의 잘못된 건축 관련 시행방법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건축공사 즉, 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군인아파트, 임대아파트, 학교시설 등의 공사는 B.T.L 방식(민간업체가 설계, 시공하여 20년간 관리하며 제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지급하는 건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정부 발주공사는 B.T.L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문제점

대부분의 정부발주 건축공사를 민간투자법으로 시행, 모두 턴키 식으로 시행되므로 턴키의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업체선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설계점수는 전체 평가의 20~30%정도이며 나머지 70~80%의 평가는 입찰금액 조건과 운영계획 점수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건축물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가의 혼이 담긴 우수한 건축물을 위한 설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해결방안

박물관 도서관 예술회관 등 예술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현상설계 공모전”에 의하여 선정된 가장 훌륭한 설계 작품을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설계자의 감리 참여가 불가능한 일부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100억 이상 공사의 공공 건축물은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다.

• 문제점

설계자의 의무적인 참여규정이 없어서 설계자가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이나 설계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 피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 해결방안

모든 건축물에 설계한 자가 일정부분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조절하여야 한다.

4. 건축 설계도와 건축물의 저작권

건축물은 사유재산의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 삶의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혈을 기울인 설계도의 주된 내용이 고스란히 도둑맞는 상황은 예방되어야 하며 가치가 인정되는 완성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소한 건축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되기까지의 일정기간만이라도 건축허가, 사업승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르는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훼손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는 설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완공된 건축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선정하여 공고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훌륭한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독창적 설계를 유도하고 도시의 모습을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일정구역 내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 디자인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5. '건축문화의 전당' 설립의 필요성

정부에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더라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실체가 없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건축 문화의 전당'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본부로서 건축연구소, 건축박물관, 전시장, 체험관, 교육관을 비롯한 부속시설 등의 명실상부한 건축과 관련된 업무의 본산지 역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문화의 전당을 총괄하고 각종 건축문화진흥계획 수립과 활동, 재정적인 운영을 위한 건축문화위원회(가칭)의 법인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건축문화 진흥기금”의 필요성

건축문화의 전당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3)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일정규모 또는 일정용도 건축물의 총공사비의 10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위의 내용 중 3)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4)번 항의 기금 신설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비가 아닌 건축 설계 및 감리비의 일정부분을 선택하여 건축사들이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역시 해당되는 단체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설계비와 감리비의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결론

하나의 훌륭한 건축물이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나라만의 독창적 건축문화의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축설계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목적으로 범국가적인 정책수립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이 세계의 다른 나라 교과서에 수록되어 문화 선진국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훌륭한 건축가가 세계 각국 신문의 문화면을 장식하게 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희망하며 건축문화 진흥 법안이 그 초석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건축문화진흥법의 의의와 조건

김광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건축의 생산 배경

단순하게 말해서 건축을 문화의 한 영역, 한 방향이라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건축은 우리가 사는 저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확장하여 도시를 이루게 만드는 물체이다. 절대로 가두어 둘 수도 없고 잘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어서 한 번 지어지고 나면 싫든 좋든 이 땅 위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건축물인 만큼 우리는 건축과 도시 속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건축은 매일 매일 우리의 일상이 벌어지는 곳이며, 우리의 문화가 전개되는 곳이다. 바로 이 때문에 건축이 지니는 문화의 전체적 현상을 잘 인식하고 가꾸며 육성해 갈 필요가 있다.

건축을 문화로 바라본다는 것은 자극히 당연한 일이다. 건축이 망가지면 근린의 관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제구실을 못한다. 따라서 건축을 문화로 성숙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수준 그 자체를 가늠하는 일이며, 아름답고 눈에 보기 좋은 건축을 짓기 위해 이를 문화적으로 육성하자는 태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만큼 건축을 문화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주장 자체가 이미 비문화적인 일이다.

건축은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반영하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사회의 문화를 담고 펼쳐며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전수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문화를 새겨 넣는다. 건축은 사람들에 의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국가와 사회적 자산에 있어서 최대공약수인 구조물이다. 건축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리적 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보람 있게 만드는 최대의 매개체이다. 건축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 가장 크게 얽혀 있는 것이며,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최대의 저류이다.

따라서 건축을 문화로 바라보고 싶고 향유하고 싶으며 문화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점, 곧 국민이 나누어 갖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을 깊이 인식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건축문화의 육성이란 건축 형태를 아름답게 만들고 특이하게 만드는 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건축문화라 하면 건축계의 공연한 치장으로만 알고 있다.

사실 건축은 표면적으로는 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신이 소유한 최대의 자산이요 사적인 재산이고 잘 증식되어야 할 부동산의 가치라는 점에서 매우 사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본질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배척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문화의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건축은 정신적 산물이고 사회의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토지와 함께 개발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장치도 된다. 사회에 대하여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구조물, 그것이 바로 건축이다. 따라서 경제와 이윤은 문화에 대치되는 것이고, 정신과 사회적 가치만이 건축문화의 본질로만 이해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에 더하여 건축에는 한 두 층짜리 아주 간단한 집에서 수 십 층짜리 거대한 건물에 이르기까지 집의 규모와 그에 따르는 기술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건물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일률적인 질을 가진 모델로 정해지지 않으며, 하나하나가 제각기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문화적 특성이 있다. 혹시 획일적인 것의 대명사로 여기기 쉬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도 알고 보면 세심한 주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건축물의 수준은 매우 사적으로 정해지기 쉽고, 건축에 비문화적인 요인이 자리 잡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건축은 매우 복합적이다. 건축은 위대한 사상과 필치와 몸동작과 재능을 압축하는 다른 예술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성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건축이 예술과 문화 반대편에서 있는 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공학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저급의 기술로도 가능한 것이 건축이고, 세계가 깜짝 놀랄 첨단 기술로만 실현되는 것도 건축이어서, 기술을 하대하는 풍토에서는 건축은 문화 속에 여간해서 제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의 이 다양한 생산 배경으로 인해 건축을 비문화적으로 바라보고, 건축을 기술의 한 부품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너무 자주 대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지는 모르나, 건축을 둘러싼 생활 환경의 수준과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는 너무나도 낮다. 그런 까닭에 이 나라에는 건축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밝히는 정책이 없다. 건축하는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고, 건축을 요구하는 사람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건축을 통해 공간을 기획하는 공공도 건축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건축을 문화정책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건축이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어 그 부분만이라도 문화정책의 하나로 눈여겨보자는 정도의 것이 결코 아니다. 건축이 왜 건축정책으로 건축문화정책으로 구현되고 일관성 있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말한 건축이 만들어지는 방식, 곧 건축은 매우 공적인 사회적

산물이자 동시에 매우 사적인 재산이라는 점, 그 수준의 범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 건물의 생산 주체가 모두 문화를 의식하고 지어지는 대상이라는 점, 예술의 반대 가치를 갖는 기술을 토대로 성립한다는 점, 그러나 건축은 결과적으로 도시를 이루고, 그 공간 전체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정점에 놓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지방 자치체는 건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마도 정부는 건축은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 토지거래와 연동하는 경제적 재산, 광대한 건설기술의 작은 한 갈래, 사는 이의 이윤과 경제적 욕망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민원의 대상, 다채로운 법규로 치밀하게 제한하면 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문화의 한 측면으로 여기는 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 환경을 관광화하거나 역사적 유산을 중심으로 단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정부와 의회는 건축정책을 왜 세워야 하는가? 그 목적은 공공 기관이 주도하게 될 건축적 골격과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정책은 국민의 건축적 자산을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지방 자치체가 독자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지방 건축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건축정책이란 고도의 건축 수준을 얻기 위함이거나, 멋지고 기념적인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설 분야가 더욱 폭넓은 국제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의 건축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건축이 왜 국가의 문화와 국민 생활에 중요한가?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 마디로 좋은 건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세 번째인 사회권 중 환경권이다.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란 공기 오염과 같은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쾌적한 건축으로 둘러싸인 생활환경을 소유하는 것이 환경권이다.

핀란드 건축정책은 이러한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건축문화에 접근하고 있다. 다음은 다소 길지만 중요한 문장이므로 인용하겠다.

“1.2 좋은 환경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환경에 대한 인지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지대해지자 사람과 그 주변의 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물리 환경을 위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 권리와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환경과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도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건축정책은 이 권리의 실현을 촉진한다.

의사 결정과 국민 사이의 대화를 위한 순수한 기회는 시민 중심 사회 실현의 중요한 요소이다. 개방적 의사결정 체계와 사정에 정통하고 적극적인 시민은 이러한 일에 필요하다. 이 과정, 특히 이웃하는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특히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에서 시민의 독립적인 행동과 참가는 정부의 전통적 문화를 보완한다.

이러한 사항을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은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방 자치의 의사 결정이 현재 존재하는 건물 자산과 이웃하는 환경의 문화적이며 미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건축은 환경 안에서 사람을 함께 살도록 묶어주고 문화를 향유하게 하며 과거의 유산과 연결되어 역사를 간직하며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와 같은 건축과 생활환경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환경 속에 살아 있는 건축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건축정책이든 건축문화정책이든 국가가 종합적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국토, 도시, 지역의 생활환경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축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건축을 만드는 건축가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축정책이 왜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가를 이해하려면, 건축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지대함을 인식해야 한다. 건축은 국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건축은 결코 문화의 변방이거나 문화의 한 갈래가 아니다. 건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수단이다. 그리고 건축은 나아가 고도의 질을 가진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 모든 생활환경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축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는 지대하다는 점에서도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핀란드 정부의 건축정책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국민이 소유하는 고정 자산의 3분의 2가 건물 속에 있으며, GDP와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건설 분야에서 얻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국가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는 좋은 건축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보존되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건축은 국제적 경쟁력을 통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

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건축정책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적극 사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 생산력이 건설 분야에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축이 건설과 문화라는 두 정책에서 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건축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건축은 낙후되면 한없이 낙후되어 버리지만, 문화의 토양 위에서 가꾸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이요 기술 산업이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문화와 건설을 가를 필요가 전혀 없다.

숙고된 건축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건축은 국가와 지방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건물과 자연환경이 어울리는 풍경은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특히 지방문화 육성은 건축과 도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건축과 도시가 풍족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건축은 지방 문화가 살아나는 물질적인 기반을 형성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하게 묶는 수단이 된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건축은 국가와 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창조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건축문화정책이다.

건축정책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국가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건물들은 국가가 짓고 소유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좋은 건조환경을 소유하고 누리는 권리가 지속되게 하고, 현재의 건조환경과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도록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는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법령과 지도를 하며, 올바른 건축가가 지역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문화의 한 분야인 건축을 교육하고, 건축에 대한 공공적 인식이 고양되도록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공공이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바른 건축이 창조되도록 건축정책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건축정책은 건축의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건축적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킨다. 또한 건축정책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공동체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제적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건축문화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건축은 사적이지만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물이 성립되는 과정을 공공이 관여하고 지도한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건축의 생성 방식에 정부가 정책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선진 각국이 정부가 정책을 모두 만들고 있지 않고 영국의 RIBA나 미국의 AIA처럼 민간에 맡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선진 국가가 건축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에 맡겨서 운영되어도 좋을 만큼 이미 건축정책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건축은 사적이지만 공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건축가는 사적 직업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을 주어 역할을 맡기는 이들이다. 따라서 건축가는 자신이 건축물을 통해 사적 이윤을 얻는 전문가가 아니다. 건축가란 누구인가? 건축가는 공간과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공적 지식인이다. 그렇기에 건축가는 공공적 측면에서 역할을 관장해야 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윤리 의식이 고양된 자여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건축가가 육성되도록 권장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3. 건축문화진흥법의 조건

선진 각국은 모두 건축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이미 시행한 지 오래이며, 그것이 그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결정해 나가고 있고, 건축을 통해 문화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나라의 환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시 당국과 민간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도시와 지방에 세워지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문화를 생각하고 건축문화진흥법을 생각할 때, 이를 단순히 건축의 미학적 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미래의 생활환경을 얻기 위한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건축은 단순한 미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핀란드는 그들의 건축정책의 의미를 이렇게 시작한다. “정부의 건축정책의 목적은 공공 기관에 의한 이후의 수단 제공을 위한 건축적 골격과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정부의 건축정책은 우리의 건축적 자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현존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고도의 건축 수준을 향상하는 기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설 분야가 더욱 폭넓은 국제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풍토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건축정책 또는 건축문화의 진흥은 공공기관에 의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현존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환경의 성공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도 2000년

도에 발표된 ‘제3차 건축정책’의 골격은 ‘건축은 모든 이들과 관련된 일 (architecture is everyone’s concern)’이며, ‘건축은 본질적으로 공공적 작업 (architecture is an intrinsically public affair)’이고,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형태 (architecture is an art form that impinges on everyone’s life)’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문화진흥법이란 모든 이와 관련된 생활환경을 얻기 위해 취해야 할 건축이라는 공공적 작업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의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현존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건축문화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건축문화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주는 법안이다. 의회와 정부는 건축과 문화 및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정책이요 건축문화정책이다.

- 올바른 건축물은 이 사회에 어떻게 생산되는가?
-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의 생활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를 위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재생산하는가?
- 올바른 건축물을 만드는 생산자인 건축가는 무엇 하는 이들이어야 하는가?
- 건축가는 공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 또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 올바른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에 제출한 아젠더에는 다음과 같은 틀과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제 1장 총칙

- 목적 : 건축문화 창달 및 건축문화 운동 고양
- 책임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역할 등

제 2장 건축문화 진흥 기반 구축

- 건축정책연구원 설치
- 건축도시센터 설치
- 행정서비스를 위한 건축문화지원센터 설치

제 3장 건축문화 확산

- 공공성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건축문화 이벤트 추진
- 사업성을 위한 건축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제 4장 건축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 건축문화 진흥기금 조성
- 건축문화 진흥기금 운영

유럽의 선진 각국의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건축문화진흥법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관점은 전반적인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 건축정책의 지원을 받는 건축센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공공적 관심사로 이끌어 내는데 있다.

'건축정책연구원'은 건축문화를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이라는 체계적인 실천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를 연구하고, 국민생활 속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건축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건축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 환경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건축제도를 개정하고, 건축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확산, 정착을 실천하며, 세계건축과의 국제 교류를 위한 발진 기지로서 활동한다.

이 '건축정책연구원'의 기능은 ① 건축정책의 지속적 연구, ②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연구, ③ 세계적 수준의 건축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정보망 구축, ④ 건축문화 국제교류, ⑤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⑥ 초중고 건축교과과정 개발, ⑦ 유망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축도시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도시센터'는 주거나 건물들을 단순히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좋은 건축과 도시환경이 가져오는 효과, 공공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목한 것이다.

'건축도시센터'를 하나로 정의하거나 그 모습을 규정하기 어렵지만, 지역과 국가와 국제 조직과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과 조언 역할을 한다. 나아가서 설계를 공모하고,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건축, 도시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공개토론회 및 협의회 진행하며, 전문가 교육이나 일반인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영국의 건축센터에는 지역, 커뮤니티 및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으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건축센터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시센터(Urban Center)는 도시 내 한 지점에 위치한 하나의 건물을 기반으로 자체 내에 갤러리, 전시장, 교육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며, 지역네트워크(Regional Network)는 각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연합건축센터로서 기능하는 경우이다.

'건축도시센터'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건축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장소, 지역 특수적인 성격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며,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 설계와 계획, 문화활동, 예술, 공공예술, 유산보존, 지속적 개

발, 사회적, 경제적 활동 등 폭넓은 활동범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건축센터'는 건축의 경향을 자료화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넘어 일시적 전시나 영구적인 컬렉션, 강연회, 세미나, 참여 프로젝트, 이벤트 또는 자문역할과 같은 방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기구이다.

'건축도시센터'들은 문화적, 정치적 기관으로서 정책결정자, 디자인 전문가, 대중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36개의 건축센터와 이들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네트워크 'OLA'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들은 일반 대중을 건축과 도시에 관한 토론으로 끌어들이고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정부 및 지역의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전시, 세미나, 연구회, 지역커뮤니티 활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을 촉진시키고 있다. 건축문화진흥법이 반드시 연구하고 답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영국은 네덜란드와는 달리 정부차원의 건축정책 대신에, 민간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그 대표적인 기관은 영국 왕립건축가 협회인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로서, 건축도서관, 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 각종 문화프로그램, 전시, 토론, 공모전, 미디어, 커뮤니티 사업, 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건축이 경제, 커뮤니티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이익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12개 지역에 각각의 프로그램과 건축센터를 독자적 운영하면서 지역성에 맞는 건축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정하는 건축가가 국가 프로젝트 설계의 질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건축가가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건축의 전체적인 질을 보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정부의 각 부처는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공공 건축물을 가질 수 있도록 진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건축 및 도시계획을 지원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복합 건축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건축 아카이브(archive), 도서관, 전시관, 연구시설, 출판사 및 저널, 건축문화교육, 국제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건축도서, 모형, 도면 등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자료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접근성을 촉진하고 아카이브 연구를 지원하고 강화하며, 광범위한 아카이브를 통해 도서관 연구의 깊이를 촉진하게 한다. 이와 함께 건축 관련 이벤트, 전시회, 출판, 건축공모전 등의 활동과 특히 건축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건축 관계자들이 양질의 건축을 만들어내도록 인식을 조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축문화진흥기금의 조성은 이상에서 제기한 여러 기관, 시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과 도시의 환경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기금은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건축정책연구원의 지원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건축문화 정립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전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건축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문화를 문화산업화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건축가와 건설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두뇌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가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교류를 통한 세계적 건축과 도시문화 프로그램 유치만이 아니라, 한국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전시회, 문헌 발간, 세계와 아시아 속의 건축문화 중심기지 설립을 위한 건축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피부에 닿고 건축과 도시를 통해 바람직한 균형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건축도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중고 "건축과 도시문화" 교과서 개발과, 방송통신대학과 교육방송의 건축문화강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적인 건축문화 교류에 사용된다. 또한 국가를 대표할 건축가는 국가적 지원에 의한 얻어지는 것이므로, '건축문화진흥기금'을 통해 고도로 우수한 건축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우수 신진건축가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유망 신진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하여 자랑스러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국토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을 향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세계화하는 한국건축문화를 정립하며, 문화의 최고봉인 건축을 통해 건축설계산업과 건설기술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며, 범국민 건축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제안한 '건축도시센터' 등을 통해 건축물이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이라는 측면을 지속화하기 위한 건축설계경기의 품격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관리, 지도를 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가 갱신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건축지원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제 건축 비엔날레를 추진하여 세계 각국의 디자인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집합시키고, 한국 관련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촉진시키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며, 지식과 토론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 졸업 후 4년 이내인 신진 및 기성 건축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신인 건축가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건축가들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등용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장학제도, 연구, 여행, 국내, 국외 출판 등을 지원하는 정책적 육성책을 통해 젊은 건

축가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갈 유능한 건축가들을 키워 내는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진흥법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건축문화진흥법의 의의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을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안전, 기능, 미관으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효율적인 기준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건축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정의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라는 건축을 낮추어보기에 익숙한 각종의 제도와 정책이 얹어매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국가적 현상설계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자신의 건축을 통해 공공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진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지는 국가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2005년도 한국건축문화포럼 세미나

신 춘 규
본 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주)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by Shin Chun-gyu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An introduction on Framework of
APEC Architect Project

198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의 바람은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의 경제 체제가 붕괴된 탈냉전 시대를 맞아 그 범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간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이 서로의 경제 정도에 따라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경제의 범위가 선진국을 위주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기준이 설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정해지면서부터 세계시장은 서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설계 분야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해 개방대상에 포함되고 2001년 11월 DDA(도하개발아젠다)를 통해 선언문이 채택됨으로써 포괄적인 양(요구 및 요청)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자격이 요구 되는 건축설계를 포함한 전문서비스 분야는 서로의 자격 동등성을 기초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정부기구인 UIA에서는 자발적으로 '건축 실무에서의 전문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1999년 중국 북경 총회에서 권장 안을 채택하게 이르렀다. 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5년제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증원을 설립하고, 건축사등록원 설립의 필요성 등 제도개선을 위해 행보를 숨 가쁘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APEC 건축사 제도는 APEC 회원국 간 APEC 설립정신에 맞는 건축사 상호 인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UIA의 상호인증 제도보다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늦게나마 필요성을 인식하고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고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제2회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중앙아시아 이전에 정회원국으로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우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이 제도가 국내에서 빠르게 정착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APEC 건축사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목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1989년 설립되어 회원국 간 인력자원, 기술, 관광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이다. APEC의 설립 기본정신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 간 기술협력과 경제 교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가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필리핀)을 중심으로 창설된 후 9개국(중국, 칠레, 홍콩,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아, 페루, 러시아, 대만, 베트남)이 추가로 입회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이다.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APEC 산하기구인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회원국 간의 건축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건축사에게 현존하는 장애를 없애고 건축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APEC 건축사 제도의 기본 틀의 중심 기능은 참가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여건의 공통 요소를 이행하고 현재 자국의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으며, 등록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입증자료가 있는 APEC 건축사들의 등록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정된 등록 기준은 상호 국가간의 전문 건축사로서의 실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주재국은 자국의 특수한 실무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무적 측면을 고려 특별자격 여건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

APEC 건축사 제도의 추진 경과

일본과 호주, 홍콩 등의 발의로 2001년 호주에서 발족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추진위원회와 2차례의 임시위원회를 거쳐 지난 2005년 5월 동경에서의 제1회 중앙아시아회에서 12개국이 정회원국으로 등록하고, 2005년 9월 19일 업무를 개시했다. 한국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준비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왔으나 정부와 각 건축 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옵서버의 자격으로 지난 동경회의 때 건교부 사무관과 대한건축사협회 대표 2명이 참석하였다. 이미 WTO에 의해 우리의 시장은 상당 수준 개방되어 있고 건축시장 또한 타국에 비해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중국 등 APEC 회원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축사들이나 앞으로 진출을 꿈꾸는 건축사들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에 건설교통부와 각 단체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APEC 건축사 프로젝트 발족회의(Inaugural Meeting)

- '01. 9. 17~18, 호주 브리즈번, 10개국 참가
- 『APEC 건축사』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건축사 자격의 인증/인정절차등을 마련하기로 함.

□ 제1차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02. 6. 13~14, 호주 시드니, 10개국 참가
- 『APEC 건축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건축사 자격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제2차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02. 12. 12~13,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11개국 참가
- APEC 건축사 등록기준 협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협의.

□ 제3차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04. 2. 18~19, 대만 타이베이, 12개국 참가
- 2004년 7월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각국 이사추천(1인)하기로 함.
- APEC 사무국은 대만에서 맡기로 함.

□ 제4차 추진위원회 및 제1차 임시위원회 개최

- '04. 9. 22~23, 미국 하와이
- APEC 건축사 교육기준 결정 “4년 전일제 학업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
- APEC 건축사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 결정
- 중앙아시아 정책 및 지침 마련
- 심사위원회의 업무 결정

□ 제2차 임시위원회 및 제1차 중앙아시아 개최

- '05. 5. 30~6. 1, 일본 동경
- 14개국 64명 참석(정회원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캐나다, 멕시코-12개국, 옵서

버-한국, 싱가포르 2개국)

- 각국 심사위원회의 승인 관련

- APEC 건축사 등록 데이터베이스 및 심사위원회 웹사이트 운영지침 마련

- APEC 건축사 시행일 결정 : '05. 9. 19일

-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운영지침 마련

- 신규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

☞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요건을 준비하고 모든 회원국 3분의 2 이상 동의

☞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그간 읍저버로 참석한 점이 참작되어, 별도의 동의 절차없이 운영지침에 따른 준비사항을 마련하여 사무국에 보고만으로 가입 가능.

- 차기 회의는 '06. 5월 또는 6월중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기로 함.

□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관한 공청회

- '05. 9. 2(금), 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중강당

□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업무에 관한 위임

- 건설교통부로부터 APEC 건축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 등 모든 준비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가 위임 받음('05. 10. 7)

□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구성

-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임명으로 구성을 완료함(명단 별첨 참조)

□ 제1회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회의 개최

- '06. 2. 8. (수) 오전 8시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회의실

- 주요안건 : 정회원국 등록을 위한 내용 검토,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검토

APEC 건축사 등록의 기준 및 유지

APEC 건축사의 등록 기준은 각 회원국의 다른 문화 교육조건 등을 가급적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각 회원국의 심사위원회에서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교육, 면허 취득 전 최소 실무경력 그리고 면허취득후의 경력 등에 기준을 설정하였다.

1. 건축교육 : 건축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건축을 주된 요소로 하는 4년 이상의 대학 수준의 전일제 교육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국의 심사위원회에서 상기한 전일제 건축교육과 동등하다고 결정한 구조화된 경험학습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면허 취득 전 실무경력 기간의 총족 : 최소 통산 2년간의 소정의 기간 동안 본국이 정한 바에 따른 다각적인 건축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3. 건축사 등록 · 면허 취득후 실무경력 : APEC 건축사 등록 신청자는 본국에서 건축사로서 최초 등록 · 면허취득 후 최소 7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이 실무는 예비조사 및 설계개요의 작성, 설계, 계약문서의 작성 및 업무 관리의 실무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등록 신청자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계약관리 등의 분야에서 실무 책임을 맡은 건축사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 실무의 현재성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직전 2년간 상기한 실무 책임자로서의 실무를 지속하지 않은 건축사는 APEC 건축사 등록 대장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을 받거나 다른 소정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APEC 건축사의 등록은 각 국에서 정한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이 기간 동안 각 국의 심사위원회가 부과한 계속교육의 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국의 APEC 건축사 감독 기관은 APEC 건축사 등록 대장을 구축 관리 운영하여야하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책임을 갖는다.

대한민국 APEC 건축사 (감독)위원회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중앙이사회와 각 국의 APEC 건축사 감독위원회(monitoring committee)를 둔다. 중앙이사회는 APEC 건축사 기본 틀에 관한 제반 사항의 최종 책임을 지고, 각 국은 중앙이사회 회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후 자국 내에서 APEC 건축사의 기본 틀을 시행할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이사회는 주된 책무는 APEC 건축사 등록에 요구되는 수준과 기준을 결정하고 APEC 건축사 등록대장의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중앙이사회는 이 기준 및 운영절차의 APEC 권역 내 건축 실무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과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중앙이사회는 각 국의 감독위원회에 APEC 건축사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해 사후 재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건축사의 권역 내 이동성을 촉진하는 중앙이사회 역할의 홍보도 중요한 기능으로 맡는다.

참가국들은 윤번제로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간사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사국은 프로젝트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APEC 건축사 웹 사이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위원회의 주된 책무는 자국의 등록/면허를 가진 APEC 건축사의 등록을 위한 APEC 건축사 등록대장의 한 부분의 운영이다. 감독위원회는 중앙이사회가 채택한 기준을 APEC 건축사 등록 신청자가 준수하였

음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등록·면허 취득 후 실무경력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요구되는 수준의 지속적인 유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운영과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와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준비업무의 위임을 받았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계의 단합을 위해 건축 관련 모든 단체로부터 각 단체를 대표할 수 있고, APEC 건축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 내의 건축사를 심사하고 그 등록대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9명의 위원들을 추천받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함으로 건설교통부의 건축 기획팀장을 포함한 10인의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의 주요 업무추진 일정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는 3월초까지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간사국(대만)에 준비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제1회 중앙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회원국의 등록절차가 간소화 되도록 의결된 바대로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간사국은 준비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회람을 한 후 정회원국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후 적절한 홍보기간을 거쳐 국내건축사의 APEC 건축사의 신청을 4월에 받을 예정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일주기가 되는 올 9월19일에 대한민국 APEC 건축사의 등록대장의 등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언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이제 회원국 간의 최소 인증 기준의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이 기준에 인증을 원하는 쌍방(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정부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 기관간의 이해관계도 문제이지만 각 국의 추가 요구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하며, 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대내적으로는 등록원의 설립 등 국내의 건축사 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차별화된 건축사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 현실에 급하게 소용돌이치며 변화하고 국제화되어가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국제적인 제도로서 판단되며 이는 후에 ARCASIA나 UIA의 인증문제 협의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한국이 타국과의 동등한 위치 또는 유리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좋은 자질을 갖춘 많은 APEC 건축사들을 배출함으로써 국내 건축계에서의 우리 건축사들이 결코 국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나아가서는 APEC 권역내의 국가에서 실무를 하고자 하는 많은 국내건축사들이 APEC 건축사로 등록함으로써 더 쉽게 업역에 접근할 수 있고, 각 회원국들이 자국 내 실무를 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격을 APEC 건축사에 등재된 건축사로 제한했을 때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 참고

-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중앙이사회 www.apecarchitect.org
-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www.apec-architect.or.kr

별첨 1.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명단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송기덕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단체 합의	대한건축사협회 전임회장 아카시아 전임부회장
부위원장	김지덕	(주)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고문 아카시아 전임부회장
위원	이근창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아카시아 차기회장
“	박연심	건축사사무소 장원 대표		여성건축가협회 전임회장
“	이상준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이사, AIA
“	이상림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Hon. FAIA
“	조성중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대표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Hon. FAIA
“	유태용	(주)테제 건축사사무소 대표		한국건축가협회이사, AIA
“	이필훈	(주)태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새로운문화를 실천 하는 건축사협의회	새로운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부회장
“	김기석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사무국	신춘규	(주)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AIA
	송길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사무관	건설교통부	
	김성엽	대한건축사협회 기획팀 사원	건축사협회	

추 호 | Condolence

장기인 전임회장 별세

지난 2월 25일, 향년 91세로



우리협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장기인(張起仁) 전임회장이 지난 2월 25일 향년 91세로 타계했다.

故 장기인 전임회장은 평생동안 건축계에 몸담아 오면서 건축인 후학양성과 선도적인 학술 활동으로 건축계발전과 권익신장에 헌신해온 원로 건축사이다. 또한 그 누구보다 건축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 대한건축사협회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통건축문화재 복원사업에도 헌신하여 귀한 자료를 수집, 실측 정리하였고 광화문, 수원성(화성), 창경궁, 경희궁 등의 궁궐건축복원과 사찰건축, 호암미술관, 한국 의집 등 수많은 전통 건축 작품을 남겼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거행된 대한 건축사협회장(葬)에 준한 영결식에서는 우리협회 전임회장인 오운동 고문의 조사와 대한건축 학회 명예회장인 윤장섭 교수의 추도사가 있었고,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모여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의 정을 나누었다.

장지는 파주 헤이리 옆 동화경모공원이다.

● 주요약력

- 1916. 평안북도 고성출생
- 1935.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 졸업(현 중앙고등학교)
- 1938. 경성공업고등학교 졸업(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1939~1945. 조선공영주식회사 건축과 근무(건축과장)
- 1946~1950.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교사
- 1953. 문교부 과학 기술 용어제정 건축본과 위원
- 1959. 한양대 외 다수대학 출강
- 1962. 상공부 표준국 건축부분 전문위원
- 1965. 대한건축사자격 심사위원
- 1966. 서울특별시 문화상(건설부문)
- 1967.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967. 광화문 복원공사 지도 및 전문위원
- 1968.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제정 위원장
- 1971. 대한건축학회상
- 1973.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시공기술 연구위원
- 1973. 건설부 농촌주택 관리구조개선 자문위원
- 1981. 대한건축사협회상
- 1992. 한국건축문화대상
- 1994. 대통령 표창
- 2002. 대한건축학회특별상 - 소우저작상
- 1950~2000. 삼성건축사사무소 운영

〈弔 辭〉

삼가 故 장기인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애도의 정성을 영전에 드리나이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생전의 모습을 그리며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근대사의 한국건축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건축계에 남기신 그 업적과 발자취는 너무도 빛나고 너무도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 살아생전에 이 나라 건축계의 발전과 건축인의 권익신장 그리고 후진양성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신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존경이 깊었던 만큼 선생님의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돌이켜 보건데, 선생님의 일생은 신념과 봉사로 일관된 실로 자랑스러운 삶이었으며, 평생을 깨끗한 지조와 불의에 맞서 굴하지 않는 의리로 살으셨습니다.

또한, 늘 청빈하고 봉사적이셨던 선생님의 생활과 삶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었고 선생님의 헌신적인 희생에 힘입어 오늘의 건축계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선생님의 육신은 속세에서 타계하셨습니다만, 그 영혼과 정신은 우리 건축사 모두의 가슴과 우리나라 건축계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지금 건축계는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보여주신 고귀한 생전의 모습과 그 뜻을 받들어 우리 후배들은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야말로 천명을 다하시고 이제 휴식에 들으셨으니, 선생님의 찬연한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삶의 역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빛나는 생애였음을 후학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천국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끼치신 덕은 영원히 우리협회와 후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하남님 은총과 평화 안에 고이 잠드소서

장기인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오 운 동



〈추도사〉

장기인 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의 서거를 추도하며

장기인(張起仁) 회장님은 1916년 평안북도 고성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1938년 경성 고등공업학교(현재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한 다음에 오늘까지 계속하여 우리나라 건축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은 건축공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건축문화재 연구가로서,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오로지 우리나라의 건축기술 발전과 한국전통 건축문화의 탐구를 위하여 초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을 본인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46년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교사로 있었을 때 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기인 선배님은 교육자로서 후배 양성에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건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본인은 장기인 선배님이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학구적인 생활태도에 많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본인이 한국 및 동양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당시부터 은연중에 장기인 선배님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회상해 보게 됩니다. 전 한양대학교 총장 이해성 교수 및 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유희준 교수는 그 당시부터 장기인 선생님의 애제자로서 계속하여 지도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장기인 회장님은 삼성건축사사무소를 시작하면서 한국전통건축의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전통건축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여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양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양대, 고려대, 중앙대, 홍익대, 동국대 등에서 건축공학분야의 강사로 출강하여 후배 교육에 많은 힘을 써 왔었습니다.

1962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했을 때에는 최초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1967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1967년 말에는 건축공학분야 저술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71년에는 대한건축학회 기술상, 1981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초평상), 2002년에는 대한건축학회 특별상(소우 저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은 일제 강점기에 말살되다시피 한 건축용어를 발굴, 수집, 정리하여 외래어 투성이었던 건축술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적산학' 및 '한국건축대계전집' 등 20여종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의 건축실무분야와 건축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집'에서 장기인 회장님의 미수 축하연을 개최하였을 때는 우리 후배들이 함께 참석하여 선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했던 일이 었그제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 후에도 회장님은 꾸준히 지적활동을 계속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낙상과 실족으로 병고에 시달리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오늘 대한건축사협회장으로 거행되는 장기인 회장님의 영결식을 맞이하여, 회장님이 생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실하며 꾸준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운명하신 후에 장기인 회장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즐겁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안에 안기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고 있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함께 다시 만날 때까지 여생의 평안과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건축학회 명예회장 윤 장 섭

협회소식 kira news

제40회 정기총회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1일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KINTEX) 3층 그랜드볼룸 A홀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재적대의원 451명중 3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을 비롯한 7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되었다. 제1호 안인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5개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제7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에서는 강 신(주. 아키텐 건축사 사무소)회원이 대한건축사협회 감사로 선출되었고, 이사 7인에 대한 선출은 이철호 회장에게 위임되었다.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부결됨.
- 제2호의안 :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05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회관건립사업비 추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대여금 연체이자

등 면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감사(1인) : 강 신 회원(연임)

- 이사(7인) : 회장에게 위임

장기인 전회장 타계, 영결식 치러



우리협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기인 전임회장이 지난 2월 25일 향년 91세로 타계 했다.

영결식은 지난 28일 오전 9시 유가족과 협회 관계자,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협회장(葬)에 준하여 치러졌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로 시작하여 우리협회 전임회장인 오운동 고문의 조사와 대한건축학회 명예회장이자 학술원 회원인 윤장섭 교수의 추도사가 이어졌고, 조문객들의 헌화를 끝으로 발인되었다. 상주는 장남 순용(삼성건축사사무소 대표)씨와 차남 덕용, 삼남 태용, 부인 백학실, 사위 최영집(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등이며, 장자는 파주의 '동화경모공원'이다.

故 장기인 회장은 1938년 경성고등공업학교(현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우리협회와 조선건축기술단(현 대한건축학회)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건축용어 제정위원회 설치로 건축용어 정리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등과 교과서는 물론 「한국건축대계」 시리즈 저술 등 저술활동을 활발히 한바 있다. 이러한 공로로 서울시 문화상,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초평상), 대한건축학회 특별상(저작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90쪽 참조)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한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 2일 13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물은 한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며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것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설주의의 국가정책이 전개되어 건축문화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 고양과 훌륭한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건축설계 경쟁력의 강화와 육성을 위해 건축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 조원용 건축사의 개회로 시작하여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내빈으로 국회 박희태 부의장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호웅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소개되었다. 이어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인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기 있는 이호웅 건교부위원장과 같이 힘을 합쳐 어느 한 국회의원의 일이 아닌 우리 국회에서 우리 건축사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과 그리시는 그림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우리나라 건축에 새로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의 임무를 다 해 볼까 한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은 "이 법안에는 국민들의 문화적 삶에 대한 실천 의지와 목표, 이념을 바탕으로 독자적 문화창달

의 문제와 세계시장에서의 문화적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전략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건축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과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에 건축문화가 살아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박희태 국회 부의장은 "이 토론회 이후로 우리도 아름다운 건축으로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멋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러한 건축이 우리나라에 가득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고,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계적으로 12대 경제 강국인 만큼 이제 우리도 후손들에게 가치 있는 건축문화를 남겨 주어야 한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토론회에서 정재욱(단국대)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과 김광현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서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건축문화진흥법의 의의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따라 토론자 김선아 한국건축가협회 편찬위원과 류제홍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부소장, 이성원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영철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이재홍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이필훈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부회장,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이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75쪽 참조)

이사회

■ 제2회 이사회

2006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2005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회관건립사업비 추가 승인의 건, 회관주차관제시설공사 시행에 관한 건,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제40

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자재인증업무규정 제정에 관한 건, 2006 건설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공로 회원 및 직원 표창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감리제도관련 의원입법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안)중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제40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개정안 제17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
 - 제2항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삭제
 - ▷ 개정안 제19조(임원)
 - 이사 : 17인 이내 → 21인 이내(건축사회 회장 3인 포함)
 - ▷ 개정안 제27조(의결사항)
 - 제8호 : 현행유지
- 제2호의안 : 2005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제40회 정기총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회관건립사업비 추가 승인의 건
 - 회관 건립 사업비 중 추가 소요 사업비 (1,711,941천원)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표면조정 설계변경 추진 사업비는 설계비를 감액조정(119,240천원→86,900천원)하여 제40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회관건립사업비 추가분 : 2,710,741천원(부가세 포함)
 - 추가 소요사업비(추가공사비, 회관시설비품구입비, 제세공과금) - 1,711,941천원
 - 지표면조정 설계변경추진 사업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998,800천원
 - 신축회관의 임대 및 수지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회관건립 총사업비(약 130억)에 대한 자금 상환계획을 총회자료에 명시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회관주차관제시설공사 시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공사금액 : 일금 34,800,000원(부가세 별도)
- ▷ 공사기간 : 계약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단, 화관 공사준공일까지)
- ▷ 시 행 자 : (주)코리아파킹시스템
- 제5호의안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제40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국제사업비
 - 아카시아 임원회의 참가경비 : 감 200만원
 - 기타 국제교류비(계수조정에 따라) : 증 200만원
- 제6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60개월이상)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40회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제40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제40회 정기총회 의제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함.
-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 제2호의안 :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추인의 건
- ▷ 제3호의안 : 2005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 제4호의안 : 회관건립사업비 추가 승인의 건
- ▷ 제5호의안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 제6호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대여금 연체이자 등 면제 승인의 건
- ▷ 제7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제8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이사회에 보고된 추대회원 대상자(24명)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보고되지 못한 서울건축사회 소속 추대회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제40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 회비 미납자는 회비를 완납하는 시점부

- 터 추대
- ▷ 추대회원으로 보고된 총회 당월분까지의 정회원 회비는 납부하고, 그 이후는 면제
- 제9호의안 : 자재인증업무규정 제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 2006 건설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11호의안 : 공로 회원 및 직원 표창 승인의 건
 - 제40회 정기총회시 아래와 같이 표창을 수여하기로 함.
- ▷ 공로회원(11인), 우수직원(11인 : 인천건축사회 사무국장 포함)

▲ 협의사항

- 제1호 : 감리제도관련 의원입법에 관한 건
 - 건축법 공사감리제도 관련 의원입법에 관한 사항은 한명수 이사와 전영철 법제위원장이 적극 대처하도록 위임함.

▲ 기타사항

- 서울건축사회 감사보고서에 대한 해명 요구문서를 제2회 임시이사회('06.2.2)에서 합의한 대로 조속히 발송하도록 재촉구함.
- 향후 정기이사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제3회 임시이사회

2006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2월 20일 오후 3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공정위 관련 피고측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제40회 정기총회 임원업무 분담에 관한 건과 건축정책연구원 추진방안에 관한 건, 건축문화진흥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추진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공정위 관련 피고측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건
 - 부산건축사회 등 9개 건축사회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소송에 따른 피고측 소송비용 부담액(4,215,130원)을 본협회에서 지급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제40회 정기총회 임원업무 분담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정책연구원 추진방안에 관한 건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기획단이 요청한 건축정책연구원 설립추진방안중 명칭은 “건축문화정책연구원”으로 하고, 추진위원(2인)에 대한 추천 건은 4인으로 증원해주도록 요청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문화진흥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추진에 관한 건
 - 건축문화진흥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되, 국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함

업무구분	주요내용	담당임원
총회관련	1. 건축사한정 감독에 관한 사항	이영수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장기종
	3. 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정정치 (회관건립위원장)
	4. 회관 지분에 관한 사항	장기종
	5.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이길웅 강성의 (예산소위원장)
	6. 경기도건축사회 대여금 연체이자 등 면제에 관한 사항	조성원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건축제도관련	7. 건축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한명수
	8. 건축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한명수
국제관련	9. UIA, ARCA, FKA, APEC 등에 관한 사항	이영수
정부위탁업무	10. 건축사 업무실적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명옥
	11.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명옥
	12. 건축사시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영수
	13. 건축사신문 발간에 관한 사항	장양순
기타	14. 회장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	이양원

위원회 회의

■ 제2회 법제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2월 9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건,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건
 -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0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80조의2, 제86조 제2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과 위원들이 제출(2/15)하는 내용을 협회의 의견으로 정리하여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에 관한 건
 - 건교부 및 관련 단체와 협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며, 공청회 및 토론회에 각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함

■ 제1회 정보관리위원회

제1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정보관리위원회” 추진방향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정보관리위원회” 추진방향에 관한 건
 - 2005. 12. 14(수)부터 2005. 12. 31(토)까지 총 18일간 시행한 “CAD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함.

■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 사무추진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선거 사무추진에 관한 건
 - 대의원 451명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및 인장날인을 확인하고 봉인
 - ▷ 연설시간은 관례에 따라 7분으로 정함
 - ▷ 무효투표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 투표용지는 대의원명찰에 표기한 후 교부하기로 함

■ 제1차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제1차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2월 8일 오전 8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Survey Application Form 작성에 관한 건,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운영매뉴얼에 관한 건, APEC건축사위원회 웹사이트 제작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위원회의 명칭을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변경하기로 함.
 - 구성위원중 부위원장 1인(김지덕)과 4인의 실무위원회 위원(신준규, 유태용, 이상림, 이필환)을 두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APEC건축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APEC건축사제도가 정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 Survey Application Form 작성에 관한 건

- Survey Application Form 작성에 관하여 논의함.

- 제3호 :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운영매뉴얼에 관한 건
 - 운영매뉴얼의 위원회 운영관련 및 등록자격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함.
- 제4호 : APEC건축사위원회 웹사이트 제작에 관한 건
 - 2006. 2. 17일까지 한글과 영문웹사이트 시안을 제작 완료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기로 함.

■ 제2차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제2차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서울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회원국 등록요건 검토에 관한 건, 대한민국 심사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관련 안건 검토에 관한 건, 제3회 운영예산 및 회비 검토의 건, 제2차 APEC건축사 중앙이사회 참석관련 토의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회원국 등록요건 검토에 관한 건
 - Survey Application Form 작성 및 검토
 - 원회 명부
 - ▷ 대한민국 APEC건축사위원회 명부(영문)를 수정함.
 - 웹사이트 검토
- 제2호 : 대한민국 심사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관련 안건 검토에 관한 건
 - 운영매뉴얼 중 위원회 구성 및 계속교육관련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하기로 함.
- 제3호 : 제3회 운영예산 및 회비 검토
 - 최초등록신청자를 500명과 300명, 두 가지 안으로 각각 예산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시에 논의하기로 함.
- 등록신청비 외에 정부 예산 지원 및 각 단체 후원금, 협찬 등 수입에 대한 대안을 강

구하기로 함.

- 제4호 : 제2차 APEC건축사 중앙이사회 참석 관련 토의
- '06. 5. 22~24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제2차 APEC건축사 중앙이사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이 참석하기로 함.

▲ 기타사항

- APEC 건축사 등록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협회지 및 단체 홈페이지에 홍보하기로 하고, APEC건축사위원회의 웹페이지를 링크하기로 함.
- 향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함.
- 3월초 : APEC건축사 중앙이사회에 보고 및 중앙이사회 등록신청
- 3월~4월 : APEC건축사 신청에 관한 홍보
- 4월초 : APEC건축사 등록신청 접수(1차 신청 접수, 한달간)
- 5월중순 : 제2차 APEC건축사 중앙이사회 참석, 현황보고
- 6월초 : APEC건축사 등록신청 접수(2차 신청 접수, 한달간)
- 8월말 : 서류 심사 완료
- 9월 19일 : Launching Ceremony (AAP 1주기 기념일)

우리협회 2006경향하우징페어 홍보 전시 참여

'건축, 건축사, 협회' 홍보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 한국 국제 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된 바 있는 건축 자재·인테리어 전시회인 '2006 경향하우징페어'에 우리협회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홍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경향하우징페어에 협찬사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협회는 전시부스를 통해 홍보전시회를 열어 하우징페어 기간 동안 다년간 55만명의 관람객에게 '건축, 건축사, 협회'를 홍보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건축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홍보전시회에서는 건축상당위원을 위촉하여 관람객에게 '무료건축상담'을 진행하여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였고 아울러 건축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건축사에 대한 친밀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 우리협회는 이날 컨텍스 3층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뒤 450여명의 건축사들이 홍보전시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격려하기도 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관/(042)841-5725 · 청양 지역회관/(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9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8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6년 2월 28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06. 2월중 진행된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는 2월초순경 토목가시설 스트럿 1, 2, 3단의 해체와 동시에 지하 1층 기둥, 벽체 철근배근 및 형틀조립 작업과 지상 1층 바닥 철근배근 및 형틀조립 작업이 진행되었다.

2월중순경에는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주차 진입램프 상부 복공판 부위를 해체하고, 지상1층 바닥슬라브 및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지상 1층 복공판 해체부위의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배근 및 형틀 조

립작업과 북측부 다목적실 골조공사를 위한 시스템서포트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06년 3월중순경 지상 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가 타설될 예정이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6. 2월말 현재 40.14%(계획 64.7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6. 2. 3일 개최된 제2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공사 변경내역과 공사기한연기 및 토목가시설공사 추가비용과 관련한 조정요청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자와 별도 협의키로 하고, 시공자와 구체적인 금액조정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정기총회에 상정할 회관건립사업비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와

지표면조정 추진사업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상정키로 하고,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관건립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상한계획을 총회 자료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06. 2. 16일 개최된 제3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지표면조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협의하고, '06. 2. 17일 지표면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 의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문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용역 의뢰한 회관 임대 및 수지분석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협회 사용층에 대해서는 임대수익성 증대 및 투입비 상환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고층부를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네트워크공정표에 대해서는 회관건립위원회에 위임하여 공중별 공기단축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였다.



지상1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완료



다목적실 시스템거푸집 설치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콘크리트타설



공사 전경



투시도

2006 한국건축가협회 변용 회장 취임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2006 한국건축가협회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한국건축가협회 임원진과 종진 건축사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던 윤석우(종합건축) 전임회장의 이임식과 앞으로 2년 동안 한국건축가협회를 이끌어갈 신임 변용 회장과 2005년 11월 48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김창수 수석부회장(삼우건축), 박항섭 연구부회장(경원대 건축공학과), 이상림 사업부회장(공간그룹), 조성중 국제부회장(일건건축) 등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 문의 : 02-744-8050

홍익대 건축대학 초대 학장에 '장 미셸 빌모트' 취임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사 장 미셸 빌모트(Jean Michel Wilmotte)가 지난 3월 6일 오후 3시 30분 홍익대학교 와우관 2층 세미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초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2006학년도부터 건축교육 인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현 상황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자 건축과 실내건축을

로 구성된 건축대학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초대 학장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사를 초빙하게 되었다.

빌모트 학장은 1948년생으로 1973년 에콜 카몽도(Ecole Camondo)에서 수학하고 1975년 인테리어 디자인사무소 거버너(Governer) 설립 이후 1986년 도쿄에 지사를 세웠으며, 같은 해 그가 디자인 하는 가구 회사 아카데미(Academy)를 설립하였다. 1999년 회사는 Wilmotte & Associates로 재조직되어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루브르박물관 내부설계, 파리 상제리제 거리풍경 디자인, 레바논 쌍둥이 빌딩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평창동에 위치한 '가나 아트센터'와 '인사아트센터'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장흥에 문화단지 가나아트센터 등 여러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 문의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이영수 교수
02-320~1482



판교지구 공동주택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지난 2월 26일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한 '판교지구 공동주택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작으로 페카 헬린(Pekka Helin/Helin & Co Architects/핀란드)과 야마모토 리켄(Riken Yamamoto/Riken Yamamoto & Field Shop/일본), 마크 맥(Mark Mack/MACK Architect(s)/미국) 등 3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페카 헬린



야마모토 리켄



마크 맥

이번 공모전은 대한주택공사가 남판교지구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주택 공급의 최적으로서 계획적 개발의 실현 및 시민의식의 향상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지구내 양호한 자연환경 및 여건을 지닌 저층 공동주택 부지에서 기존의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저밀도단지 개발 모델의 필요성과 국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한국적 주거 문화를 창출코자 판교신도시 내 저층 연립주택 단지 3개블록을 대상으로 국제설계경기를 개최했다.

대상지역은 판교지구의 서쪽,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국지도 57호선 사이에 걸쳐진 대지이며, B5-1 지역은 페카 헬린과 (주)아이아크 건축사무소가, B5-2 지역은 야마모토 리켄과 (주)건축사무소 건원이, B5-3 지역은 마크 맥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이 각각의 파트너이다. 아울러 지명 건축사로는 벤 반 버클, 제임스 데 스테파노, 크리스틴 할리, 페카 헬린, 위니마스·야곱 반 리스·나탈리 드 브리스

(MVRDV), 마크 맥, 마이클 지스코비츠·칼라 코발스키, 아마모토 리켄, 켄 양 등 외국 건축사 9명으로 각각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참여 하였으나 제임스 데 스테파노는 응모를 포기한 바 있다.

제출된 작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지형의 등고선을 따라 배치한 선형배치이고, 두 번째는 대상지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북측에서 남측으로 계단식으로 배치한 유형이며, 세 번째는 대상지 여러 곳에 클러스터를 배치한 유형이다.

심사위원인 조성중(심사위원장), 심우갑, 이강업, 고든 총(Gordon Chong), 폴 하이아트(Paul Hyett)와 예비심사위원 민선주 교수는 “당선작들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징적이고 독특한 접근방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당선작들은 기본설계의 자세한 설계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설계경기에서 참여자들에게 허락한 설계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선된 계획안들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 특히 단위세대평면은 한국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지상과 직접 연결된 모든 테라스 하우스가 1층으로 간주되지만 장애자를 위한 접근성이 모든 단위세대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Mark Mack과 Pekka Helin의 계획안에서는 각 단위세대의 정체성 및 인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심사평을 남겼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8개작품은 작품집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시상식과 작품전시회도 개최된다.

- 전시명 : 판교지구 운중블록 공동주택 국제 설계경기 작품전시회
- 개막식 및 시상식 : 2006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 전시기간 : 2006년 3월 20일(월)~26일(일)
- 전시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 1전시관(한국 디자인진흥원)
- 전시문의 : 02-744-8050

2006 대한민국 소방방재 안전엑스포

국내 소방방재 안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Safe Korea'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2006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Fire & Safety EXPO KOREA 2006)'가 오는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엑스코(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다.

소방방재청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5개국 200여 업체가 약 20,000여종의 최첨단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여 최신 시장정보와 흐름을 선보이게 되며, 2만 5천명의 국내 소방방재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엑스포를 찾게 되고 특히 구매담당 공무원, 안전방화관리자, 건설설비관계자, 화학정유관계자 등 구매력이 높고 업체가 원하는 바이어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참가업체와 함께 비즈니스의 장을 펼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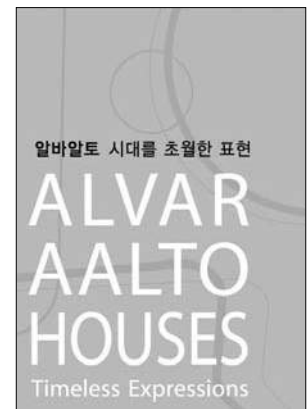
• 전시회개요

- 개최기간 : 2006. 4. 26(수) ~ 29(토)
- 개최장소 : 대구시 대구종합유통단지 EXCO 실내외 전시장
- 전시규모 : 15개국 200업체 800부스 29,616㎡(실내 11,616㎡ 야외 18,000㎡)
- 예상관객 : 40개국 70,000명(해외 700명 포함)

• 동시개최행사

- 국제행사 및 세미나 : 국제소방방재 심포지엄, 국제학술논문발표회
- 학술대회 및 설명회 : 소방학술 심포지엄 개최, 방화관리자 실무 및 강습 교육, 응급구조사보수교육 실시, 신기술·신제품 발표 및 시연회, 자연재해의 저감 방안과 소방방재 시스템 학술 세미나, 소방제품 조달설명회개최
- 119체험 : 응급처치 체험
- 기타행사 : 개막행사, 환영만찬
- 문의 : 사무국 053-601-5370

알바 알토, 시대를 초월한 표현



핀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사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휴고 알바 엔릭 알토(Hugo Alvar Henrik Aalto : 1898~1976)의 작품 80여 점이 오는 3월 16일부터 한 달 간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KDC)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핀란드 알바알토박물관이 기획, 진행 중인 아시아 순회전의 일환으로 2월 1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된 후 한국으로 이동 전시 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알바 알토의 1924~1972년까지의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 그가 추구한 '공간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잘 보여주는 전시이다. 알토가 디자인 한 가구, 유리, 조명상품 및 16개의 단독주택과 관련된 빌딩사진, 실물, 축소모델, 등 약 80점의 전시품이 선보일 예정이며, 알바 알토의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 전시개요

- 전시명 : 알바 알토, 시대를 초월한 표현 (Alvar Aalto Houses, Timeless Expressions)
- 전시기간 : 2006. 3. 16(목) ~ 4. 16(일) 10:00~18:00 (*토, 일요일 관람 가능)
- 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전시관(경기도 분당구 아람동)
- 주최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한 핀란드대사관, 알바알토재단 등
- 문의 : 031-780-2249, <http://www.designdb.com/kidp/>

2006베니스 건축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조성룡 건축사' 선정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2006년 제10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되며, '메타시티(Meta-City)'를 주제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도시와 건축을 다룰 예정이다. 비엔날레 총감독은 LSE(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도시계획과 교수인 리처드 버데트(Richard Burdett)씨이다.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573

UIA 주최 'Celebration of Cities2' 국제공모전 개최

'Celebration of Cities2-Toward a New Urban Democracy'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이 UIA(국제건축가연맹)의 주최로 개최된다. 이 공모전은 도시의 취약한 환경의 개선과 건축사의 역량을 보여 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전의 작품 접수는 한국건축가협회와 UIA 공모전 운영위원회를 통해 1차 국내심사에서 선발된 작품들이 2차로 UIA에 출품된다.

- 등록 및 접수 : 2006년 4월 19일~4월 27일
- 주최 : UIA(국제건축가연맹)
- 문의 : www.uia-architectes.org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

- 조사기준 및 대상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05.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05. 1. 1~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준비조사 : 2006. 4. 6~4. 7(2일간)
 - 본 조사 : 2006. 4. 10~4. 29(20일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8조에 의한 지정 통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제10137호
 - 서비스업총조사 : 제10108호
- 조사대상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전 산업부문의 모든 사업체
 - 서비스업총조사 : 서비스산업부문의 10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구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
 - ▷ 인터넷 조사 방식도 병행
- 조사항목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공동항목
 - ▷ 사업체명, 창설년월 및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등 9개 항목
 - 서비스업총조사 일반항목
 - ▷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사업실적 등 3개 항목
 - 서비스업총조사 특성항목
 - ▷ 상품매입처·판매처별 구성비, 체인점 가입여부, 연구·기술직종사자 현황 등 10개 항목



- 기업체단위 항목
 - ▷ 자본금·출자금, 유·무형 자산 등 6개 항목
- 조사결과 발표
 - 잠정결과 : 2006년 12월
 - 최종결과 : 2007년 3월

유럽 현대 작가 작품전

오는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성화랑(대표 한영희)에서는 유럽 현대 작가 작품전이 개최된다. 작품은 유화와 판화로서 약 20점이다.

- 전시장가
 - 모리스 드 브라망크(Maurice de VLAMINCK/프랑스)
 - 베르나드 까뮈랑(Bernard CATHELIN/프랑스)
 - 삐에르 본공팡(Pierre BONCOMPAIN/프랑스)
 - 뽀 아이즈피리(Paul AIZPURI/프랑스)
 - 우강 바불렌(Eugene BABOULENE/프랑스)
 - 앙드레 브라질리에(Andre BRASILIER/프랑스)
 - 조안 미로(Joan Miro/스페인)
 - 질 고리티(Gilles GORITI/프랑스)
- 전시기간 : 2006년 4월 3일 (월) ~ 2006년 4월 28 (금)
- 관람시간 : AM 10:00 ~ PM 6:30(매주 일요일, 공휴일 휴관)
- 문의 : 02-738-3630



모리스 드 브라망크

건축 소프트웨어 업계동향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입한 기업이 시장 진출을 늦게 한 기업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 예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예를 들 수 있다. 펩시콜라는 콜라 시장에 늦게 진입한 2위 기업으로써 많은 마케팅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건교부가 정보통신부와 손을 잡고 미래형 첨단도시의 개념으로 유비쿼터스 시티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오랜만에 뒷북을 치던 모습에서 벗어나 선도적 부처로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행자부가 뒤 늦게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

유비쿼터스 시티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 이는 지속적으로 IT 기술이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IT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여지껏의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모방 단계를 벗어나 새로이 만들어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회이자 운명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 도시 등 새로운 도시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비쿼터스 시티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이상적 도시 구축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 도시에 새로운 개념이 접목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자전거 도로의 건설 추진의 경우일 것이다. 기존 도시에 자전거 도로의 건설은 기존 도로의 시설물들과의 자리 싸움에 밀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과 별도로 U지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유비쿼터스 시티와 관련하여 각종 정보전략계획을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 발주하고자 하고 있다. 과연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이 물리적으로도 확실하며 국민의 마음에 먼저 자리잡은 상황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건교부 및 정보통신부의 U시티 구축

U시티 건설을 위하여 2006년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력지원 및 수립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2007년부터 'U시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물리적인 구축 이전에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규로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을 포함한 최소 6가지 이상의 도시개발법이 있으며, 12개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법들이 있다. 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법의 개정보다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할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다.

부산 경남 U 시티 사업 가속도

부산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들은 올 해를 U시티 및 비즈니스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조직정비 및 추진체 구축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U시티 사업을 시장직속 기획관실로 두고 U포트, U트래픽, U컨벤션, U헬스의 분야로 나누어 전담반을 구성하였다. 경상남도는 '경남 유비쿼터스 포럼'을 발족하였다. 이 포럼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U시티 사업에 대한 IT 업계의 관심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업계의 대표적 기업들은 최근 U시티 전담팀을 만들고 조직정비에 들어 갔다. 이 사업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시장뿐만 아니라 구축 후 운영과 유지보수의 시장이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 SDS는 U시티 사업팀을 신설하였다. 과거 GIS, UIS, IBS, ITS 등의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종합한 유비쿼터스 기술로의 변형을 추구하고 있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U시티 위원회를 발족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삼성SDS와 함께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에버랜드, 삼성네트웍스 등 계열 9개사가 모여 '삼성U시티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광고 U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LG CNS는 연초 U시티 추진팀을 구성하였다. 13인으로 구성된 이 팀은 기술연구부문에 배치 운영된다. U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2조원대 기업 매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LG

CNS는 송도 신도시를 위한 송도 U라이프 유한 회사 설립을 통하여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SK C&C는 SI 사업부문 아래 82명의 인원으로서 U비즈테크스프스 팀을 구성하였다. 통신기술 연구소를 U비즈연구소로 확대개편하여 31명이 참가하였으며, 사업팀과 솔루션 서비스사업팀을 두었다. SK C&C는 유비쿼터스 전반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사업화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에 U호스피털 구축

조선대 병원은 무선랜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완료하였다. 노트북과 PDA 등을 이용한 입원 및 외래환자 정보 및 진료기록, 영상 이미지, 그래픽 등의 검색이 가능한 의료 서비스 환경 구축을 KT전남본부와 함께 구축하여 정상 운영에 들어 갔다.

홈 네트워크

비디오폰 교체 시장으로의 진출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홈 네트워크에 대한 경쟁 과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체는 기존 아파트 중 5년 이상 된 비디오폰을 홈 네트워크로 교체하는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연간 40만 가구의 제한적인 시장에 그치고 있으나 홈 네트워크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공급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통신기술, 현대통신, 코맥스, 코콤 등 업체는 시장 규모를 최소 100만가구로 산정하고 기존 아파트의 비디오폰 단말기의 홈 네트워크로의 업그레이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고성능 홈 네트워크 중요성 인식

고층 아파트 및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립은 안전의 문제가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아파트 등급제의 영향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성능의 홈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화재 시 비상등뿐만 아니라 유도등까지 발생시키는 복합형 유도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화재 감지기에 개별 인식부

호를 부여하여 화재 발생시 정확한 발화지점을 알려주는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홈 네트워크와 연계한 공조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욕실배기, 가스밸브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으며, 세대별 독립공조방식을 채택하여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다. 이 밖에 외부에서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조 시스템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안설비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보안설비의 경우 중앙의 관제 시스템에서만 감시가 가능하나 최근 홈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거주자도 가정에서 외부 및 주차장 등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인증제 확대 시행

2006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가 신축 아파트에 이어 업무 시설 및 오피스텔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1, 2월의 38건에 비하여 약 2배인 60건이 인증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이외의 신축 건물의 경우 인증에 대한 신청이 매우 저조하여 확대 시행에 따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인증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의 불명확성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제도적 확대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홈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네트워크 인증제'를 서두르고 있다. 즉, 가정 내 통신 인프라 인증에 대한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인증 실적 부진한 '지능형 아파트 인증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 4년이 지났으나 인증건수가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의 논란을 가져왔다.

전자태그(RFID)

U시티 및 홈 네트워크의 요소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신청한 차량은 RFID 스티커를 발부 받는다. 스티커 부착 차량이 비 준수 시, 정보통신망과 연동이 되어 e메일이나 휴대

폰으로 통보가 된다.

인텔사는 RFID를 위한 컴퓨터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RFID를 이용한 AEC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설물의 개발 부분이나 소유자를 위한 운영부분에서의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RFID는 건물의 부재나 시공 도구에 부착하여 정확한 실시간 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재와 도구를 관리하고 인건비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Walmart와 같은 소매점들은 이미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시공과 관련하여, RFID는 석유시추 회사들이 해상 시추선에서의 재고관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공분야에서 RFID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RFID를 이용하여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사용 매뉴얼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FIATECH사는 최근 열린 'Technology for Construction' 대회에서 RFID 기술의 미국 워싱턴 방문객 센터에서의 활용 데모를 보여주었다. RFID를 시공 과정에서 부재의 응력을 무선으로 감지하는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가 일어날 경우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또한 RFID는 건물이 완성된 후 장비와 가구, 조명, 냉 난방 등 시설을 작동하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술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건축 소프트웨어 업계소식

CAD

최근 미국에서 열린 'Technology for Construction' 대회 포럼의 중요한 이슈는 2005년과 같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3차원 CAD)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BIM으로의 변화가 십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미진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업계가 BIM으로 변화하기 위하여는 최소 6~7년을 걸릴 예정이라는 예측이다. 적용

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는 BIM의 사용에 따른 이득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며, AEC 산업에서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개방성과 호환성이 보다 증진되어야 한다. BIM은 경비절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에너지 분석, 시방서의 자동화된 작성 그리고 종이 기반 작업의 축소 등의 용도와 연관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BIM은 정보가 디자인 단계를 넘어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건축주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다.

백텔사의 벤틀리사와의 계약 체결

벤틀리사는 다국적 기업인 백텔사와 국제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백텔사가 분야에 걸쳐 디자인, 엔지니어링, 관리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백텔사는 대규모의 높은 난이도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벤틀리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미국 워싱턴의 Hanford 방사선 폐기물 처리 플랜트와 영국의 Channel 기차 터널 연결공사와 같은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에서의 두 회사의 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CAD 소프트웨어 BMT 결과 발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KIPA)은 국내 판매 CAD 소프트웨어에 대한 BMT(Bench Marking Test)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상은 Autodesk Korea의 AutoCAD 2006과 CADian 2006의 성능을 기능별, 성능별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기능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에 있어서는 건축과 엔지니어링 설계에 사용되는 10M 이하 용량의 파일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나타냈다. 반면 50M 이상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 도로설계 및 GIS 부분에서는 AutoCAD 제품이 CADian 제품보다 다소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캐달로그코리아, 객체지향 캐드 '아키라인' 출시

캐달로그 코리아는 2월부터 객체지향 캐드 '아키라인(ARCHline XP)'을 출시하였다. 아

키라인은 평면계획을 수행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3차원 형태로 모델로 완성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투시도를 만들 수 있다. AutoCAD SketchUp, 3ds Max, Photoshop, Cinema 4D와 호환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조분석, 응적울 계산, 전면부의 면적계산, 화면상의 자재별 단가표시 등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리 시스템 발주

한국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효율적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였다. 이 구축사업은 SK C&C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도시 규모의 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 토지공사 및 시공사 등 다양한 참여기관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3차원 시각정보를 통해 공정의 흐름을 파악하며, 프로젝트 기획, 설계, 시공 및 관리 등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rchiCAD와 SAO2000의 통합 정책 발표

Graphisoft사는 최근 이 회사 제품인 ArchiCAD와 구조해석프로그램으로 유명한 SAP2000과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정책을 발표하였다. 국제 표준인 IFC 2x2를 통하여 SAP2000에서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구조 디자인과 분석을 ArchiCAD로 불러 들여와 건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조 분야에서는 이를 이용할 경우 구조물 자체의 해석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미적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의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구조 디자인을 위한 AdvanceSteel 6.1 발표

구조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디테일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 CADs사는 최근 3차원 철강구조 디자인을 위한 AdvanceSteel 6.1을 발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AutoCAD의 3자 프로그램으로써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 구조 모델링을 포함한 다양한 철강구조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시설관리

시설관리 분야는 현재 시설물의 공간, 자산과 사람의 관리가 주된 대상이다. 이러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기업데이터 통합, 보안,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문제까지 연관시키고 있다. 시설관리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고가의 고기능 제품과 저기능 저가의 제품이 공존한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Archibus가 있으며, 최근 mPower Integrator의 개발자인 mPower 사는 최근 컴퓨터 기반 시설관리 분야로의 진출을 하고 있다.



AdvanceSteel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는 철강구조물의 예

기타

NHN 통계정보 제공

NHN은 통계청이 보유한 1억 종의 각종 통계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네이버 통계' (<http://stat.naver.com>)를 선보였다. '네이버 통계'는 인구, 가구, 주택 물가, 가계 경제, 산업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 :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NHN이 제공하는 통계정보

2006년 건축허가 현황(1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월)			누계 (1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8,782	11,299	28.7%	8,782	11,299	28.7%
	연면적	8,401,932	8,621,922	2.6%	8,401,932	8,621,922	2.6%
주거용	동 수	2,100	3,710	76.7%	2,100	3,710	76.7%
	연면적	4,056,349	4,053,117	-0.1%	4,056,349	4,053,117	-0.1%
상업용	동 수	2,527	3,088	22.2%	2,527	3,088	22.2%
	연면적	1,555,335	1,744,802	12.2%	1,555,335	1,744,802	12.2%
공업용	동 수	1,627	1,740	6.9%	1,627	1,740	6.9%
	연면적	980,325	1,141,358	16.4%	980,325	1,141,358	16.4%
문교및 사회용	동 수	786	843	7.3%	786	843	7.3%
	연면적	638,346	752,173	17.8%	638,346	752,173	17.8%
기 타	동 수	1,742	1,918	10.1%	1,742	1,918	10.1%
	연면적	1,171,577	930,472	-20.6%	1,171,577	930,472	-20.6%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월)			누계 (1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8,782	11,299	28.7%	8,782	11,299	28.7%
	연면적	8,401,932	8,621,922	2.6%	8,401,932	8,621,922	2.6%
철 근 철골조	동 수	7,815	10,337	32.3%	7,815	10,337	32.3%
	연면적	8,323,708	8,540,919	2.6%	8,323,708	8,540,919	2.6%
조적조	동 수	822	745	-9.4%	822	745	-9.4%
	연면적	60,782	54,210	-10.8%	60,782	54,210	-10.8%
목 조	동 수	145	217	49.7%	145	217	49.7%
	연면적	17,442	26,793	53.6%	17,442	26,793	53.6%
기 타	동 수	0	0	0%	-	0	0%
	연면적	0	0	0%	-	0	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월)			누계 (1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8,782	11,299	28.7%	8,782	11,299	28.7%
	연면적	8,401,932	8,621,922	2.6%	8,401,932	8,621,922	2.6%
수도권	동 수	3,200	3,831	19.7%	3,200	3,831	19.7%
	연면적	4,418,246	3,889,254	-12.0%	4,418,246	3,889,254	-12.0%
서 울	동 수	473	964	103.8%	473	964	103.8%
	연면적	699,224	917,467	31.2%	699,224	917,467	31.2%
인 천	동 수	269	246	-8.6%	269	246	-8.6%
	연면적	302,213	326,230	7.9%	302,213	326,230	7.9%
경기도	동 수	2,458	2,621	6.6%	2,458	2,621	6.6%
	연면적	3,416,809	2,645,557	-22.6%	3,416,809	2,645,557	-22.6%
지 방	동 수	5,582	7,468	33.8%	5,582	7,468	33.8%
	연면적	3,983,686	4,732,668	18.8%	3,983,686	4,732,668	18.8%
부 산	동 수	344	458	33.1%	344	458	33.1%
	연면적	455,966	915,462	100.8%	455,966	915,462	100.8%
대 구	동 수	282	525	86.2%	282	525	86.2%
	연면적	345,141	337,156	-2.3%	345,141	337,156	-2.3%
광 주	동 수	293	446	52.2%	293	446	52.2%
	연면적	399,604	338,537	-15.3%	399,604	338,537	-15.3%
대 전	동 수	169	316	87.0%	169	316	87.0%
	연면적	140,868	232,031	64.7%	140,868	232,031	64.7%
울 산	동 수	249	325	30.5%	249	325	30.5%
	연면적	118,900	198,620	67.0%	118,900	198,620	67.0%
강 원	동 수	362	437	20.7%	362	437	20.7%
	연면적	275,999	154,854	-43.9%	275,999	154,854	-43.9%
충 북	동 수	379	555	46.4%	379	555	46.4%
	연면적	359,460	238,753	-33.6%	359,460	238,753	-33.6%
충 남	동 수	522	662	26.8%	522	662	26.8%
	연면적	251,382	398,373	58.5%	251,382	398,373	58.5%
전 북	동 수	468	554	18.4%	468	554	18.4%
	연면적	274,675	241,858	-11.9%	274,675	241,858	-11.9%
전 남	동 수	525	618	17.7%	525	618	17.7%
	연면적	300,023	293,482	-2.2%	300,023	293,482	-2.2%
경 북	동 수	838	1,333	59.1%	838	1,333	59.1%
	연면적	442,197	519,734	17.5%	442,197	519,734	17.5%
경 남	동 수	921	992	7.7%	921	992	7.7%
	연면적	554,870	769,549	38.7%	554,870	769,549	38.7%
제 주	동 수	230	247	7.4%	230	247	7.4%
	연면적	64,601	94,259	45.9%	64,601	94,259	45.9%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6년 1월말

구 분 건 축 사 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28	5,128	167	334	29	90					5,324	5,552	1,469	1,469	261	522	69	207	30	120	33	208									1,862	2,526	7	7	7,186	8,078	100.0%	100.0%
서울	1,180	1,180	51	102	13	40					1,244	1,322	852	852	172	344	40	120	19	76	19	123									1,102	1,515	6	6	2,346	2,837	33.2%	35.4%
부산	508	508	20	40	6	19					534	567	76	76	14	28	5	15	3	12	5	28									103	159			637	726	8.9%	9.1%
대구	412	412	25	50	7	22					444	484	48	48	20	40	6	18	1	4	2	10									77	120			521	604	7.3%	7.5%
인천	226	226	2	4	0	0					228	230	45	45	4	8	1	3	0	0	0	0									50	56			278	286	3.9%	3.5%
광주	212	212	3	6	0	0					215	218	29	29	7	14	3	9	1	4	3	17									43	73			258	291	3.5%	3.6%
대전	199	199	14	28	1	3					214	230	23	23	10	20	1	3	1	4	1	12									36	62			250	292	3.6%	3.7%
울산	164	164	6	12	1	3					171	179	14	14	2	4	2	6	0	0	0	0									18	24			189	203	2.6%	2.5%
경기	698	698	7	14	0	0					705	712	216	216	20	40	3	9	1	4	1	5									241	274			946	986	12.7%	12.1%
강원	154	154	4	8	0	0					158	162	22	22	3	6	0	0	1	4	0	0									26	32			184	194	2.5%	2.4%
충북	169	169	10	20	0	0					179	189	24	24	2	4	1	3	1	4	2	13									30	48			209	237	2.9%	2.9%
충남	158	158	3	6	0	0					161	164	36	36	1	2	2	6	1	4	0	0									40	48			201	212	2.7%	2.6%
전북	183	183	3	6	0	0					186	189	20	20	1	2	2	6	1	4	0	0									24	32			210	221	2.8%	2.6%
전남	128	128	0	0	0	0					128	128	7	7	0	0	1	3	0	0	0	0									8	10			136	138	1.9%	1.7%
경북	293	293	6	12	1	3					300	300	30	30	1	2	1	3	0	0	0	0									32	35	1	1	332	343	4.6%	4.2%
경남	344	344	13	26	0	0					357	370	20	20	4	8	1	3	0	0	0	0									25	31			382	401	5.2%	4.9%
제주	100	100	0	0	0	0					100	100	7	7	0	0	0	0	0	0	0	0									7	7			107	107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78	10	8,088	100.0%	23
서 울	2,837	3	2,840	35.4%	10
부 산	726	1	727	9.1%	9
대 구	604	0	604	7.5%	0
인 천	286	0	286	3.5%	0
광 주	291	0	291	3.6%	0
대 전	292	1	293	3.7%	0
울 산	203	0	203	2.5%	0
경 기	986	2	988	12.1%	2
강 원	194	0	194	2.4%	0
충 북	237	0	237	2.9%	0
충 남	212	3	215	2.6%	0
전 북	221	0	221	2.6%	0
전 남	138	0	138	1.7%	0
경 북	343	0	343	4.2%	1
경 남	401	0	401	4.9%	1
제 주	107	0	107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52	2,526	7	8,148	
비 율	68.14%	31%	0.1%	100.0%	
사무소수	5,324	1,862	7	7,186	
비 율	74.09%	25.91%	0.1%	100.0%	

건축마당

자재정보

Product Information

나무가 과학을 먹었다.

COLOR 무늬목과 기능성 무늬목



Color 무늬목은 무늬목 단판을 정연 처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철저한 수세 공정을 거쳐 천연에 가까운 중성 염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색의 상원색을 각기 다른 싸이클로 염착 시킨 후 나무의 고유 무늬결을 살려 고착시켜 나노 수세 후 5가지의 견뢰도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말한다.

기능성 무늬목은 COLOR 무늬목 단판을 기초로 방염, 방오, 항균, 방향, 유연, 아광, 광촉매 등의 기능을 첨부 하였으며, 직사광선의 변색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 규격, 길이 : 2500mm, 폭 : 150~430mm, 두께 : 0.2~0.25mm
- 특징, 다양한 색상 연출, 현장에서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원하는 size재단, 경제적이며 작업시간 단축, 도장을 따로할 필요가 없다.
- 용도,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주방집기 등, 바닥재, 펜시용품, 가전제품, 자동차 실내 마감재

(주)셀포

Tel_ 02-511-1990

침투성 표면 강화제(L&M SEAL HARD)

친환경 바닥 마감재 - (주)씨엠에스이코리아



(주)씨엠에스이코리아의 침투성 표면 강화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해 내마모성을 강화시키며, 표면 공극을 치밀하게 해 오염물질의 침입을 막고 무색, 무취한 불연제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 재료, 무기질 실리카계/인체 무해한 친환경적 바닥재
- 적용장소, 주차장, 냉동·냉장창고, 물류센터, 식품가공/제조/제약/전자 산업용 공장 등등 이 밖에 콘크리트가 포함된 모든 시설물에 다양하게 적용.
- 특징, 세계최고의 표면 마모력/환경보호처 승인(USDA 인증서) 양생 가능, 미끄럼 저항성 탁월/압축강도 효과 탁월 산성, 화학물질에 저항력 높음/방진효과/ 바닥표면오염감소 광택효과/표면 전착 결합력/소음절감 효과

(주)씨엠에스이코리아

Tel_ 02-847-1623~7 | www.cmse.co.kr

50톤 하중 거뜬 'SR 그레이팅'

고객 입맛에 맞는 무류디자인 주문생산



마이즈텍의 수목보호대는 기존 철재 수목보호대나 배수를 위한 스틸그레이팅의 불편일률적인 재료와 디자인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서 돌의 특성을 고스란히 재현하면서도 자유로운 성형과 하중강도를 높인 첨단 수목보호대와 그레이팅이다.

마이즈텍의 수목보호대는 1.5톤의 하중부터 최대 50톤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원석질감 그대로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색상의 벗겨짐이 애초에 없다.

또한 색상의 종류도 다양하여 통일감 있게 수목보호대와 배수로 그레이팅을 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제품들과 설치방법이 다르지 않고, 주문생산도 가능하여 건축사의 요구에 따라 무료로 디자인하여 제공한다.

(주)마이즈텍

Tel_ 031-202-1149 | www.mys123.com

도시의 초록벽을 꿈꾼다

친환경적인 벽면녹화 시스템 - 그린메쉬웨이브



'그린메쉬웨이브'는 건축구조물의 높은 수직벽면을 녹화시키는 친환경적인 벽면녹화 시스템으로서 삭막한 콘크리트벽, 회색의 벽면을 녹음으로 차폐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건축물 표면의 복사열을 감소시켜 도시기후의 조절에 도움을 주며,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건축물 표면을 보호, 도로의 탈색과 표면균열을 방지하며 흡착력이 큰 덩굴식물은 건축물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의 울림현상을 방지하는 효과,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우수 및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 단애쉬형, 이중메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입체감 있는 시공이 가능하다.

(주)한설그린

Tel_ 02-3411-0898 | www.hgreen.com

친환경 건축음향튜닝재

건축음향과 전기음향의 완벽한 조화!



20여년간 음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노벨텍은 쾌적한 음향공간을 위한 건축음향소재로 이상적인 진향시간과 음의 명료도를 높이는 등 음향산업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이나 수입품에 의존해 오던 국내 건축음향 튜닝재 시장에 노벨텍이 국내 최초로 친환경 고품격 인테리어 소재를 공급하면서 건축음향튜닝재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노벨텍 생산제품인 노벨텍스(목모음향판/흡음재), 노벨톤(목재 분산음향판/흡음재), 노벨로멤톤(목재다공질분산음향판/흡음재)은 탁월한 내구성 및 흡음효과와 편리한 시공, 고품격 인테리어디자인 마감 등이 특징이다.

노벨텍

Tel_ 02-3445-9191~3 | www.nobeltech.co.kr

신개념의 다기능 마감재

내외장 건축자재 전문기업 - 넥스트



넥스트는 2000년 5월 4일 설립, 건축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쟁력 있는 내외장 건축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써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건축자재를 선정,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시공에 꼭 필요한 본드 및 부착자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05년도에는 오공본도와 공동 연구하여 시공이 편리한 알리늄팩으로 포장된 NEXT-I 본드와 외장용 NEXT-II 본드를 개발했으며, 2005년 5월에는 경질보드용 스크류를 개발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실안등록 출원, 2005년 7월 28일 등록 제0391909호로 실용실안등록 되었다.

<주요생산품목>

- FOREX 화이버 시멘트 보드 6mm
- FOREX 화이버 시멘트 보드 8mm
- VIVA 목모 시멘트 보드 8mm
- VIVA 목모 시멘트 보드 10mm
- VIVA 목모 시멘트 보드 12mm
- 넥스트플로트
- 피사리 플로트
- 범퍼
- 연결핀
- 클리트(Cleat)

넥스트

Tel_ 031-456-2022 | www.nextmarina.com

세계적인 친환경 화학회사 - Sika Korea

KS, ISO 9001, ISO 14001 인증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Sika Korea LTD는 1910년 Zurich에 설립된 세계적인 초국적 화학 기업 Sika의 한국지사로 출발해 1992년 자본금 70억을 스위스 본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이후 1993년 송탄공장에서 국내생산을 시작하여 1996년 현재의 약 5,000평에 달하는 안성공장을 준공, 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1994년 KS규격인증을 획득한 이래 1994년 ISO 9001, 1997년 ISO14001 품질시스템을 SGS Yarsley로부터 인증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본사의 내부 품질감사를 받는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생산품목>

- 콘크리트 혼화제(Concrete Admixtures)
- 건설용 접착제(Sealing and Bonding)
- 보수제(Repair)
- 흙 보수용품(Do It Yourself)
- 바닥재(Flooring)
- 공업용탄성점착제(Elastic Adhesive and Sealing)
- 그라우트제(Grout)
- 자동차보수용제품(Automotive Aftermarket)

씨카코리아

Tel_ 031-677-5555 | www.sika.co.kr

장금 장치와 쇠창살이 필요없는 창살없는 방법창 '예스락'



예스락은 독일식 시스템창호로 알려진 Tile & Turn 기능의 창문을 Sliding & Control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국내특허기술로 로열티가 지불되지 않는 국내 순수 발명품이다.

기존의 미닫이 창문 잠금장치인 크리센트(잠금고리)는 창문이 닫힌 작던간에 나사 2개로만 고정되어 있어 평이한 연장만으로 강제로 벌려 손상을 입힐수 있다. 이와같은 수법의 대안으로 쇠창살을 창문과 설치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때나 미관상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좋지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스락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한 제품으로 기존의 미닫이 창문에다 그대로 설치만 하게되면 안에서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좌우상관없이 문을 활짝열수 있고 방범기능을 요할때는 15cm만 열어놓고 환기를 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제품이다. 쇠창살과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예스락은 제한된 영역만큼만 열리게 해 오픈된 상태에서 침입을 예방할수 있으며 고층아파트에서 어린이자들이 추락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스락

Tel_ 02-451-8388 | www.yeslock.com

아토피, 새집증후군 '안녕 ~'

친환경 목재주택 - 아스카 목조주택



(주)아스카목조주택은 요즘 한창 세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와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집의 아토피, 새집 증후군의 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목재주택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목조주택은 여름에는 시원하여 에어컨이 필요없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필요없을 정도로 항상 쾌적하고 청정한 내부환경을 제공하며, 미래에 닥쳐올 지진이나 태풍에도 훌륭히 견디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다.

<주요생산품목>

- 목조주택 시공, 설계, 인테리어, 수입목조제품판매

아스카목조주택

Tel_ 02-556-2975 | www.ok-house.com

닥지 않는 유리·썩지 않는 나무

친화적 건축 소재 연구개발 - 아즈플러스



아즈플러스는 일상의 80% 이상의 시간을 건축물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을 위해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 공간 환경을 창조하고 자 국내외에 특허

출원한 독창적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 건축 소재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다.

- 오염방지 광촉매필름(아쿠아베일)
 - 주상복합, 아파트, 학교 등 청소가 난해하고 위험한 고층건물
 - 쉽게 지정분해되는 방음벽, 주차장, 교통시설물 등의 아크릴 캐노피, 기타 탈색 및 미관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 등
- 결로방지 필름(아쿠아베일 - PD)
 - 도로표지판 전후 결로방지 필름, 유리창 단열필름
- 썩지않는 재생목재(Orange Wood)
 - 반영구적 내구성, 화재위험 방지 및 유독가스 발생을 최소화
 -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용이한 가공

아즈플러스

Tel_ 02-761-9660 | www.azp.co.kr

a+u

2005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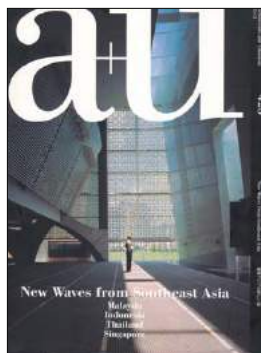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건축사들의 활동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의 건

축사들에 비해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에게도 그들의 건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 이번 특집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 건축사들에 의한 최근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건축사들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특집 :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동남아시아의 건축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의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들 건축의 현주소 또한 그렇다. 동남아시아 국가, 그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휴양도시들 덕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문도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와 같은 휴양지에서 접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대부분 자국의 건축사들의 것이 아닌 외국의 건축사의 손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건축사들의 활동들은 그간 잘 알려질 기회가 적었다.

이번 특집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동남아시아 건축사에 의한 동남아시아의 현대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작품은 현대 건축의 기술과 디자인 어휘를 흡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전통건축의 형태를 장식적으로 덧붙이는 단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들의 기후, 재료, 문화적 전통 등에 대한 이 시대의 대응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동남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건축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고급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직 대규모의 공공프로젝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리조트 건축처럼 보이는 이들 작품에서 그들 건축이 갖는 개성과 담겨진 고민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건축사 케빈 로우의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는 그 좋은 예이다. '사파리 루프'란 본디 열대지방에서 운행되는 SUV인 랜드로버 시리즈를 위해 개발된 장치의 이름이다. 자동차의 지붕에 태양광에 의한 열을 반사시키기 위해 덧댄 알미늄 시트로서 뜨거운 일사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차체와의 사이에 단열층을 형성하고 이 단열층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류를 일으켜 공기가 대류를 시작해 바람이 통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이를 건축에 응용한 것이 이 프로젝트이다.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는 이 주택의 지붕에 통기가 가능한 공간을 두어 사파리 루프의 원리를 이용해 실내의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시키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루버를 입면에 부착하여 일사로부터의 보호를 시도하였다. 분명 지역적 특성, 특히 기후적 특성이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

축이다. 그러나 풀장을 갖춘 이와 같은 고급 주택 프로젝트들은 그간 이 나라에 만들어져 왔던 외국 건축사에 의한 리조트 건축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 나라의 건축사들의 고민은 무엇이며, 그 고민의 결과와 지역의 건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의 단서는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아크말의 에세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의 신세대 건축사와 이들의 활동을 서술한 이멜다 아크말의 에세이는 인도네시아의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한 저예산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동남아 건축계가 품고 있는 고민과 그들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음은 아크말의 에세이 내용이다.

■ 오늘의 인도네시아 건축 : 위기속의 고양

인도네시아 경제위기(1997~99년)의 타격을 받은 직후였던 2000년, 현대건축에 커다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금융과 정치의 심각한 위기는 인도네시아 건축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통화 대 미 달러화 상장이

폭락함에 따라 국외의 건축사에게 일을 맡기려는 건축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인 건축사들에게는 설계의 기회가 열렸고, 인도네시아의 건축사(建築史)는 새로운 일보를 내딛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건축문제

인도네시아 건축에는 경제위기의 이전에도 이후에 못지않게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해 왔었다. 정부에 의한 규제도 그러한 장애물 중의 하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인도네시아 건축에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왔다. 이와 같은 풍조를 이어받아 현대적인 콘크리트와 유리의 건물에 전통적인 장식을 더한 것들이 출현하게 된다. 지방에서는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3개의 중대한 국면이 펼쳐졌다. 첫째로는 주택용지의 부족.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2천만 명에 달하며, 인구의 8할은 결코 넓지 않은 자바섬과 그 외의 섬들의 대도시에 집중하여 지가를 끌어올렸다. 둘째로는 국민의 구매력의 저하이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종류의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으로 양극화되어있으며, 인구의 6할 이상이 하층계급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부문

이 개발업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택을 경제적 상품으로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종종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도시의 중심부나 교외 지역에는 유럽풍의 건축이나 테마파크풍의 주택들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젊은 건축사들과 새로운 운동

젊은 건축사들은 사람들에게 현대건축을 소개하는 한편 새로운 운동(new movement)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카르타, 밴도, 스라바야, 발리 등의 대도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자연히 국가의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 수도 자카르타에 모여들었다. 그중에서도 신세대의 집단, 자칭 AMI(Arsitek Muda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젊은 건축사)들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이 비공식적이면서도 강한 결속력을 지닌 집단은 요리 안타, 이리안토 P.H., 소니 수탄토, 안드라 마틴, 아메드 D. 타디야나 그리고 밤방 에루도하완을 중심으로 1980년대의 말에 결성되어 건축이론의 포럼을 주최하는 등 당시로서는 귀중한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건축교육, 정치, 사회상황에의 불만들은 이들 젊은 건축사들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아디 프루노모, 아메드 주하라, 제닌 에이드



치간쥬르의 주택



치간쥬르의 주택

리안 그리고 마리아 로잔티나와 같은 AMI 2세대들은 경제위기를 겪던 시기에 등장하였다. 여기서 AMI가 존경해 마지않던 원로 건축사 탄 잔 아이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60세에 이른 이 건축사는 오늘날에도 건축의 혁신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건축의 축진을 가져온 상황은 몇 가지가 더 존재한다. 경제개방이 이루어지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왔으며, 지역사회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역건축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인도네시아 건축의 흥미로운 전개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 젊은 건축사들은 탐구심이 깊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학력은 제쳐두고라도 국내의 건축사나 건축 서적이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해외의 건축잡지나 유럽, 일본의 초일류 건축사들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던 것이다. 또한 서적, 인터넷, TV, 영화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건축시찰을 위해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갔다. 세계 곳곳에서 모은 기술이나 새로운 스타일을 인도네시아에 소개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단순함, 순수기하학적 형태, 공간의 질이 그들의 디자인의 기반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건축사 혹은 해외의 건축사들 중에는 이러한 이념과는 달리 이들의 형태가 인도네시아의 문화나 열대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스타일이나 형태만을 모방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버네쿨러한 전통건축은 현대건축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전통적인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극히 소수이긴 하나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토지의 문맥을 따른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축사도 존재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건축사들은 이러한 건축적 이슈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아디 프루노모는 무더운 열대기후를 그 자신의 독특한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치간쥬르의 주택'은 1,000㎡의 토지에 세워진 연면적 300㎡의 주택이지만 그는 여기서 실내의 건축을 흠여 놓음으로써 통풍과 채광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길게 뻗힌 처마는 실내를 선선하게 유지시켜 준다. 커다란 입목, 담쟁이가 기어오르는 외벽, 잔디가 덮인 콘크리트 지붕, 그리고 풍경을 반사해내는 작은 연못을 배치한 풍경은 시원한 미시기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 프로젝트는 저예산이면서 합리적인 빌딩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탄 젠 아이는 어느 프로젝트이건 최소한의 공간요건을 설정하는 건축사이다. '치간쥬르의 주택'에서는 5개의 침실 각각에 3m×3m의 모듈을 채용하였다. 또한 테라코타로 된 지붕기와, 목제로 된 문과 창호, 노출콘크리트의 바

닥슬래브 등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건축의 간결함을 강조하였다. 이 저렴한 소주택의 총 공사비는 부지 주변에 두른 높이 1m이 담을 포함하여 약 1억 3천만 루피(약 1500만원)밖에 안 된다.

제닌 아드리안과 마리아 로잔테나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인도네시아의 주택에서는 그다지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공간프로그래밍이다.

부엌과 설비공간을 주택에 정면에 배치하여 건축주를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을 주택의 안쪽에 크게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하학형태를 조합한 이 주택의 디자인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앞으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건축사들의 작품은 소규모·저예산의 개인주택이 중심이지만 본인들은 이와 같이 수고가 많은 작품일수록 자신들의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킨다며 환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주택건축은 지역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행동양식, 라이프스타일 즉 사회의 모습을 훌륭히 표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인도네시아의 주택



인도네시아의 주택